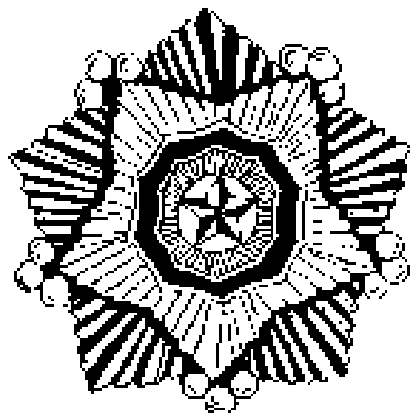


12

주체99(201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12호

(루계 제 758 호)

## 차 례

최고사령관 그이 계시여 .....	3
미래를 말기노라 .....	4
눈송이 눈송이 .....	4
병사의 심장에 평양이 있다네 .....	5
어머니는 초소에 함께 산다 .....	5
량강도숨장화 .....	6
크나큰 심장에 대한 생각 .....	7
전사들이 오른다 .....	8
축복의 미소 .....	9
청춘과원의 가을 .....	9
병사는 행복한 순간에 산다 .....	10
끝없는 헌신의 자욱이 력력히 수놓아진 감동깊은 화폭 .....	11
복받은 대지 .....	1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22
어머님의 미소 .....	22

부전령을 넘어 .....	23
물려주신 유산 .....	34
주체문학의 대강 .....	35
빛과 열은 어디서 .....	35
참된 삶의 노래는 이렇게 태어났다 .....	36
눈내리는 철의 도시에서 .....	37
희천의 불바람 .....	38
비상미 주머니 .....	39
상식 .....	43
사색과 열정의 산물—참된 지성의 령마루에서 .....	44
불빛 찬연한 거리에서 .....	47
우리 젊은이들 .....	48
섬이 보인다 .....	49
경구, 격언 .....	60
어느 한 군양묘장에서 .....	61
고향의 밤길에 .....	62
아버지의 군복 .....	63
그대들이 사는 곳은 .....	63
산촌의 피리소리 .....	64
아들이 부르는 노래 .....	75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형상의 대를 바로 세우자 .....	76
산상의 꽃 .....	78
수기들을 통해 본 남조선사회의 진면모 .....	79

# 최고사령관 그이 계시여

김 성 철

별에 넘친 금빛이삭도  
산에 들에 주렁진 향기론 백과도  
별이 따사로와  
단비 고이 내려  
한껏 자라 익느냐  
원썬들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다칠수 없이  
선군의 총대가 너를 지켜 무르익는것이여라

푸른 바다가 야영소의 아이들  
도래굽이 모래불 좋아 덩굴며 즐거운가  
산이 좋아 물이 맑아  
인민의 등산길 저리도 환희로운가  
원썬들 우리 생활 한치라도 건드릴수없이  
선군의 총대가 너를 지켜 행복한것이여라

조국을 지켜 인민을 지켜  
그이 한번 전선시찰하시면  
침략의 무리 간담 서늘해 벌벌 기누나  
최고사령관 그이 한번 명령내리시면  
적의 아성 텐겹해 아우성치누나

천만장병들 한품에 안으시고  
나의 아들딸 나의 전우라 불러주시며  
사랑으로 무적필승 제일강군 키우시는분  
그이 손들어 가리키시면  
백두의 산악처럼 일떠서고  
그이 붉은 화살표 그으시면  
백두의 폭풍처럼 내닫지 않느냐

그이는 우리 모든 승리의 기치  
총포성없이 이기는 승리자  
신념과 의지 지략으로 이기는 승리자  
조국수호전 사회주의수호전 붉은기수호전  
련전련승 안아오시는 백승을 담고  
세기의 평화와 안전을 안고  
조국의 푸른 하늘 드높이  
최고사령관기 펄펄 나래치누나

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그이 계시여  
선군조선의 위력 당할자 없고  
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  
만천하에 도도히 떨치거니

밀려오는 핵구름도 쳐갈기며  
무궁토록 번영할 락원의 대문 여시는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 계시여  
하늘땅에 울려퍼지는  
주체철 주체숨 주체비료 폭포치는 소리  
《강성부흥아리랑》의 노래소리

천만군민이 피끓는 심장으로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우리가 누리는 최고사령관복은  
인민의 만복 흘러나오는  
영원한 삶의 복 승리의 복이여라



# 미 래 를 말 기 노 라

리 명 옥

아름다운 은구슬이 뿌려진 듯  
별빛도 유난히 밝은 잠들수 없는 이밤  
딸아 이 엄만 너와 한껏 나누고싶구나  
아버이장군님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이 기쁨 이 환희

얼마나 더 밝고 창창할것이나  
너의 꿈, 우리 행복, 내 조국의 앞날...  
격정으로 뿜어내는 이 가슴엔 들리어오는구나  
야영소창가에서 부르는 너의 꽃노래  
복스러이 터져오르는 은방울웃음소리

웃어라 한껏 웃어라  
열두폭 치마자락에 머무르는  
한 어머니의 사랑으로야  
너의 웃음이 그리도 기쁨에 아롱질수 있으랴  
옹달샘같이 맑고맑은 너의 눈동자에  
창창 푸른 꿈하늘이 고이 비껴흐를수 있으랴

너를 위한 이 엄마의 사랑은  
한집안 대문밖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당의 사랑은  
훨훨 꽃수레에 너를 태워  
가도가도 끝이 없는 행복의 대지  
희망의 넓은 바다를  
너의 작은 가슴에 통채로 안겨주는구나

마음껏 나래치거라  
무지개 고운 꿈 펼치며  
해당화 꽃땀불밑에 보물찾기 신나고  
숲향기에 취해 식물채집에 여념없을 때

너의 그 행복이 길이길이 복되어지라  
우리 장군님 추대하여  
이 엄만 목청껏 환호를 올리였단다

아이들을 왕으로 떠받드는 당  
미래를 위해 사랑의 총대를 높이 든 당  
천만자식들의 복된 운명을 다 맡아안은  
어머니 조선로동당이어!

이 강산 어디 가나 넘쳐나는 글읽는 소리  
다투어 피어오르는 꽃망울들의 웃음소리  
아 우리 당의 제일 큰 기쁨이런듯  
세월의 눈비바람 다 막아  
그리도 밝게밝게 아이들의 웃음을 떠올리는  
그런 당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던가

가슴벅차올라라  
선군의 기폭자락에 아이들을 꼭 품어안고  
척척 발구름소리 높이 희망찬 앞날을 불러오는  
미래가 창창한 우리 당  
제국주의침략의 불구름이  
맑고 푸른 저 하늘 흐릴세라  
백전백승 그 무한한 사랑의 힘을 키운 당

아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성스러운  
우리 당 조선로동당에  
이 나라 어머니들은 만스름놓고 아이들을 맡겼다  
딸아 이밤 지새도록 행복의 노래 부르거라  
더 좋은 앞날 만복넘친 찬란한 미래를 위해  
우리 당 총비서로 아버지장군님 높이높이 모셨  
단다

## 눈 송 이 눈 송 이

럼 형 미

하늘가득 메우며 내리는  
눈송이 눈송이  
정결한 꽃잎모양 흐트러질가  
내 두손 모아 고이 받아안은  
눈송이 눈송이

은빛의 소나기인가  
은빛의 꽃보라인가

백설의 세계에 몸을 맡기니  
아 마음속에 펼쳐지는 숫눈의 주단이어

그 하얀 눈에  
또렷이 찍히는 자욱  
눈송이 하염없이 내리고내려도  
덮여지지 않는 자욱  
우리 장군님의 크나큰 자욱이어

눈송이 눈송이  
너는 알지 내 마음을  
그리워 그리워 눈을 감으면  
뵈고싶은 그 모습에 앞서  
어이하여 고드름 맺힌  
그이 야전복의 옷깃만  
생생히 안겨오는지

그리워 그리워 꿈결에도 손을 뻗치면  
파스한 그 손길에 앞서  
어이하여 성에불린 야전차의 차창만  
손에 닿는것인지  
아 너무도 사무치게 그리운 그이의 영상은  
뜨거운 눈물속에 가리워지는구나

눈송이 눈송이 억만송이 내려도  
그이 이 한해에 남기신 자옥자옥  
그이 이 한해에 흘리신 땀방울  
그보다 많지는 못하리라  
따르지도 못하리라

그 열애의 자옥자옥  
그 헌신의 강행군길따라  
주체철 주체숨 주체비료폭포로 위용펼치고  
CNC화의 열풍으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조국은 이 한해에 세기를 주름잡았고  
위대한 장군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백배로 강해진 당의 향도따라  
인민은 행복의 만년을 창조했거니

아 이 순간도  
더 크나큰 만복의 옷자락에  
조국과 인민을 감싸안으시려  
폭풍처럼 달려가실 우리 장군님  
지칠줄 모르는 사랑의 태양이시여

그 길에 송이송이 삼가 따라서리  
더는 험한 길 걷지 마시고  
새해에도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는  
아 장군님께 내 소원 아뢰어드릴  
눈송이 눈송이 큰 눈송이...

## 가 사

### 병사의 심장에 평양이 있다네 외 1편

박 철

깊은 밤엔 대동강 푸른 물 가슴에 흘러들고  
새벽이면 학습당 종소리 마음에 들러오네  
최전연초소에서 평양은 천리이던가  
전호에 가슴대인 이 심장에 평양이 있네

만수대언덕의 붉은 노을 군기에 어려있고  
최고사령부의 밝은 불빛 총창에 비껴있네

최전연초소에서 평양은 천리이던가  
전호에 가슴대인 이 심장에 평양이 있네

천리 먼곳 떨어져있어도 떨어져선 살수 없는  
평양은 그리운 어버이수령님품 장군님품  
한목숨 다 바쳐 지켜갈 불타는 맹세  
전호에 가슴대인 이 심장에 평양이 있네

### 어머니는 초소에 함께 산다

고지에 눈내리면 이 마음에 눈내리고  
방선에 비내리면 이 마음에 비내린다  
아들아 네 군복입은 그날부터  
어머니마음 너와 함께 초소에 산다

힘겨운 훈련길 이 마음도 따라건고  
깊은 밤 초소근무 이 마음도 같이 선다

아들아 항상 전우들의 모범이 되라  
어머니마음 너와 함께 초소에 산다

눈비젖은 군복에 훈장달고 돌아오면  
어머니는 그 가슴에 얼굴을 묻으리라  
아들아 부디 장군님의 영웅 되거라  
어머니마음 너와 함께 초소에 산다



## 량 강 도 숨 장 화

삼지연군, 백암군을 거쳐 혜산시로 이어지고있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도 야전차는 혜산신발공장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증산의 동음을 울리고있는 생산현장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컴퓨터에 의한 생산지휘체계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숨신발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누구나 좋아할 겨울신발중에서도 맵시있게 만든 신발을 손에 드시고 세심히 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목높은 림업용 숨신》이라고 쓴 제품앞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여러 현장들을 다 돌아보시고 공장마당에 나서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공장종업원들을 높이 평가하시다가 문득 림업용숨신이라... 하고 다시 되뇌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찌하여 하나의 신발이름을 두고도 그토록 마음쓰시며 자꾸만 외우시는지 알수 없어 일군들은 의아해하였다.

그러는 일군들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공장에서 만들고있는 목이 긴 숨신발은 림업로동자들뿐아니라 추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것이라고 하시며 인민들을 위하여 훌륭한것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어울리게 이름도 잘 붙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인민들이 좋아하는 량강도의 특산물인것만큼 신발이름을 량강도숨장화라고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량강도숨장화!

정말 신룡한 이름이였고 명쾌한 이름이였다.

일군들은 뜨거움에 눈시울을 습벽이였다.

일년 열두달중에 더운 날보다 추운 날이 더 많은 북방에서 사는 인민들의 신발문제때문에 늘 마음쓰시던 아버지장군님이시였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전선길을 달리시다가도 병사들의 솜옷이며 숨신발의 두께가 얇지 않는지 근심스러우시여 문득 차를 멈추시던 장군님.

눈덮인 고산지대에서 생활하는 혁명전적지강

사들을 언제나 마음속에 그려보시며 발이 시려할세라 숨장화를 보내주도록 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동행한 일군들의 눈앞에 송엄하게 떠올랐다.

크지 않은 지방산업공장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모양깔고 질좋은 숨신발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해주고있는 사실이 너무도 장하고 기특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추운 고생을 하는 북방사람들을 위하여 이 공장에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자신께서는 인민들의 복리에 이바지하는 이런 공장을 돌아볼 때가 제일 기분이 좋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만사사람의 심장을 후덥게 하는 말씀이였다.

한결레의 신발을 놓고도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헤아려보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마다 깊은 뜻을 새겨주고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일군들을 정겨웁게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멋있는 숨장화를 더 많이 만들라고, 추운 겨울날 이 고장에 오면 자신께서도 량강도숨장화를 사신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자애에 넘치는 눈빛으로 뜨거운 약속을 남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목이 메였다.

자신께서는 수수한 신발을 신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지도의 길을 걸으시면서도, 수수한 야전복을 입으시고 1년 365일 강행군길에 계시면서도 인민들에게는 좋은 옷에 좋은 신발을, 맛좋은 식료품에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 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온 나라 대가정의 위대한 아버지.

과연 그 누가 한결레의 숨신발을 두고도 인민을 위해 그토록 가슴 뚫어본적 있었던가.

량강도숨장화.

그것은 단순한 신발이름이 아니라 우리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위대한 복무정신이 낳은 또 하나의 사랑의 결정체인것이다.

추운 겨울날 이 고장에 오면 나도 량강도숨장화를 사신겠소!

그날에 하신 우리 장군님의 말씀은 고마운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을 하나의 피줄기로 더욱 굳세게 이어주는 위대한 인간의 심장의 메아리였다.

## 크나큰 심장에 대한 생각

김 유 권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열렸을 때 우리 몇몇 작가들은 수도에서 퍼그나 떨어진 우산장창작실에 가있었다.

소술한 가을바람도 멀리 에돌아 지나가는 잠풍한 풀안이었지만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격동적인 열파는 사람들의 가슴가슴을 세차게 흔들어 주고있었다.

그날은 명절이었다. 감격과 환희를 안고 우리 작가들은 창작실관리소 사람들과 어울려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창작실에서 아득히 울려다보이는 국사봉은 울긋불긋 천만가지 색조를 펼치며 류다른 가을의 정취를 자아냈다. 자연계는 또 한차례의 풍만한 결실을 맺고있는것이였다. 그런가하면 떨기져 피어난 생신한 들국화와 코스모스들은 진한 향기를 풍기며 다시한번 꽃계절을 산기슭에 펼치고있었다.

가을의 산천은 류달리 아름다웠다.

텔레비죤앞에 둘러앉아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장면을 시청하던 때의 그 걱정은 가셔질줄 모르고...

조국청사에 길이 남을 영광의 순간들이 우리 눈앞을 지나가고있었다.

텔레비죤화면에서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우러러 붉은 대표증들이 일제히 쳐들리는것을 본 우리는 환호를 울리며 박수를 쳤다.

한 시인이 좌중을 돌아보며 걱정을 터뜨렸다.

《저 붉은 대표증들을 보오. 마치도 불타는 심장들을 추켜든것 같지 않소?!》

우리 창작가들의 가슴을 울려주는 의미있는 표현이였다.

심장!... 불타는 심장!...

마음속으로 다시 외워보느라니 생의 마지막순간에 품속에서 피문은 당원증을 꺼내여 당중앙위원회에 바쳐달라고 유언한 혁명가극의 주인공 강연옥의 형상이 문득 떠오른다. 그가 당에 바친것은 순결하고도 열렬한 당원의 심장이 아닐가. ...

더불어 조선로동당원의 심장에 대한 생각이 뇌리에서 떠날줄 모른다.

이런 뜻깊은 경사의 날에는 추억도 많은 법이지만 나는 자기를 가장 행복한 세대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또래는 중학시절에 5대혁명가극의 노래들을 부르며 자랐고 사회생활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부터는 우리 당 수뇌부에 높이 모신 **김정일** 장군님을 친애하는 지도자로 우러르며 따랐다.

그 나날에 나도 동시대 젊은이들과 같이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의 주인공처럼 당에 대하여, 당원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는 날이 왔다.

그리하여 내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을 마음속에 품게 되였다. 그것을 성취할 때 비로소 나도 참된 인간으로 될수 있고 꿈꾸어오던 작가로서의 성공도, 행복한 앞날도 바라볼수 있는것이다.

성스러운 당기발앞에서 붉은 당원증을 수여받은 날 오랜 당원들은 나를 축하해주면서 당원증을 품에서 한시도 떼어놓지 말고 늘 심장처럼 지니고다니라고 일러주었다.

그날 나는 이 가슴에 귀중한 심장을 받아안은것으로 하여 비로소 진정한 인간으로 된것 같은 심정이였다.

나의 당생활로정을 돌이켜볼 때마다 주체86(1997)년 가을을 잊을수 없다.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온 나라가 피눈물을 흘리며 3년세월을 보냈었다.

그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우리 전체 당원들이 이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실 위인은 **김정일** 장군님 한분밖에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그이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이 기대를 안으시고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선군의 위력으로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압살공세를 격파하고 빨찌산식강행군으로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시였다.

그 전성기를 수놓은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발자취와 마음후터운 하많은 사연들...

이 기간 나에게도 당의 작가로 걸음걸음 성장하면서 우리 식 CNC기술분야에 기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에 대해 잘 알게 된 뜨거운 체험의 나날이 있었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집집들에 전등불이 꺼졌던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장군님께서는 북방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시고 그곳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우리 함께 CNC화를 해보자고, 전후복구건설을 하는것처럼 첨단기술의 초행길을 개척해나가자고



# 전사들이 오른다

## 리광선

12월의 오산덕으로  
전사들이 오른다  
군모아래 머리 흰 장령도  
최전연의 영웅병사도  
희천의 언제건설자  
김철의 용해공  
미곡과 동봉의 농장원도...

승업한 생각에 잠겨 오르는  
전사들의 마음속에  
함께 오른다  
대사하치기에서 잘루목에서  
해방된 삼일포에서 울리던 총성이  
사령관동지의 사상을 지켜  
혁명의 배신자를 타매하던  
청봉밀립의 태동하던 설레임이

수수한 항일의 군복차림  
저 모습 아니던가  
사령부의 불빛을 지켜  
밀영의 밤을 지새군 하시던  
허리에 차신 저 총이 아니던가  
감히 사령부를 노리고 달려든 원썩들을  
한놈도 살려보내지 않았던

조선혁명의 심장을 지켜  
결사용위의 전초선에서  
한생을 불태워오신 김정숙어머님  
그 업적 정녕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어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의 력사가  
어머님께 드린 성스러운 칭호는  
친위전사!...

얼마나 많은 투사들과 영웅들이  
스스로 어머님의 전우가 되고 전사가 되어  
위대한 그 한생에  
자기의 생을 이어 빛내여왔던가  
김책 안길 최현 류경수 오진우...  
리수복 길영조 연형목...

12월의 오산덕으로  
오늘은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발을 맞추어  
천만전사들이 오른다  
친위전사의 대오가 오른다  
혁명의 수뇌부를 대를 이어 옹위해갈  
맹세를 안고  
오 오산덕마루로 오르고 또 오른다

~~~~~  
절절히 호소하시였다.

그날 장군님께서 공장사람들의 가슴에 지퍼주신  
불길이 어느덧 온 나라에 타번져 우리는 CNC기  
술의 명맥을 틀어쥐게 되었으며 세계최고의 수준  
을 자랑하고있다.

오늘도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을》을 들으실  
때마다 그 고난의 시기를 뜨거운 감회속에 돌이켜  
보시는 장군님의 심원한 세계에 접하게 되면서 나  
는 소설의 종자를 잡게 되었다.

뜨거운 감정속에 찾아쥐고 또한 감정을 낳는것  
만이 명실공히 종자로 될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  
였다.

이런 벽찬 현실을 체험한 작가가 어찌 한둘  
이랴.

산악처럼 일떠서는 희천의 언제앞에서 상을 잡  
았다는 저 시인이며 비날론숨구름을 피워낸 수십  
명의 영웅들을 만나보고 온 소설가며 남흥과 김  
철, 대계도의 기적들을 작품에 담고있는 여러 작  
가들의 얼굴에도 깊은 감동과 신심이 어려있다.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이

길에 승리와 영광, 이 땅의 무궁한 번영이 약속되  
여있으며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이 마주오고있다  
는 이 절대불변의 진리를 우리모두는 심장에 간직  
하고있다.

텔레비죤화면이 순간에 붉은 일색으로 물드는가  
싶었다.

우리의 운명이시며 미래이신 장군님을 받들어  
높이 쳐든 저 대표자들은 정녕 우리 전체 당원들  
의 크나큰 환희와 신념으로 불타는 붉은 심장들처  
럼 보인다.

그 심장들이 합쳐져 조선이라는 강성대국을 용  
용히 일떠세워가고있는 크나큰 거인의 심장을 이  
룬다. 심장에서 피가 용솟음치고 온몸에 맥맥히  
흘러가듯이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들마다 세기  
의 걸출한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이 흐른  
다. 우리 장군님만을 받들어 순간도 변심없을 전  
체 당원들의 크나큰 심장이다.

위대한 력사가 흐르고있다. 주체혁명위업의 전  
도가 세기와 세기를 넘어 휘황히 열리는 순간  
이다.

넘치는 감격이여! 불타는 심장의 맹세여!...

# 축복의 미소 외 1편

변 홍 영

쉽없이 쏟아져 내리는  
백옥같이 희고 눈부신 주체비료  
그대로 알알이 흰쌀인가  
내 두손가득 소중히 안아보니  
더더욱 그리워라 우리 수령님

하늘가에 치솟은  
무수한 은빛탑들을 바라보아도  
줄줄이 뻗어간 배관을 따라  
굽이쳐 흐르는 가스화의 열풍소리를 들어도  
가슴에 사무쳐오는 수령님 생각

갈대만이 무성하던 청천강반에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대화학기지를 일떠세워주신 수령님  
한평생 얼마나 이날을 그리셨으랴  
오늘의 주체비료대경사를 바라셨으랴

폭포처럼 쏟아지는 비료산을 바라볼수록  
가슴이 뜨겁구나  
수령님 한생토록 사랑을 안으시고  
건고결으신 온 나라의 포전길이 다 어려와  
불현듯 눈시울이 젖어오는구나

동서천리 곡창벌  
농장마다 차폐질 비료톤수며  
먼 산촌의 언덕발 이랑이랑에  
포기포기 주어야 할 그 비료량까지  
늘 품고다니는 수첩에 적어넣으시던  
인민의 아버지

오늘도 그 수첩을 펼쳐드리고

청산리며 미곡, 삼지강...  
그 정든 고장들의 이름도 외우시며  
이제는 김정일장군덕에  
농민들이 비료걱정을 안하게 되었다고  
기쁨에 넘치신 그 음성  
금시 저 비료폭포소리에 실려오는듯

금파만경 설레이는 들길에서  
즐거우시여 노래를 부르시던 그날처럼  
우리 비료가 익힐 천만복을 안아보시며  
하늘땅이 밝아지도록 환하게 웃으시는듯  
태양의 그 미소  
저 번쩍이는 은빛탑들위에 넘쳐흐르누나

수령님의 평생념원을 꽃피워주신  
장군님의 그 숭고한 애국충정이  
우리 비료로 팡팡 쏟아지는 이 기쁜 날  
그래서 더 환희롭고 눈물겨운  
온 나라 대경사의 날

아, 우리 수령님  
주체비료대경사를 안아오신  
우리 장군님과 함께  
장쾌한 비료폭포소리를 들으신다  
쌀이 넘쳐나는 좋은 세월이 오는 소리...  
인민의 웃음꽃이 한껏 만발하는 소리...

창창히 열린 내 조국의 앞날에  
수령님은 축복의 미소를 보내신다  
그 미소 비껴가는 선군조선의 푸른 대지위에  
오곡백과의 락원이 가없이 펼쳐지도다!  
승리한 강성대국리상향이 솟아오르도다!

## 청춘과원의 가을

꽃피는 봄철엔 꽃절경이 하도 좋아  
모시고싶은 마음 간절했더니  
열매익는 이 가을엔 백과절경 더욱 좋아  
사무치게 그리운 우리 장군님

과일향기 가득한 이 좋은 철에  
그이께서 오시였으면  
온 일년내 강행군길에 쌓인 그 피로  
과원길 걸으시며 잠시나마 푸셨으면...

울봄에 심은 사과나무 아지들엔  
희한하게 열린 첫 열매가 익고

우리네 병사들의 가슴속엔  
간절한 소원이 익는  
백과의 락원이 예로구나

청신한 푸르름이 약동하는  
대동강반의 청춘과원  
꽃지고 열매맺은 초여름에  
꿈같이 오시였던 우리 장군님  
그날처럼 문득 다시 오시였으면

지난 한겨울 그 모진 강추위속에  
아득히 새로 펼친 과수의 바다

내무군병사들의 결사관철의 그 충정을  
한품에 안아보며 환히 웃으시던 그 영상  
그날처럼 이 가을날에 다시 뵈웠으면...

아, 우리 장군님 얼마나 기뻐하시랴  
전선으로 가시던 길 여기에 들리시여  
울봄에 심어 올가을에 주렁지운  
이 과원의 첫 열매를 보신다면  
얼마나 병사들을 정겹게 안아주시랴

알찬 열매들에 무르익는 인민의 천만복이  
장군님의 제일 큰 기쁨이어서  
청춘과원의 가을이여  
그 머나먼 강행군길 오가시면서도

너를 언제나 그려보셨으리니

다시 모시고싶어라 이 좋은 철에  
하루하루 수확의 날이 다가올수록  
사무치는 그리움 더해만 가네  
과원길을 끝없이 걷고걸으면  
마주오시는 장군님 문득 뵈울것 같아

아, 귀한 이 사과 그 어이 딸가  
아버지장군님께 보여드리기 전에는  
차마 손을 못 대겠네  
병사들의 그리움이 능금처럼 익는  
백과과원의 가을은 풍요하구나!

## 병사는 행복한 순간에 산다

박 상 민

우리 집 하얀 벽에  
다섯번째로 영광의 기념사진 모시는 날  
어머니는 또다시 귀에 익은 이야기 펼치네  
자랑스런 병사시절이야기...

—만이랑 둘째랑  
장군님 모시고 기념사진 찍더니  
오늘은 우리 막내가  
장군님곁에서 사진찍는 영광을 지냈구나

우리 집의 영광은  
40여년전 그 봄날부터란다  
글쎄 내가 칠두 없었지  
수령님을 모시고 우리 부대 찾으신  
장군님께 그런 말씀드리다니

...  
작업을 하던 녀병사 숨가빠 달려왔네  
—저의 군복이 병실에 있습니다  
미처 알아뵈지 못한 그이께  
녀병사는 외람된 말씀드렸건만  
장군님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셨네

—수령님을 만나뵈워야지...  
평생을 두고 서운할텐데  
잠간 기다리시오

아 우리 장군님  
한 녀병사의 안타까운 마음 풀어주시려  
선뜻 심부름에 나서신다  
이 땅의 천만병사 마지막 한사람까지  
우리 수령님곁에 세우시려  
한생토록 길이 간직할 영광을 안겨주시려

흠매다칠한 숨신발때문에  
눈물흘리는 녀병사 이끄시고  
영광의 기념촬영장에 가신 장군님  
앞줄에 서지 못한다 서운해 말라시며  
자리까지 잡아주시여라

행복한 순간을 맞이한 녀병사  
아버이수령님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면서도  
그분이 누구이신줄  
그분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이신줄  
알지 못했으니  
모르고 받은 사랑 얼마나 큰것인지  
어찌 알았으랴 그날 그 순간에는  
...

아 어머니가 오늘도 잊지 못하는  
40여년전 이른 봄날  
장군님의 사랑속에  
이 나라 병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행복한 순간에 산다는것을  
사진속에 새겨둔 그 봄날이여!

오늘도 병사들이 있는 곳이면  
아무리 멀고 험한 최전방에도  
그날의 사랑을 안고 찾아가시는 장군님  
선군시대 병사들과 그 봄날을 이어가신다

그 사랑의 품 떠나 못살아  
위대한 선군시대에 총잡은 우리 병사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장군님 가까이에서  
장군님의 아들딸로 행복하고 영광스럽다

# 끝없는 헌신의 자욱이 적적히 수놓아진 강동길은 화폭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3) 《눈보라》를 읽고 —

권 선 철

한편한편의 소설, 한페이지한페이지의 글이 그대로 위인의 거룩한 위인상으로 빛발치고 그 위대한 자욱으로 눈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3) 《눈보라》는 선군시대문학의 또 하나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는 지금 수령님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들의 악랄한 도전을 짓부시고 부닥치는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며 선군장정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고있습니다.》

단편소설집에 실린 소설들은 결코 소설가의 기교와 재능이 낳은 산물이 아니다. 늘 군대와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걸음걸음 군대와 인민을 찾아 멀고 험한 길을 달게 걸으시고 거룩한 령도의 자욱자욱을 오로지 군대와 인민을 위한 헌신으로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일부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 태양은 영원하다

하늘땅이 무너지는듯 한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쓰러지지 않고 억척같이 일떠선 힘이 있으니 이는 바로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신념이고 의지였다. 온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속 깊은 곳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척의 신념을 굳게 해주시고 가요 《높이 들자 붉은기》의 장엄한 선물로 백두의 성스런 붉은기를 영원히 날리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아니, 신념이고 의지이기 전에 우리의 온넛을 불태운 확신이고 희망이며 력사의 행운이였다. 천만군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력사의 온갖 광풍을 맞받아 헤쳐가시는 위대한 령장의 모습에서 군대와 인민은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우리 장군님을 우러러본것이다.

단편소설 《대하》(리명 작)에서 함흥수리동력대학의 교수, 박사 조상문이 터뜨리는 마음속 걱정이 많은 설명을 대신한다.

《장군님!... 전 다만 오늘 장군님의 덕망에서... 수령님을 다시 뵈옵고있습니다. ...》

그에게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아버지수령님의 평생의 념원과 뜻을 그대로 실은 것으로 하여 독자들의 심장을 파고든다.

《...우리는 언제나 수령님을 닮읍시다. 우리 수령님은 사랑의 화신이시고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수령님은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수령님을 닮는 길이 이 땅에 진실로 인민의 강국을 세우는 길이며 정의로운 새 세기를 건설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온넛을 깡그리 다 바치시고 군대와 인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한몸을 그대로 내대시는 열의인, 정치도 군사도 그 근처에 인간사랑이라는 숭고한 리념을 묻으신 인민의 총복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어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앞에서 룡해공군정에무력을 수해지역으로 출동시키는 위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백년래의 큰물속에서도 새 생명이 태어나는 위대한 전설 [단편소설 《고고성》(김성관 작)] 이 탄생하게 된것이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인간사랑의 새 력사를 아니, 위대한 시대를 온 세상에 노래한 장쾌한 고고성이였다.

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사나운 겨울의 눈보라 [단편소설 《눈보라》(김명익 작)] 에 대한 상징적의미로 풀어내는 과정에 더욱더 가슴뜨겁게 노래하고있다. 깊은 밤 눈내리는 당중앙위원회창가에서 어제날의 목수-박춘덕부부장의 지나온 인생사를 두고 아버지수령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이야기를 돌이켜보시는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천대와 멸시를 받던 박춘덕이 만들어올렸던 의자를 밀어놓으시고 평범한 인민들이 앉도록 하였던 아버지수령님. 그 의자를 친히 자신의 기념으로 박춘덕에게 주겠다고 하였던 그 의자야말로 위대한 평민형의 위인들께서 하늘같은 인민을 높이 떠받든 옥좌가 아니겠는가. 의자에 실린 두분의 위인상이 숭고한 인민관의 세계로 펼쳐져 한생 그렇게 맞으신 눈에 대한 형상으로 심화되며 그 눈이야말로 아버지수령님의 자욱이 깃든 눈이기도 하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으로 깊어진다. 이런 눈을 맞으며 혁명의 눈보라를 헤쳐 또다시 군대와 인민을 찾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은 아버지수령님과 함께 언제나 군대와 인민의 가까이에 계신것이다.

단편소설들인 《새벽노을》(리희남 작)과 《세기의 목소리》(최창학 작)는 영원한 태양의 모습을 그리는 해외동포들의 절절한 심정을 진실하게 펼쳐놓고있다.

단편소설 《새벽노을》의 의미심장한 기대는 일군이 가져온 보석화 《송학도》를 보시며 달보다는 벽차고 아름다운 새벽노을이 더 좋을것 같다는 의견을 주시는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력사앞에 지니신 무거운 사명감을 절감하시고 이를 밝고 장엄한 아침의 계승으로 새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과 의지를 목가적이고 처량한 풍경의 《송학도》가 생이 약동하는 희망찬 화폭의 《송학도》로 수정된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친히 구상하신 《송학도》를 리정주에게 안겨주시고 금릉2동굴과 청류다리 2단계건설을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내린 또 하나의 《송학도》를 인민들에게 안겨주시여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은 리정주의 진정의 토대로 구가된다.

《김정일령도자본은 오늘의 김일성주석님이십니다.》

단편소설 《세기의 목소리》의 문형석도 버림받은 존재로 생각했던 딸 문봉숙의 너무도 놀라운 운명발전과정속에서 자신의 운명만이 아닌 인류의 운명을 맡길 참다운 품은 바로 영생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품,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임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는것이다.

태양이 빛나는것은 그 열과 빛이 우리의 눈에 비끼고 온몸에 파스히 흘러들기때문이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인류의 심장속에 태양이 영원함은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21세기의 태양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때문이다. 수령의 사상이 흐르고 념원이 꽃피며 수령의 위업이 빛나는 이 땅, 이 하늘에 눈부신 태양이 빛난다.

## 믿음은 곧 사랑이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곧 사랑이라는 가르치심을 통해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헤아려본다.

믿음은 사람을 키운다. 한번 정을 준 사람은 끝까지 믿고 그의 운명과 미래는 물론 후대들의 먼 장래까지도 책임지시려는 철석의 의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믿음의 정치의 확고한 초석이다. 인류사의 갈피갈피에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는 많지만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처럼 사랑으로 뜨겁고 열렬하며 순결무구함으로 깨끗하고 그 폭과 깊이의 영원함으로 노래되는 그런 믿음은 찾아볼수 없다.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인민이 이 믿음을 지녀 영웅으로 자라고 놀라운 기적과 변혁이 례사롭게 창조되는 경이적인 현

실이 위대한 믿음, 위대한 사랑의 세계로 아름답게 펼쳐지고있다.

단편소설들인 《사랑의 끝은 어디》(정기종 작)와 《인간의 노래》(박윤 작)는 크나큰 믿음속에서 창조되는 그 어떤 기적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를 창조한 인간의 놀라운 성장의 세계를 그려내고있다.

단편소설 《사랑의 끝은 어디》에서 유능한 외과의사인 주영빈은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속에서 강철의 의지와 과단성을 굳히게 된 인간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의 배우자를 택함에 있어서 청년의 부모가 남긴 허물을 꺼리는 아버지이며 그 청년이 간직한 당에 대한 믿음을 가장 가까와야 할 한 인간에 대한 믿음으로 간직하지 못하는 용렬한 아버지인것이다. 이런 그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안겨졌던가. 일부 일군들이 동지들을 구원하고 사경에 처한 청년의 2차수술을 다른 유능한 의사에게 맡길것을 말쑤울릴 때에조차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것은 한 인간의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한 인간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에 관한 문제이라고 하시며 그를 끝까지 믿고 기다리도록 하신다. 변함없는 믿음, 언제나와 같이 크나큰 그 믿음은 인간을 새롭게 키웠다. 환자인 청년을 구원하고 그의 딸의 사랑을 꽃피우고 주영빈을 유능한 외과의사이기 전에 혁명가로 키운 그 믿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서 오는것이였다.

이러한 사랑으로 일관된 믿음은 단편소설 《인간의 노래》의 한 기술자에게도 아낌없이 돌려진다. 국장이며 선배인 리성광의 차원호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동정과 인정에 둘러싸인 믿음이였다. 그러나 초대형파쇄기를 제힘으로 만들려는 차원호의 구상을 들어주시고 당의 구상을 받드는 길에서 정과 뜻을 같이할 동지를 만났다고 기뻐하시며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은 차원호가 실패와 좌절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한 신념의 기둥이였다. 차원호라는 인간을 동지적으로 믿는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은 초대형파쇄기와 함께 보다 더 성장한 강철의 인간-혁명전사를 낳았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진리를 한명한명의 일군들과 전사들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혁명의 고귀한 진리로 확증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믿음의 세계는 은하기계공장 지배인 라영준 [단편소설 《정의 세계》(한성호 작)]이 로동계급의 심장에 불을 달아 수평팔십식기중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단편소설 《믿음의 세계》(김룡연 작)에서 혁명의 1세대에게 돌려지는 무한한 사랑은 또 얼마나 뜨거운 믿음의 노래를 낳았던가. 스스로가 고목이라고 일컫는 오진우에게 돌려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은 그의 육체적으로쇠와 더

불어 떨어진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어지고 뜨거워졌다.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무력부장인 오진우에게 인민군총정치국장의 직무를 겸직하도록 할것을 아버지수령님께 제의하시고 자기의 나이와 능력때문에 고민하는 그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 그 힘과 용기를 말로써가 아니라 아버지수령님과 자신께서 몸소 나서신 승마경기의 활력으로 심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의 세계는 혁명의 1세대 로투사에게 로당익장의 젊음뿐아니라 수령을 받들어 삶을 빛내는 혁명원로의 값높은 삶을 안겨주었다.

믿음은 곧 사랑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믿음은 믿음을 받기 전에 먼저 믿음을 주시는 크나큰 믿음이며 믿음을 그저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동지를 자신처럼 믿고 마음전부를 통채로 맡기시는 위대한 믿음이다.

위대한 그 믿음을 지녀 인민은 강하고 조국은 부강하며 앞길은 영원히 찬연하다.

## 위대한 정도는 위인의 천품이다

위인이 지녀야 할 기질은 비범한 예지와 지략, 강의한 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열화와 같은 열정과 인덕이다. 사상으로 이기고 신념과 의지로 이기고 담력과 배짱으로 이기고 열정과 인덕으로 이기는 장군이 진짜 장군이며 위인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특출한 정도실력은 정치와 경제, 군사와 문화는 물론 혁명과 건설의 방대한 영역에서 눈부시게 빛나고있다.

《조국을 안고사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심장이 든든한 법입니다. ... 난 그런 사람과 배짱이 맞습니다.》

단편소설 《실력과 담력》(현승남 작)에서 한 신진과학자의 배짱을 지지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하신 말씀이다. 진짜 과학자의 실력은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는 세계수학계를 깜짝 놀래울 발견을 한 송계룡의 뛰어난 수학적재능보다도 가슴속 깊은 곳에 굳게 자리잡은 조국애의 뜨거운 마음을 더 크게 찾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작품의 철학적종자를 힘있게 확증하는데로 모아지고있다. 조국애가 안받침된 실력은 곧 무비의 담력이다. 아니, 우리 청년과학자들의 실력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정도실력이며 그들의 가슴을 꿰이는 담력 또한 세상을 대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이다.

창조의 능수이고 거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립의견 [단편소설 《품에 대한 이야기》(한웅빈 작)] 이 받아안은 감동은 세기를 두고 퍼내야 할 격정의 소용돌이이다. 학생소년궁전을 광복거리에 어울리게 할 생각만 하

지 말고 학생소년궁전이 광복거리를 더 웅장하고 화려한 거리로 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아이들의 궁전을 설계하였던 립의견에게 왕들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의무로 굳어진다. 모대김의 하루하루를 괴롭게 지나보낼 때 몸소 아버지수령님을 모신 설맞이공연을 보도록 하시여 립의견으로 하여금 아이들과 학교들 그리고 유치원들을 품어안은 수령님의 넓은 품을 형상한 새로운 형성안 《품》의 실체를 그려보게 해준다. 그 품에서 아이들에 앞서 립의견자신이 먼저 자란것이다.

단편소설 《조선의 높이》(리명균 작)에서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의지가 구현된 《우리 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 당의 결심이고 권위이며 우리 인민의 힘이라고 정식화하시고 주체조선이 도달할 높이에 인간자체를 먼저 세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 그리고 단편소설 《30분간》(백남룡 작)에서 현지도의 그 바쁘신 길에서조차 교통보안원에게 진정한 후대판을 심어주시여 그 30분에서 나라의 머나먼 장래와 미래의 휘황한 3천분, 3만분이 아름답게 열려지도록 깨우쳐주시는 감동깊은 형상도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열정과 인덕의 화신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힘있게 부각시키고있다.

위인의 빛나는 예지는 결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어느 한 군부대종합훈련방안을 놓고서 가르치심을 받은 혁명의 1세대인 최현과 최진석이 군사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순결무구한 마음을 진실하게 보여준 단편소설 《봄의 우뢰》(조상호 작)의 여운은 퍼그나 깊다. 인민군대부터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나가는것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석의 의지는 혁명발전의 역사적전환기마다에 인민군대를 굳건히 세워오시는 전과정에 마련된 것이었다.

천재적위인의 비범한 정도를 어찌 한두마디 말로 대신할수 있겠는가. 이 땅에 피어나는 들꽃 한송이로부터 거창하게 일떠서는 대규모의 기념비적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또 이 하늘우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노을로부터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굳건히 담보하는 강철포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은 위대한 정도의 손길아래 태어나고 그 손길에 떠받들려 빛난다.

## 형상의 립체성과 소설의 견인력

수령형상작품일수록 형상수단과 수법을 여러모로 탐구리용하여 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심오한 철학적형상으로 작품의 견인력을 높여야 한다.

단편소설집 《눈보라》에 실린 많은 단편소설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의 중심에 확고히 모시고 장군님에 의하여 설계되고 조직명도되는 혁명실천과정을 깊이있게 립체적으로 그려낸 것이 이채롭다.

우선 각이한 인물형상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색과 활동의 기본선수에 태워놓고 군대와 인민과 고락을 같이 나누는 모습이 다각적으로 투영되도록 한 것이다. 단편소설 《은인》(황청일 작)은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붕괴와 아버지수령님의 서거라는 력사의 폭풍우속에서 인민의 운명, 진보적인류와 사회주의의 운명을 책임지고 구원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무게있게, 진실하게 창조하고있다. 오직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농사를 잘 지으려고 애쓰는 오보배어머니며 인민들이 잃은 소를 찾아주고 용서를 빈 려단정치위원과 병사들이며 로씨야시인 위로노브 등 위대한 장군님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련결되는 인물들이 장군님의 위인적형상을 돋구는데 다면적으로, 다각적으로 얹혀져 립체감을 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장군님의 시야에 비끼고 심장에 깃드는 평범한 군상들을 뚜렷하게 매개 절에서 교차시키며 인민의 운명이요 인류의 희망인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정당성을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굳센 신념속에서 긍지높이 천명하고있다.

또한 생활의 본질이 깃들어있는 생동한 세부와 일화를 종자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탐구리용하여 구성의 간결성과 깊이를 보장하고있다. 단편소설 《냉이》(김영희 작)에서 냉이세부는 작품전반에서 여러번 반복형상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역시 잊혀지지 않는 어느 한 부대지휘관인 백승제에 대한 회억을 불러일으킨다. 냉이세부가 터쳐놓은 감정의 물길은 드디어 할매령이라는 외진 산속에서 마음의 군복을 벗지 않고 병사들을 위해 사는 백승제의 인간됨을 눈물겹게 안아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격정의 세계로 흘러들었다. 비록 말은 하지 못해도 성실한 땀과 량심으로 전군에 웨치는 그의 우렁찬 구령소리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는 주신다. 하나의 세부가 퍼내는 이야기섬, 세부에 비껴오는 참된 인간의 자취가 평롱한것으로 해서 소설은 웅당한 감화력을 낳았다. 단편소설 《자남산은 노래한다》(박일명 작)에서 지배인 리석준에게 물어다니는 《계사니지배인》, 《허수아버지배인》이라는 호칭속에는 공장과 로동자들에 대한 사랑의 열도가 식었다는 직관적인 설명이 있고 생산을 못하는 숨죽은 공장에 대한 명백한 표상이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로 이런 지배인 리석준에게 아니, 자동차수입설을 외우던 일꾼들에게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 로동계급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부어주신다. 전 지배인의 《알뜰살뜰아바이》

라는 이야기속에도 리석준에 대한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가 있는것이다.

세부와 일화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형상의 진실성과 구성의 깊이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생활과 형상에 대한 묘사를 집약화, 집중화하여 말뒤에 말이 있는 뜻깊은 묘사를 실현함으로써 형상의 립체감을 더해주었다. 단편소설 《초침소리》(문상봉 작)에서 시간이라는 개념과 분과 초의 련속적인 제시과정을 분석적으로 묘사해주어 아버지수령님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의 날과 달을 바쳐오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한 생이 초침소리에 비껴오고 우리 장군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갈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박동소리가 초침소리로 울려가도록 형상된것이 인상깊다. 또한 밤에 대한 상징적묘사로 시작되어 평양의 고요한 밤속에서 인민에게 안겨질 사랑의 서사시가 탄생되는 과정을 통하여 작가-박일천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인민에게 돌려지는 사랑의 밤, 그런 밤이 있어 반드시 오게 되는 행복의 하루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단편소설 《평양의 밤》(정창운 작)도 있다. 단편소설 《새벽》(최성진 작)은 준전시상태가 선포된 긴박한 극적정황을 제시해놓고 적들의 무엄한 최후통첩날자인 3월 25일을 긴장하게 주시하고 맞이하는 한성민의 시점을 굽직하게 주고있다. 그 3월 25일이 눈앞에 다가올수록 각일각 조여드는 팽팽한 긴장의 련속과정을 주다가 갑자기 3월 25일의 의미를 다르게 급전시켜 극적전인력을 낳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탁상일력장에 써놓으셨던 3월 25일은 적들이 정한 시간부가 아니라 어느 한 탄광의 고문지배인의 생일날이었던것이다. 끝없는 사색의 바다를 헤가르시며 인민의 운명,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맞으신 그 새벽이 평화로운 새날의 아침으로 이어졌고 영원한 인민의 앞날로 펼쳐졌음을 감동깊게 그려보이고있다.

립체적묘사와 립체적구성은 이처럼 형상의 진실성과 철학적심오성을 낳고 소설의 견인력을 담보한다.

×

우리는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자랑과 긍지안고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실로 아버지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에 이끌리고 그 품에 안겨 인민도 나라도 아름답게 가꾸지고 더더욱 자랑차게 변모되는 오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3) 《눈보라》는 태양칭송의 영원한 메아리로 끝없이 울려갈것이다.





# 북반은 대지

엄 성 영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달리고있었다. 맑고 선명한 대기를 가르며 달리는 승용차의 차창으로 북방의 들쭉날쭉한 산봉우리들이며 새벽이슬에 젖은 우중충한 수림들이 소리없이 흘러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 대흥단군으로 가시는 길이었다.

전연초소의 병사들은 더위를 가시느라 오이팽국을 찾고있는데 여기 백두대지에는 벌써 선기가 나고 단풍이 붉다. 길 좌우쪽으로 정갈하게 다듬어 세운 혁명전적지, 사적지 표식비들이 언뜻언뜻 스쳐지나고 혁명전적지답사대렬이 노래를 부르며 씩씩하게 행군해간다. 저 멀리 구름우로 백두산이 웅엄하게 솟아있다.

《량강도 감자농사형편이 어떻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옆자리에 앉은 량강도 최영민 책임일군에게 물으시었다.

《예, 팬찮은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흥단군의 감자농사가 잘되었습니다.》

《그것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활기편 어조로 말씀을 이으시었다.

《감자농사혁명을 일으키는데서는 량강도가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여기에서도 대흥단군이 전국의 앞장에 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그이께서 대흥단군을 감자농사의 본보기단위로 정하신데는 깊은 뜻이 담겨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승리한 래일을 내다보시고 백두고원의 넓은 대지를 개간하여 대규모의 국영농장을 창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백두고원에 전선지역의 주민들을 소개시켜 농장건설에 필요한 로력을 보장해주시고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트랙토르를 비롯한 수많은 농기계들을 보내주시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라일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몸소 여러차례나 찾으시여 대흥단군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지난날 버림받던 불모의 땅이 풍요한 대지로, 대규모의 감

자생산기지로 전변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대흥단군에 깃들어있는 수령님의 로고와 심혈을 잊지 말아야 하며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더욱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참, 김원석동무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문득 화제를 바꾸시었다.

《읍주변인 홍암농장에 내려가 감자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민은 대답을 드리면서도 그이께서 왜 김원석에 대해 물으시는지 영문을 알수 없었다. 김원석은 대흥단군경영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일하다가 해임된 사람이다. 비록 본의는 아니였다 해도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에서 엄중한 과오를 범했기때문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더 말씀이 없으시었다. 승용차가 삼지연읍을 지나고있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백두밀영고향집으로 가는 갈림길이 나진다.

최영민이 조용히 말씀드렸다.

《장군님, 고향집이 지척입니다.》

그이께서 고향집에 들리시여 잠시라도 휴식하시면서 전선길에 쌓인 피로를 조금이라도 풀어주시었으면 해서 드리는 청이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없이 고향집쪽을 이윽히 바라보시었다. 추억깊은 고향집이었다. 달밝은 밀영의 밤이면 어머님께서 조용히 불러주시던 자장가소리, 진달래꽃 핀 소백수가에서 어머님께서 다듬으시던 싱싱한 산나물향기...

문득 해방된 어느해인가 어머님께서 손수 지피시던 화토불이 눈앞에 삼삼 떠오르시었다. 삼지연, 대흥단지구로 내보냈던 파견원이 그곳 인민들로부터 어머님께 문안올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감자배낭을 갖고 저택으로 찾아왔다. 해방전 어머님으로부터 밀종자를 받아안았던 너인들의 성의라고 하였다. 어머님께서서는 저택의 터밭에서 눈을 쳐내고 빨찌산식으로 화토불에 감자를 구우시었다. 이따금 세찬 불기운에 주먹만 한 감자알들이 치익거리며 썩김을 내뿜곤 했다. 어머님께서서는 나무꼬챙이로 잉겔불을 헤집으시며 잘 구워진것부터 골려내어 파견원들쪽으로 밀어놓으시다가 그중 하나를 집어 껌질을 벗기시었다. 노랑게 구워진 감자

에서 풍기는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단김에 실려 주위로 퍼져갔다.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구운 감자는 소금을 찍어먹어야 제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산에서 싸우시던 지난날을 회고하시었다. 그날 화토불주위에 빙 둘러앉아 구운 감자를 맛있게 들고있는 파견원들을 둘러보시던 어머님의 얼굴에는 얼마나 밝은 미소가 피어있었던가!

**김정일**동지께서는 잊을수 없는 추억을 더듬으시며 백두산갈림길을 그냥 지나시었다.

《오늘 홍암농장에서도 감자수확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천천히 달리던 승용차가 다시 속도를 높였다. 성냥개비처럼 뻥뻥하게 들어선 이깔나무며 그 사이로 흰옷을 펼쳐입은 봇나무들이 시야밖으로 어둑어둑 밀려난다.

《김원석동무가 홍암농장에서 일한다고 했지. 그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다시 물으시었다.

《마음이 동해서 하는 일이니 그런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러 만나봤습니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최영민이 송구스럽게 대답드렸다. 김원석이 해임된 후 최영민이 그의 전직도 고려하고 년로보장나이가 지난것도 참작하여 도소재지에 올라와 자그마한 농업기업소를 책임지고 일할것을 권고했으나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 내려진 책벌에 무슨 의견을 가지고있는것도 아니었다. 말년에 사람들 말밖에 모르느니 차라리 년로보장을 받고 편히 쉬실산이 아닌가싶었다. 그런데 뜻밖의 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에 앉아 전혀 문밖출입을 알던 김원석이 해질무렵이면 밖으로 나와 읍주변농장의 감자포전들을 돌아보곤 한다는것이다. 처음에는 혼자서 문밖출입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해까지 데리고 나와서 감자밭이랑을 타고앉아 김도 매주고 장마철에는 습해를 받지 않도록 물도랑을 깊숙이 짜놓기도 했다. 그렇게 밭걸음이 잦던 그가 종당에는 가장집물을 건어시고 아예 홍암농장으로 집을 옮겨앉고는 스스로 감자포전을 가꾸는 농장원이 되었다. 남들이 쉬는 날에도 감자포전에서 해구멍을 막곤 한다고 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이 없으시었다. 차안에는 침묵이 드리웠다.

《장군님, 저희들이 김원석동무에게 너무 파한 책벌을 내린것 같습니다.》

최영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원석이 홍암농장에서 수고하고 일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도 좋지 않았다. 한번 찾아가 만나볼 생각이었지만 분망하게 겹쳐드는 일에 다물리우다보니 시간을 내지 못했다.

《아닙니다. 최영민동무가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러 만나볼걸 그랬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동안 김원석이 겪었을 마음속 고충이 얼마나 컸으랴싶으시었다. 읍거리래

야 움푹하게 패인데다 협소한 곳에 자리잡은 까닭에 문밖을 나서기만 하면 낮익은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니 오죽 점직하고 송구스러웠으랴. 웬간한 사람같으면 도소재지로 자리를 옮겨졌지만 군이 홍암농장에다 이사집을 풀었다지 않는가. 잡도리부터가 범상치 않다.

승용차는 언덕길에 올라섰다. 해발고가 2 400메터 이상인 증산과 까치봉,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의 총대탑신이 이깔나무림의 고틀머리우로 보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김원석동무가 그런 진통기를 겪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장차 그 동무를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최영민이 인차 대답을 못 올렸다. 파오는 비록 엄중하지만 책벌을 받은 후 자신을 성근하게 반성하고 잘못을 씻기 위해 애쓰는 김원석의 행동을 놓고보면 당분간은 지금상태로 그냥 두는것이 좋을상싶었다. 년로한 몸이니 건강을 잘 돌봐주도록 군당에 의견줄 생각이였다.

《장군님, 김원석동무가 마음이 동하여 하는 일인것만큼 당분간은 농장에 그냥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허허, 그렇습니까? 그 동무가 최영민동무의 노역을 사도 단단히 산것 같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영민의 마음이 이해되시었다. 그이의 눈앞에는 홍암농장에서 있었던 그날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오르시었다.

그날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흥단군의 한해 농사형편을 알아보시기 위하여 홍암농장에 들리시었다. 줄기가 누렇게 말라버린 감자밭머리로 걸음을 옮기시는데 김원석이 어느새 알아보고 한달음에 달려와 인사를 올렸다. 언제 봐야 푸순하고 성근한 농민차림새다. 겹어올렸던 바지가랭이와 소매자락이 내리워지긴 했어도 주름이 조글조글한걸 보니 노상 벌에서 지낸듯싶다.

《뭘 하고있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었다.

《감자를 캐고있습니다.》

김원석이 같은 토양조건에서 감자눈을 펴서 심은 포전과 통알감자를 심은 포전의 수확고를 대비해보는중이라고 말씀드렸다.

《그래 어떻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손저울을 쥐고 서있는 관리위원장에게 물으시었다.

《차이가 심합니다. 우리가 진작 통알감자를 심는 방법을 받아들었더라면 대흥단사람들의 팔이 서로 같지 않다는 말을 면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김정일**동지께서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자 김원석이 얼굴을 붉히며 지난날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해드렸다. 홍암농장에서는 지금껏 감자눈을 펴서 심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어왔다. 손포가 팔려 김을 제대로 매주지 못하다나니 가을이 되어 수확해보면 새알같은 감자알이 태반이였다. 그

러니 국가에 수매할 감자는커녕 제 먹을것도 되나 마나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봄내 여름내 비료를 달라, 농약을 달라면서 우에다 손을 내밀었다. 한해 감자농사를 총화하던 날 성에서 내려온 한 일군이 이곳 관리위원장을 보고 여기 사람들은 두 팔중에서 뭘 달라고 내미는 팔은 길고 바치겠다고 내미는 팔은 짧은 모양이라고 웃으며 말했었다. 농장관리위원장이 어려움도 잊고 다음말을 이었다.

《물론 통으로 하는 소리였지만 저는 불화로라도 뒤집어쓴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군님말씀대로 감자를 통알채로 심고 거름도 듬뿍 주었더니 빈포기가 없고 정보당수확고도 30프로나 쑥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감자농사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린셈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농사작황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관리위원장이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일부 감자포전에서는 옹근수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포전입니까?》

《붉은감자종자를 심은 포전들입니다.》

《붉은감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뜻밖의 대답에 의혹을 금치 못하시었다. 붉은감자라면 다른 나라에서 품들여 가져온 감자품종의 하나였다. 해당 일군의 보고에 의하면 그 품종은 특별히 수확고가 높은것으로 하여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 많이 재배하고있다고 하였다.

《싱싱하게 자라오르던 감자숲이 장마철에 잡히면서부터 잎과 줄기가 썩으면서 맥을 주지 못하는 바람에 품값도 제대로 건지지 못했습니다.》

《농약은 제대로 뿌렸습니까?》

《예, 약물도 뿌리고 거름도 많이 주었습니다.》

《장군님, 창평과 서두, 백산농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원석이 군안의 실태를 종합하여 말씀드렸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감자연구소에서 누가 오지 않았는가고 물으시었다. 반백의 조병삼소장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동무네 생각에는 무슨 원인인것 같습니다?》

《붉은감자가 역병에 걸리는 힘이 매우 약합니다.》

《연구소의 재배시험포전도 같은 형편입니까?》

《예.》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원석이쪽으로 몸을 돌리시었다.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미처 손쓸새가 없었습니다. 이 고장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역병이란 사람의 전염병과 같은것이여서 인차 주변 감자포전으로 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병이 생기자 인차 모조리 캐여 감자가공공장으로 실어보냈습니다.》

《가공공장에 보냈단 말입니까?》

《예, 붉은감자종자는 우리 고장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렇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 멀리 이빨나무들이 무성한 수림우로 천천히 시선을 옮기시었다. 노을이 불타는 수림우에서는 산새 한마리가 유유히 날고있었다.

그이께서는 토배기농사군의 말만 듣고 품들여 구해온 감자종자를 겨우 한해동안 시험해보고 켜버렸다는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었다. 아무리 역병이 치명적인것이라 해도 그렇게도 대책이 없었겠는가. 그 아까운 종자들을 그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해버리다니...

기성관념과 고루한 재배방법만 가지고야 감자농사에서 어떻게 새로운 변혁을 가져올수 있겠는가. 세계를 굽어보는 혁신적안목, 최첨단의 과학기술로 뚫아오르려는 피타는 탐구와 노력, 헌신이 없이는 그 무엇도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우리가 감자농사에 왜 혁명이란 말을 붙였습니까? 동무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마음이 괴로우시었다. 이 가까운 몇해사이에 긴장한 식량문제와 고기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실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피신 그이이시었다.

그날 **김정일** 동지께서는 대홍단의 기후와 토양조건에 맞는 새로운 감자재배방법을 완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었다.

승용차는 어느덧 신사동혁명전적지를 지나가고있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흘러가는 차창밖으로 그날 시선을 보내고계시었다. 울울창창한 밀립과 밀립, 이끼덮인 바위 하나도 무심히 바라볼수 없으시었다.

항일전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의 지휘밑에 무산지구전투가 승리로 끝난 후 김정숙어머님께서 일제의 착취와 억압밑에 신음하는 목재소마을 인민들에게 밀종자를 나누어주시면서 정치사업을 벌리신 잊을수 없는 사적이 깃든 곳이다. 왜놈들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고 우리 인민들에게 잘살 날이 꼭 온다고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시던 그날의 어머님목소리가 들려올듯싶다. 빨찌산군복을 입으신 김정숙어머님께서 그날의 념원을 꽃피우려 백두산의 아들이 찾아왔다고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시여 반겨맞아주실것만 같다.

《장군님, 저 집들이 제대군인들의 살림집입니다.》

최영민이 가벼운 침묵을 깨뜨리며 산기슭을 따라 아담하게 늘어선 살림집들을 가리켰다.

《모두 입사를 했습니까?》

《예.》

《혹시 불편해하는 점이 없습니까?》

《방이랑 큼직큼직해서 모두 좋다고 합니다.》 곧추 달리던 승용차가 왼쪽으로 꺾어들었다. 홍

암농장으로 가는 갈림길에 들어선것이다. 저 멀리 감자포전에서 일손을 놀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제 장군님께 풍년든 감자작황을 보여드리게 됐다는 생각으로 최영민의 마음은 저으기 흥분되었다.

《가만, 차를 세우시오.》

장군님께서 이르시었다.

《방금 지나친것이 홍암농장 관리위원장동무가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었다. 홍암농장 관리위원장이 달려와 인사를 드렸다.

《어디에 갔다오는 길입니까?》

《감자연구소에 갔다옵니다.》

《홍암농장에서 오늘 감자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김원석동무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는 오늘 수확하는 감자포전이 홍암농장에 와서 일하는 김원석의 각별한 노력과 땀이 스민 포전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혼자서 옵니까?》

《원석동무가 지금 당장은 자리뜰 형편이 못된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원석이 감자연구소로 출입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이미전에 그에게 참고도서랑 보내주긴 했지만 오늘같은 날에도 시간을 낼수 없다는것이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으시었다.

《그 동무가 연구소에 자주 갑니까?》

《한달잡고 스무날은 연구소에 가서 삽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잠시 생각을 더듬으시다가 굳어진 최영민이쪽에 몸을 돌리시었다.

《김원석동무부터 만나보고 갑시다. 차를 돌리시오.》

승용차는 오던 길을 되돌아 감자연구소로 미끄러지듯 달렸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이 없으시었다. 최영민은 머리를 들지 못했다. 김원석이 감자연구소를 찾아다닌다는 말을 전해듣고도 그냥 방심하다나니 그가 언제부터 연구소출입을 하는지, 연구소에 가서 무엇을 하는지 감감 모르고있었다. 그를 더러 만나볼걸 그랬다고 하시던 장군님말씀이 새삼스럽게 가슴을 친다. 장군님께서 김원석을 찾으실줄 알았더라면 미리 전화편락을 해서라도 대기시켜놓았을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더라면 장군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렇게 되돌려세우지 않았을것이였다.

감자연구소는 대흥단군 읍가까이에 위치하고있었다. 북방의 사나운 겨울에도 감자재배시험을 할수 있도록 반원형의 유리지붕을 해썬 실내포전만 해도 여러개씩 되고 현대적인 최신실험설비들이 그뿐하게 갖추어져있다.

조병삼소장이 장군님을 사무실로 안내해드렸다. 최영민이 장군님께서 지금 김원석을 찾으신다고 그에게 귀띔했다.

《원석동무는 지금 실험중에 있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가볍게 놀라시었다. 조병삼이 그이께 김원석이 연구사와 함께 중요한 실험결과

를 기록하며 관찰하는중이라고 말씀올렸다.

《어떤 연구과제인데?》

《무비루스감자조직배양실험입니다.》

조병삼이 곧 자리를 뜨려고 하자 그이께서는 우리가 좀 기다리자고 하시며 김원석이 언제부터 연구소출입을 했는가고 물으시었다. 조병삼이 장군님께 차초지종을 말씀드렸다. 김원석이 홍암농장에 자진하여 내려왔다는 소문을 들은지 한달도 채 못되어 그가 연구소로 찾아왔다. 처음에는 대흥단군의 보다 구체적인 토양조건과 미기후도를 까근까근 캐묻더니 나중에는 시험중에 있는 감자품종들의 생물학적특성과 재배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조병삼이 한마디로 안된다고 하니 사람이 그렇게 매정해서야 어디에 쓰겠느냐며 오히려 제편에서 섭섭한 소리를 했다. 재배시험중 자료를 함부로 발설하지 않게 된것이 연구소의 규율이라고 하니 이번에는 연구소의 재능있는 연구사에게 자기를 조수로 붙여달라고 간청했다. 조병삼이 까박을 붙였다. 연구사업이란 때와 시기를 요구하는 일이고 연구소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도리를 짓자 소장동무는 내가 왜 연구사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지 잘 알면서도 그런다고 벌컥 성을 내기까지 했다.

《허허, 원석동문 내가 보내준 책들을 보고있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조병삼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벼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예, 모두 감자재배와 관련한 책들이어서 연구사들과 함께 밤을 밝히며 읽습니다.》

《원석동무와 함께 일하는 연구사가 누구입니까?》

《붉은감자재배와 관련한 몇가지 의견을 내놓았다가 원석동무한테서 된서리를 맞았던 바로 그 연구삽니다. 원석동무자신이 선택한 연구사동무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창밖에 시선을 주신채 더욱더 말씀이 없으시었다. 최영민의 얼굴이 불길하게 달아올랐다. 차를 함께 타고오면서도 김원석을 두고 생각하시는 그이의 웅심깊은 마음을 미처 가려보지 못한 자신이 가책되었다. 감자농사혁명도 구경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을 키우는 과정이 아닌가. 무슨 일이는 사람을 먼저 봐야 한다고 말로는 외우면서도 실천을 따라세우지 못한 자신이 돌이켜졌다. 그와 함께 한번 믿음을 주었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믿어주시는 장군님의 그 인품에 가슴이 후덥게 달아오르며 머리가 숙여졌다.

갑자기 방문이 열렸다. 김원석이 어푸러질듯 장군님앞으로 달려왔다.

《장군님!》

그는 목이 메어 다음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장군님께서 저같은것까지 잊지 않고 찾아주시니...》

《이러지 마시오. 나는 김원석동무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도 음성이 갈리시었다. 김원석의 건강을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어떻게 되어 홍암농

장에 옮겨앉을 결심을 했는가고 물으시였다.  
김원석이 동안이 지나서야 천천히 말쑥올랐다.

그날 대흥단군에는 경사가 났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제대군인들이 도착한것이다. 원석이네 집도 사람들로 북볏다. 아들이 제대되어 돌아왔던것이다. 인심후한 마을녀인들이 농마소랭이며 당콩바가지, 닭알꾸레미를 들고 저저마다 찾아와 축하해주었다. 그날 밤 원석은 잠들지 못했다. 흥성 흥성하던 집안이 썰렁해졌다. 아들의 얼굴을 마주할 면목이 없었다. 옷방에서도 이리뒤척 저리뒤척하는걸 보니 아들이 잠들지 못하는 모양이다.

원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담배 한대를 다 태우고야 옷방문을 열었다.

《왜 잠들지 못하느냐? 너도 무척 마음이 괴로운 모양이구나.》

《예, 괴롭습니다.》

아들은 에둘러 말하지 않았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높은 뜻을 아버지가 어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원석은 할말이 없었다. 서글서글하고 씨원씨 원하던 녀석이 저렇게 축잡힌걸 보니 자신의 파오가 되살아나며 새삼스럽게 가슴을 찔다. 망녕이 들어도 분수가 있지 그때 내가 왜 일부 농사군들의 말에만 귀가 솔깃했던가. 품종별에 따라 새로운 감자재배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연구사의 의견을 잡소리친다고 밀막지 않았더라면 붉은감자를 서둘러 가공공장에 실어보내지 않았을것이다. 홍암농장에 오신 장군님께서 감자농사에 왜 혁명이란 말을 붙였는가고 준절히 말씀하실 때에야 번쩍 정신이 들었다. 당의 뜻을 받든다고 말은 하면서도 5분열도식일본새에 포로되어 실천을 따라세우지 못하는 일군, 이런 일군이 백이면 뭇하고 천이면 뭇하겠는가. 그 때문에 장군님께서 아직도 험한 포전길을 걷고계시는것이다.

《내가 장군님앞에 큰 죄를 졌다. 죄를 짓고보니 밥술을 떠도 목구멍에 넘길수가 없구나.》

《그렇다고 이렇게 손땀을 놓고있으면 어떡합니까. 일어설 생각을 해야지요.》

《네 말이 옳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씻어야 한다.》

김원석은 홍암농장으로 아예 자리를 옮겨앉을 결심을 내렸다. 그러나 홍암농장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여 대흥단군의 기후와 토양조건에 맞는 새로운 감자재배방법이 절로 완성되는것이 아니었다.

얼마후 원석은 감자연구소의 조병삼소장을 찾아갔다. 소장이 소개해준 연구사는 자기가 된서리를 안긴 그 연구사가 아니었다. 원석이 그 연구사를 찾아낸것은 연구소의 실내시험포전에서였다. 원석이 먼저 인사를 건네었다. 연구사는 원석을 보고 무척 놀라는 기색이였다.

《아바이가 어떻게?》

(아바이?...)

원석은 지금껏 듣지 못하던 소리에 얼굴이 화끈했다. 찾아온 용건을 말하려는데 《난 아바이하고 할말이 없습니다.》 하고 통명스럽게 한마디 내뱉고는 몸을 돌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 대접을

받는것이 응당하다고 생각되였다.

그날 저녁 아버지의 심란한 표정을 보고 아들이 물었다. 원석은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했다.

《아버진 연구사동무를 또 찾는게 아닙니까?》

《제가 쏜 죽인데 뭇할거야 있느냐.》

《연구사동무도 언젠가는 아버지의 진심을 받아들일 때가 있을겁니다.》

(막대기같이 고약한 내 성미가 아직도 일을 그르치고있어.)

다음날 원석은 군감자가 든 망태기를 걸치고 다시 연구소를 찾았다. 마침 중년의 그 연구사가 감자포전에서 접이자로 뭇가 재여보고있었다. 인기척에 한번 이쪽을 띠여봤을뿐 하던 일을 계속했다. 원석이 발머리에 망태기를 내려놓고 무작정 손에 호미를 찾아쥐었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감자이랑에 복을 주기 시작했다. 중년의 연구사가 원석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인젠 그만하십시오.》

《연구사동무 내가 해임됐다는걸 모르지 않겠지?》

《알고있습니다.》

《나도 알고있네. 연구사가 나와 상종하지 않으려 한다는것을...》

원석이 인차 말꼬리를 이었다.

《허허, 노염을 풀라구. 그땐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니까.》

《아닙니다. 제 잘못이 더 큼니다. 끝까지 납득시키지 못했으니깐요.》

원석이 망태기가 놓인 발머리로 연구사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건 뭇니까?》

《화토불에 구운 감자야. 연구사동무한테 뭇 좀 보일러구.》

《결국 우회로를 택했구만요.》

《허허, 우회로든 뭇든 난 연구사의 방조가 꼭 필요하네.》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장군님의 뜻을 받들려고 찾아온 아바이의 그 마음을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원석은 그날부터 그 연구사의 조수가 되였다. ...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원석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나서 그를 미덥게 여겨보시였다. 늘 감자포전에서 살아온듯 주름살이 퍼이지 못하는 바지가랭이와 소매자락, 별에 타고 바람에 튼 구리빛얼굴, 땅처럼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였다.

장군님께서 원석을 통하여 자신께서 바라시는 일군의 모습을 보는것 같으시였다. 당이 풀려고 하는 일에 한몫을 내대는 일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대답할줄 아는 땅냄새가 나는 일군들과 함께라면 감자농사혁명뿐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도 못해낼 일이 없다고 생각되시였다. 김원석이 대견하시였다.

《장군님, 홍암농장에서 오늘 감자수확을 합니다.》

김원석이 말쑥드렸다.

《알고있습니다. 김원석동무랑 함께 감자수확하는 포전을 돌아보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홍암농장 감자포전에서는 수확이 한창이다. 크기가 집채같은 감자수확기가 한번에 여러개의 이랑을 타고나가면서 땅속의 감자알들을 모조리 캐여낸다. 칼날모양의 보습이 앞서나가면서 이랑에 깊숙이 박혀 흙과 감자알들을 취올리면 구멍이 숭숭 뚫린 채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흙을 아래로 떨어버린다. 정선된 감자알들은 사슬콘베아를 타고 운반되어 감자저장고에 무둑무둑 쌓인다. 모든 공정들이 흐름식으로 자동화되었다.

《멋있습니다. 기계가 사람들의 힘든 일을 대신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감자수확기의 작업모습을 지켜보며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모두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김원석이 말씀드렸다. 감자포전에는 사람들이 한렬 났었다. 오가던 길손들도 걸음을 멈추고 넋없이 바라본다.

《감자알들이 하나같습니다. 저것들은 붉은감자가 아닙니까?》

김정일동지께서는 감자저장고에 무둑히 솟아오르는 감자를 보시다가 김원석에게 물으시었다.

《예, 이 포전은 붉은감자종자를 심은 포전입니다.》

《종자가 어디서 났습니까?》

《감자연구소에서 가져다 심었습니다.》

김원석이 감자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건사했던 붉은감자가 별로 피해를 보지 않은 덕분에 종자량만큼은 넉넉히 확보될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올해는 역병피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느해보다 비가 많이 내렸지만 아무 피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붉은감자의 생육조건에 맞게 이랑짓기를 새롭게 하고 물끓도 깊숙이 쪼주었습니다.》

김원석이 대홍단군의 자연지리적조건부터 설명해드렸다. 두만강상류와 소흥단수사이에 펼쳐진 대홍단벌은 백두용암대지의 현무암덕으로 되어 있다. 제3기말~제4기초 백두화산활동시기 내뿜은 현무암우에 물이 잘 스며들지 못하는 현무암 풍화토가 깔려있고 그우에 부석이 두텁게 덮여있다. 산악기후의 특성을 띠는 대홍단군의 년평균기온에 따라 수분증발량이 적고 물이 고여 진펄이 많은 벌의 구체적특성에 맞게 감자재배방법을 새롭게 착상하였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동무들이 이곳의 자연기후조건에 맞는 감자재배방법을 창조하셨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의 막힘없는 설명을 주의깊게 들으시고나서 김원석을 미덥게 바라보시었다. 전보다 얼굴이 좀 축났으나 한해사이에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정보당 감자에상수확고가 얼마요?》

김정일동지께서 물으시었다.

홍암농장 관리위원장이 농장의 정당 예상수확고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뒤를 달았다.

《지난해보다 정당 30톤이 더 나갑니다.》

《대단하구만.》

김정일동지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감자밭을 둘러보시다가 가까운 밭의 한 감자포기에 시선을 멈추시었다.

《저 감자포기를 좀 파봅시다.》

《알았습니다.》

홍암농장 관리위원장이 어느새 호미로 그 밭 감자포기의 흙을 조심조심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가 일손을 멈추자 김원석이 감자포기를 가슴높이로 쳐들었다.

《굉장하오.》

김정일동지께서는 뿌리를 따라 층을 이루며 데롱데롱 매달린 붉은감자를 바라보시며 감탄을 금치 못하시었다. 어떤 감자알들은 어른주먹 두개를 합친것만 하다.

《정말 대단해.》

김정일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다시 물으시었다.

《관리위원장동무, 어떻습니까? 이제는 두팔이 갈아지지 않았소?》

《예, 이쯤하면 바치는 손이나 받는 손이 같다고 말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만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김원석이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이제부터는 바치는 손이 더 길고 받는 손이 짧도록 감자정당수확고를 더 높이겠습니다.》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김원석이 대신 조병삼이 대답을 올렸다.

《우리 연구소의 무비루스감자조직배양시험이 성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다른 농장의 감자농사형편에 대해서도 알아보시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벌써 여러대의 대형화물자동차들이 달려와 수확한 감자들을 넘치게 실어나른다.

《장군님,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아까부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마음을 바재이던 최영민이 그이께 조용히 말씀드렸다.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 읍에 점심식사를 준비시켜놓았습니다.》

《뭘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풍년든 감자밭에오니 떠나고싶지 않습니다.》

《장군님,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다가 또 끼니를 번지시면...》

최영민이 안타까이 말씀드리며 그이의 곁에서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환히 웃으시었다.

《정 그렇다면 여기서 저리 감자구이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예, 감자구이 말입니까?》

최영민도 김원석이기도 눈이 등그래졌다.

《그래도 그것만으랴 어떻게...》

《그렇게 합시다. 감자밭에서 화토불에 감자를 구워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습니까.》

잠시후 마가울의 땃별을 피해 그늘진 나무주위에서 화토불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원석이 삭정이며 나무토막, 마른풀을 모아놓고 불을 질러놓은 것이다. 화토불은 삼시에 후룩후룩 소리를 내며 타올랐다.

《화토불피우는 원석동무의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날의 추억을 되살리며 미소를 지으시었다.

《장군님, 저야 대홍단군사람이 아닙니까?》

김원석이 자랑스럽게 말씀드렸다. 그가 태를 묻은 곳은 신사동 목재소마을이었다. 화토불피우는 솜씨로 놓고말하면 대홍단군치고도 목재소마을 사람들이 제일이라고 했다.

《그렇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동행한 수원들과 함께 화토불 주위에 빙 둘러앉으시었다.

김원석이 말씀드렸다.

《예, 그럴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무산지구전투가 끝난 후였습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주력부대와 함께 신사동에 오시였던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목재소마을사람들의 가공한 형편을 헤아리시고 손수 밀종자를 나누어주시었습니다. 그때 저의 어머니도 녀사께서 주시는 밀종자를 받아안았습니다.》

부대와 함께 김정숙녀사께서 떠나가신 다음에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 사랑을 받아안기만 하고 도리를 지키지 못한 자기들을 질책하며 얼마 안되는 식량을 모아갖고 부랴부랴 인민혁명군을 뒤쫓아갔으나 찾을길이 없었다. 간난신고끝에 겨우 찾아낸것이 그들이 남긴 희미한 화토불자리였다. 썩 후에야 사람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가난에 쪼들린 목재소마을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인차 철수하였다는것도, 행군길에서 도중에 화토불에 구운 감자 몇알로 요기를 하고 떠나갔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목재소마을사람들은 그때부터 화토불을 놓을 때마다 집도 없이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애오라지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시는 김정숙녀사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그려보곤 하였다고 했다.

《정말 잊을수 없는 사연입니다. 우리모두 화토불에 갖는 그날의 추억을 잊지 맙시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흔연히 말씀하시였지만 김원석을 새롭게 알게 되어 기쁘시었다.

그이께서는 화토불에 묻은 감자를 뒤집느라고 연기를 쏘이며 눈굽을 훔치느라 얼굴에 검댕이칠을 한 관리위원장에게 물으시었다.

《제대군인동무들이 일을 잘합니까?》

《예, 큰몫을 맡아 해제끼고있습니다. 감자수확기운전공도 제대군인인데 김원석동무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김원석

에게 물으시었다.

《장가를 보냈습니까?》

《예.》

《머느리는 어떤 처녀를 맞았습니까?》

《함흥시 성천강피복공장에서 재봉공으로 일하다가 대홍단군에 자원진출해온 처녀입니다.》

김원석은 머느리가 재봉공으로 일해서 그런지 눈썰미가 여간 빠르지 않은데 일솜씨보다 감자농사를 두고 걱정하는 그 애바른 마음이 더 기특하고 대견하다고 했다.

《허허, 그러니 온 집안이 감자농사혁명에 떨쳐나선셈입니다. 아들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까.》

**김정일** 동지께서는 김원석이 아들을 데려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삭정이를 집으시여 화토불우에 던놓으시었다. 화토불이 탁탁 불씨를 튕기며 세차게 타오른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길을 지켜보시는 그의 눈앞에는 어머니께서 지피시던 화토불이 다시금 떠오르시었다. 피어린 항일의 날에 타오르던 화토불이 해방후의 그날을 거쳐 오늘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니 화토불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가슴에 새겨지시었다.

최영민도 이 화토불이 단순한 자연의 화토불로만 생각되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께서 그토록 바라시고 념원하신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이 땅우에 더 활짝 꽃피우기 위하여 몸소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빨찌산식장행군으로 번영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헌신과 뜨거운 사랑을 가슴뜨겁게 되새겨주는 화토불이었다.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고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관철에서 새로운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도록 걸음걸음 앞길을 밝혀주고 뜨겁게 마음을 달궂여주는 화토불이었다.

순간 최영민은 그 화토불을 가슴에 안은듯 저도 모르게 걱정이 솟구쳐올랐다.

(장군님, 장군님께서는 큰 파오를 범했던 김원석을 다시 소생시켜주시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웨치던 최영민의 입에서 정작 튀어나온 목소리는 의외로 그자신도 놀라운것이였다.

《장군님, 대홍단군에는 아직 감자농사를 맡아할 주인이 비어있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동지께서는 최영민을 바라보시었다.

《김원석동무가 다시 자기 위치에서 일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동무의 의견이 그렇다면 나도 반대없습니다.》

바로 그 시각, 저앞에서 김원석이 아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오고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크나큰 믿음과 영광이 차례졌는지도 모르고, 최영민이 그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김원석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이제 그의 아들에게 또 어떤 사랑이 내려질런지?...

화토불은 그냥 타오르고 해빛은 마냥 넘치고있었다. 북반은 백두대지를 노래하며 푸른 하늘높이 새들이 날고있었다.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김정숙은 인간을 불처럼 사랑하는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남을 위한 희생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다. 동지들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것이 그의 성품입니다.》

《그는 늘 받는 재미보다 주는 재미가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남들의 정을 받는것도 좋지만 남들에게 자기 정을 줄 때가 훨씬 더 좋다는것이 바로 김정숙의 인생철학입니다.》

《김정숙의 동지애는 나를 위한 노력, 나를 위해 자기를 깎그리 바친 헌신성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표현되었습니다.》

《친어머니도 해주지 못한 일을 스스로 걸머지고 나서서 자신을 희생시킨 김정숙의 동지애,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 사령관에 대한 혁명적인 동지애인 동시에 인간 김일성에 대한 뜨거운 정이기도 하였습니다.》

## 어머님의 미소

### 김 선 화

어쩌면  
이리도 밝게 웃으실가 김정숙어머님  
빨찌산시절 군복차림  
그 모습은 오늘도 변함없건만  
아 더 밝고 눈부시게 안겨오는  
어머님의 미소여!

어이 기쁘지 않으시라  
그토록 기다리고기다리신 장군님을  
한해전 이른봄 여기 오산덕에서  
꿈같이 만나뵈운 어머님  
장장 60년 쌓으셨던 그리움  
그날 그 아침에 다 푸셨는데

어이 눈부시지 않으랴  
어머님의 미소  
밀영의 밤 우등불가에서 한뼘한뼘  
금수강산 삼천리를 수놓으며 그려보신 념원  
그 념원 꽃피 무르녹는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아 우리 장군님  
나라가 흥하는 천만가지 기쁜 소식  
어머님께 모두모두 아뢰이시거니

터치서라  
우리 어머님  
더없이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눈부신 미소를 한껏 뿌리시여라  
수령님 모신 행복의 무아경에  
환히 웃으시던  
잊지 못할 타향의 그 봄날처럼

아 만리창공 아득히 위성이 날고

축포의 불보라, 주체철불노을 황홀경을 펼치는  
이 땅, 이 하늘 바라보시며  
환히도 환히도 웃으시는 그 미소에  
강산은 더 밝아진듯  
하늘은 더 푸르러진듯

만시름 다 놓고 웃으시여라  
함박눈처럼 폭신한 비날론 햇숨으로  
제대군인 신랑신부 이부자리 꾸며주시며  
싸락싸락 하이얀 주체비료  
서해천리 간석지 새벌에 뿌리시며  
조용히 노래도 부르시여라

웃으시여라  
살구동네 추리동네 집집의 쌀독도 열어보시며  
숫구치는 희천의 언제우에서  
병사들 어깨도 다독여주시며  
과일향기 넘쳐나는 무릉도원 백과절경...  
최첨단을 돌파하며 나래치는 공장파 광산  
교정의 푸른 창문 바라보시며  
아, 파도쳐 물결쳐오는 인민의 행복  
하늘땅을 진감하던 10월의 환호성에  
축복의 미소를 보내시여라

찬란하여라  
그지없이 아름답고 아름다워라  
한폭의 옥당목에 수놓으셨던 꿈  
백화만발하게 피어나는 조국강산에  
더 밝게 더 눈부시게 비껴가는  
어머님의 미소!  
강성대국 봄의 미소여!



# 부전령을 넘어

조 권 일

떠약빛이 재글재글 내려쬐이는 산협길을 따라 달구지 한대가 삐걱거리며 굴러간다.

《이랴, 킁킁...》

달구지옆에서는 등이 구부정하고 몸이 체소한 령감이 소잔등에 연방 회초리를 안기며 길을 재촉한다.

몸에 맞지 않는 허름한 누데기옷을 걸친 열대여섯 나보이는 총각이 고개를 짓속인채 령감의 뒤를 비척비척 따르고있다. 가끔 고개를 들어 달구지위에 앉은 녀인을 근심스레 바라보곤 하는데 이따금 녀인이 줄기침을 터뜨릴 때마다 거뭇게 멍진 입술을 으깨물곤 했다.

《세상이 참 험할지고... 네 어깨에 큰 짐이 실렸구나.》

령감은 시름겨운 흐릿한 눈길로 총각을 바라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니들 가는데가 어드메냐?》

총각은 들었는지 먹었는지 걸음만 무겁게 옮길 뿐이다. 령감은 더이상 말을 건너지 않았다.

굽인돌이를 지나자 보초막이 멀리 보였다. 모자를 빼딱하니 쓴 땅팔보순사가 긴 칼을 절컹거리며 오가는 사람들을 단속하고있었다.

덜컹거리며 굴러오는 달구지를 띠여본 놈이 눈을 지릅뜨며 일행을 향해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찌뱃한 눈길이 회초리를 끌며 소꿉무늬를 쫓는 령감을 스쳐 먼지가 뿌옇게 오른 총각의 람루한 차림새에서 멎었다.

《어디서 오는가?》

《...》

《봉천에서 오는 놈들이나 맞지? 행색이나 수상하다.》

목이 앙바툼하고 주독이 올라 코끝이 마가을날의 고추처럼 새빨강게 익은 놈이 칼집으로 총각의 턱을 쳐들어올렸다. 총각은 시퍼렇게 멍진 입술을 움칠거리며 시뻘뻘한 눈길로 놈을 힐끗 쏘아보고

는 고개를 외로 틀었다.

《네놈이나 봉천에서 화재를 일으키고 도망치는 놈이 분명하다.》

령감의 누르데데한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다. 황황히 총각을 붙안으며 채머리를 흔들었다.

《순사어른, 이 앤 내 손자웨다. 병어리라우. 달구지에 탄건 내 딸년인데 엠병을 앓아 의원을 찾아가는 길이우다. 저- 기 고개너머 봉도리에서 떠나온 걸음이웨다.》

《엠병을 앓아?!》

땅팔보는 달구지에 피끗 눈길을 던지며 뒤로 닝큼 물러섰다. 무슨 불결한것이 몸에 닿기라도 한듯 오만상을 찌프리며 장갑낀 손으로 옷섶을 툭툭 털었다.

《령감의 말이 확실한가?》

《네- 어디라구 감히...》

달구지위에 기신없이 누워있던 녀인이 문득 정신을 차린듯 애끓는 소리로 물을 찾았다. 가슴을 우버대는 기침소리가 잇달랐다. 총각이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달구지결에 다가갔다.

《죽일 놈들 같으니라구. 의원을 청해야지 왜 공기를 더럽히며 싸다녀? 이봐 두상, 봉천에서 화재가 났다. 불온사상을 가진 애새끼가 지주집에 불을 질렀다고 한다. 수상쩍은자를 만나면 주재소에 곧바루 알려야 해. 그러면 상이나 듬뿍 준다. 알겠는가?》

《예, 예. 그렇게 하지요.》

《빨리 가라.》

찌쿵- 덜컹... 달구지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소궁뎡이를 에워싸고 귀따갑게 웅웅거리던 날벌레들도 일시에 따라움직였다.

발은 목을 기웃하며 멀어져가는 소달구지를 의심쩍게 여겨보던 땅팔보가 전염병환자라는 말이 골수에 박혀서인지 이내 허를 차며 돌아서고말았다.

령감은 순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소를 되게 몰

아됐다.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서서야 한숨 돌렸다.  
《좀만 가면 난 안개골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 니들이 어드메까지 가는지 더 태워줬으면 좋겠다만... 나두 머슴살이하는 처지라 어찌질 못하겠구나.》

총각이 수긋했던 고개를 들며 로인을 바라보았다. 대답은 없었으나 눈가에는 고마움이 한껏 실려있었다.

《니들 봉천서 온다구 했지? 상세한건 모르겠다만 순사놈의 말이 심상치를 앓다. 봉천에서 온다는 말을 다신 하지 말거라. 줄경을 치를라.》

총각은 다 해진 팔소매로 눈굽을 뺨 문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달구지에 다가가더니 녀인을 부축하여 내리웠다.

총각의 몸에 의지하여 간신히 번디디고 선 녀인이 힘겹게 눈시울을 치켜올렸다.

《어르신님, 고마워요. 큰 신세를 졌어요.》

《신세는 무슨 신세... 더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워다. 아무쪼록 몸성하우다.》

평감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토하며 소고삐를 잡아챘다.

## 1

저물녘이 가까와지자 세관게 내려쬰이던 퇴약별이 사라지는가싶더니 성지골쪽에서 습기를 머금으면서 느러운 바람이 슬몃슬몃 불어왔다.

해는 이미 뒤덕봉너머로 사라지고 서편하늘에 녀마조각처럼 어지러이 널린 구름장들이 락조의 여광을 받아 시진한 빛을 띠고있다.

쌀밥맛같이 움푹 패인 골안에 비좁게 들어앉은 탄광마을은 마치 킁킁한 무덤속처럼 느껴지는데 검은 탄먼지가 오른 마을길로는 때자국이 흐르는 토스레웃을 걸친 인부들이 러벌러벌 지친 걸음을 놓고있다. 빈 질통을 걸맨 맨발의 총각이 그들과 멀찌감치 떨어진채 조심스레 따르고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우기를 바라지 않는듯 가끔 걸음을 멈추며 앞뒤를 훑음훑음 살피기도 한다.

탄먼지가 뿌옇게 오른 더부룩한 머리며 광대뼈가 튀어나온 여윈 얼굴, 흐릿한 눈에 비낀 구슬픈 애수... 바람에 날려다니는 가랑잎처럼 탄광마을의 여기저기를 떠돌며 버럭탄이나 주어다 파는것으로 목숨을 근근히 연명해가고있는 병어리총각 리재철이다. 그나마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하는 일이어서 총각에게는 엽전 하나 만져보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힘든것이다.

재철은 뒤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흠칫 몸을 떨었다. 얼른 뒤를 살피고는 길녘의 덤불숲에 뛰어들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금저리도록 무릎을 싸안고 앉아있던 재철은 저도 모르게 설움에 겨워

눈물을 머금었다. 까실까실한 두볼을 타고 흘러내린 눈물방울이 무릎을 감싸친 손등에 똑똑 떨어져 내렸다. 억울하고 분했다. 왜놈들에게 수모를 당하며 쫓기다못해 이제는 함께 일하던 품팔이군들에게서까지 버림을 받은것이다. 아, 내 처지는 왜 이리 불행할까?...

자기를 쏘아보던 감때사나운 눈빛들, 무섭게 이지러진 얼굴들, 당장 눈앞으로 날아들것 같던 으스스하게 들어온 주먹들...

《야, 너 정신나가지 않았어. 갱에 왜 기신기신 들어가는거야.》

《당장 사라지지 못하겠어!》

언젠가 자기의 여윈 두어깨를 감싸주며 누렁이를 주머니에 넣어주던 신갈파사람도 격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니 네가 갱에 들어갔었던 말이냐?! 이놈아, 파업이라는게 뭇지 알기나 해? 흐- 음... 당장 돌아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흠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불쌍한 애라고 동정해주던 그들이 그렇게까지 성낼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그러나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했다. 모두가 약속이나 한듯이 (혹은 약속을 했었을수도 있었다.) 갱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있을 때에 재철이만은 질통을 메고 굴속에 들어갔던것이다. 혹 누가 그에게 단 한마디라도 귀뜸했더라면 그는 달리 행동했었을수도 있었다. 하지만 말 못하는 병어리에게 누가 말을 건넨랴!...

《오- 네가 재철이냐? 멀끔하게 생겼는데 병어리라니 참 안됐구나. 내 너희 집사정을 미리 몰라봐서 안됐다. 오늘부터 갱에 들어가 일하거라. 특별히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다.》

외알배기안경을 번득이며 열성스레 손세를 쓰던 왜놈감독, 억지감이 느껴지던 해사한 웃음, 시누런 금테이발...

재철은 놀란 눈길로 좀상스레 생긴 감독놈의 강파른 얼굴을 얼없이 쳐다보았다. 너무도 뜻밖의 호의였던것이다.

《자, 옛다. 네 어머니가 병이 심하다는데 이걸루 약첩이나 사드리렴. 그리고... 오늘 갱에 들어가 일을 하면 상금도 후하게 주련다. 어떠냐? 파업이라는건 다 쓸데없는짓이야. 다른 놈들은 굴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먹을게 있구 속이 편하길래 저렇게 폐질을 하지만 너야 다르지 않냐.》

무엇인가 놈이 하는짓이 께름하고 얄미웠지만 앓는 어머니의 약값때문에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남들이 어떻게 하든 자기는 돈을 벌어야 했다. 어머니를 살려야 했던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재철은 버럭이 되어버렸다. 갱에는 한것밖에 들어가보지 못하고 다시 밀려나고말았다.

재철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피춤에 손을 넣어

돈주머니를 더듬었다. 동그란 엽전 몇개가 손끝에 마쳐온다. 기가 막혔다. 하루종일 버럭무지를 들췄는데도 어머니의 약값은커녕 저찌끼값도 벌지 못했다.

(어머니의 약값은 어떻게 한담. ...)

재철은 그 자리에 퍼더버리고 앉았다. 떠나온 고향의 전경이 눈앞에 삼삼히 어려왔다.

강녘의 둔덕진 곳에 울망줄망 모여앉은 초라한 농가들, 황보지주의 심보를 닮아서인지 사납기 그 지없는 개들이 으르릉대며 지커선 과일나무가 총총한 야산, 고기비늘처럼 번득이며 고향마을을 싸고도는 봉천강이며 그 아래턱에 덩실하게 솟구친 고래등같은 기와집...

아버지는 재철이가 얼굴도 채 익히기 전에 폐병에 걸려 선산에 묻혀버렸다. 졸지에 남편을 잃은 어머니는 아버지가 남긴 오누이자식을 살려보겠다고 마른일, 굶은일 다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허위 허위 헤쳐왔다.

그러던 어느날 불파귀의 살이 축 늘어진 황보지주가 집뜨락에 불쑥 들어섰다. 왕년에 아버지가 진 빚이라고 일장 사설을 늘어놓던 황보는 이튿날에는 그 빚값으로 녀동생을 종살이로 끌고갔다.

망울도 채 터치지 못한 애리에리한 녀동생은 끌려간지 얼마 안되어 지주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개, 돼지보다 못한 종살이를 하며 밤낮으로 고역을 치르다가 끝내는 연자방아에 치여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소작논에서 아시김을 매다가 소식을 전해들은 어머니와 재철은 숨이 턱에 닿아 지주집으로 달려갔다. 동생은 눈도 채 감지 못한채 거적에 싸여 외양간 두엄무지에 던져져있었다.

방안에서는 황보가 청헤들인 주재소놈들과 마을 유지들이 권커니 작커니 술추렴을 하고있었다.

어머니는 억이 막혔다. 시체를 안고 지주집의 퇴마루에 올라섰다. 당신도 사람인가고 절규하며 딸을 당장 살려내라고 사납게 소리쳤다.

《뭘, 뭘? 이년아, 제명에 죽은 종년을 나더러 살려내라구? 당장 밀린 빚이나 갚아내.》

황보는 되려 게거품을 입에 물고 선불맞은 짐승처럼 날뛰었다. 토방에 세워놓은 개화장으로 어머니의 가슴을 쿡쿡 찌르며 시체를 걸어안고 냉큼 사라지라고 울려했다. 어머니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칠했다.

어머니의 곁에 서서 지름뚝 눈으로 황보를 쏘아보던 재철은 더는 참을수가 없어 개화장을 뺨 나꿔쳤다. 황보의 몸뚱이가 썩은 통나무처럼 허공나가 떨어졌다. 웬일인가싶어 문짚으로 대가리를 내밀던 순사놈들이 굶주린 이리떼처럼 소년에 게 달려들었다.

《네간놈이 주사어른한테 손을 대?》

《불온사상이 끝수에 배긴 놈이나 틀림없다.》

구두발들이 연거퍼 재철의 얼굴이며 동가슴으로 날아갔다. 이발이 부서지고 입귀가 터졌다. 땅바닥에 피가 랑자히 흘렀다. 어머니도 놈들의 발길에 채여 쓰러졌다. 반주검이 된 그들은 시체와 함께 대문밖에 내던져졌다. 목숨은 있어도 연명할 길이 없고 입은 있어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세상을 저주하며 그들은 땅을 치며 울었다.

머칠후의 어둑새벽, 치부와 부귀를 자랑하며 그리도 덩딩하게 솟아있던 고래등같은 기와집에 불이 났다. 노호한 불길이 허공을 짓태우며 길길이 날아올랐다. ...

재철은 주위가 조용해져서야 자리에서 일어섰다. 개울물에 대강 몸을 씻고는 그대로 물녘의 투들투들한 자갈밭우에 퍼더버리고앉았다. 피춤에서 때물이 올라 반질반질한 돈주머니를 끌러냈다.

몇푼 안되는 돈을 세어보려는데 문득 멀지 않은 곳에서 자갈 굴리는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돈주머니를 급히 토스레옷속에 쑤셔넣었다. 어디 피할데도 없는 물녘이어서 고개를 짓숙이고 그냥 앉아있기로 했다. 발자국소리가 그의 등뒤에서 똑 멎었다.

《어디 아픈가요?》

의외에도 녀인의 목소리였다. 따뜻한 인정이 배인 친절찬 목소리에 재철은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자주빛저고리에 검정치마를 단정히 받쳐입은 눈매고운 아지미가 근심스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있었다. 무엇인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식처럼 끌어당기는 신비스런 빛이 그의 머리우에 떠도는듯 했다. 하지만 그것은 한찰나, 재철은 뒤켠에 허리를 구뎛하고 서있는, 다름아닌 재철의 가슴속에 찬서리를 들썩운 신갈파사람 장신혁을 알아보고는 눈살을 찌프렸다.

길쭉한 얼굴이 까뭇까뭇한 장신혁이도 안장코를 흠뻑하며 달갑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 했더니 너로구나. 여기서 뭘 하니?》

재철은 불시에 속이 언짢아졌다. 벌떡 일어서며 알릴듯말듯 코방귀를 뀌었다. 장신혁이 흠집이 깊이 패인 볼편을 찌뭇하며 허거프게 웃었다.

《서로들 아는 사이인가요?》

아지미가 놀란 어조로 물었다.

《예, 좀...》

장신혁이 어정쩡한 소리로 대답했다.

재철은 조갈이 든 입술을 앙증스레 옥문채 무엇인가 받아넘길 긴장한 자세로 그를 노려볼뿐이다. 상서롭지 못한 공기가 그들사이를 배회했다.

아지미가 웃음진 얼굴로 재철이를 향해 한걸음 나섰다.

《여기서 사는가요?》

재철은 대꾸하지 않았다. 장신혁이 대신했다.

《품팔이군이시오. 타고장서 여기에 온지 달포가 넘어되는데... 듣기만 하고 말은 못하는 병어리입니다. 좀 사연이 있는 애입니다.》

그의 온몸지 않은 어투에 재철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탈아쥐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무슨 일이 있는것 같은데... 앉아서들 이야기 하자요. 어서 앉으세요.》

재철은 아지미의 상냥한 권고에 속이 누긋해졌다.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어머니에게서도 들어본지가 아슴푸레한 살뜰하고 정에 넘친 말이였다.

《시간도 바쁜데 그냥 잡시다.》

재철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온몸지 않은 눈길이 장신혁의 무표정한 얼굴로 살처럼 날아갔다.

《흥!》

그는 발치에 놓여있던 너마같은 저고리를 뺏 잡아채며 성큼 걸음을 옮겼다. 미처 어쩔새도 없었다.

《아니... 좀 서세요.》

아지미가 찾았으나 그는 멈춰서지 않았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호하고 한숨을 지으시며 별스레 키가 쨍쨍해보이는 총각의 뒤모습을 점도록 바라보시였다. 일체가 일으킨 침략적이며 강도적인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국내조직망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것과 함께 위촉된 인민들에게 활기를 북돋아주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적후방을 교란할데 대한 김일성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7월에 이어 또다시 국내깊이에도 나오신 그이이시였다.

도천리에서 적들에게 체포되어 온갖 옥중고초를 겪으시다가 출옥하신 후에는 쇠약해진 몸을 돌볼새없이 그길로 천여리의 머나먼 국내정치공작의 길에 오르신것이다. 그렇게 떠나신 걸음으로 련화산줄기의 높고 험한 산밭들을 넘으시며 정치공작 활동을 벌리시였고 부전령비밀근거지를 거쳐 이날 저녁무렵에는 신흥탄광조직책임자인 장신혁을 만나 탄광마을에 이르신것이다.

《내가 좀 너무했나봅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맞다들리다니...》

김정숙동지의 흐린 안색을 살피며 장신혁이 입안소리로 중얼거렸다. 동안을 두며 병어리총각으로 하여 빚어진 이곳 탄광로동계급의 파업실패에 대해 조심조심 여쭈었다. 그의 어조는 패활하고 배짱있던 그의 성미와는 달리 펍 침울했다. 물론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데도 리유가 있겠지만 보다는 얼마전에 김정숙동지께서 겪으신 불행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기에 마음이 좀처럼 밝아지지 않은 까닭이였다. 몸서리치는 악행을 당하시면서도 사령부의 안전을 지켜내고 조직을 구원하셨다는 그의 소식에 장신혁은 얼마나 소스라쳤던가. 그 소식을 들은지가 불과 며칠전인데 이렇게 살벌한 공기가 떠도는 국내깊이에서 그이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장신혁으로서는 놀라움과 함께 걱정보따리가 커질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 매혹적인 웃음을 지으시며 그와 반가운 인사를 나

누시였지만 장신혁은 첫 순간에 그이의 눈가에 비낀 옥중투쟁의 피로감이며 축가신 몸에 남아있는 고문의 어혈을 어렵지 않게 알아볼수 있었다.

그이께 얼마간의 휴식이라도 보장해드릴수만 있다면 바랄것이 없을것 같았다. 그런데 이번엔 공교롭게도 내가에서 불쑥 맞닥들린 그 말쑥많은 병어리녀석이 그이의 걸음을 지체시킨것이다.

《너무 속쓰지 마십시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장신혁은 자기로서도 의미가 잘 가늠되지 않는 소리를 외우며 씨래기담배를 굵게 말았다. 불을 붙여물고 몇모금 성급히 빨다가 생각깊으신 눈길로 먼 하늘가를 바라보시는 김정숙동지를 일별하고는 담배불을 인차 끄고말았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탄광조직의 사업내용으로 화제를 돌렸다.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이번에 대중계몽사업도 좀 내밀고 크게는 일정하게 영향력있는 동무들과도 련계를 맺었습니다. 글썽 이런걸 성과로 보는것이 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을 만나보니 확실히 운동바람을 쐬여본 사람들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신혁은 땀물에 흠뻑 젖은 수건으로 목덜미를 문지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중일전쟁이 터진 뒤로 모두가 당황해하고있는겁니다. 놈들이 도처에서 검색소동을 벌리지, 별다른 기미만 보여도 쉬파리떼처럼 달려들지... 어제도 조직성원 두명이 경찰서에 련행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정세가 정세인것만큼 기회를 봐가며 투쟁을 전개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는데... 한마디로 좀 어수선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힘들게 준비한 파업까지 실패하고보니 나도 자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예-》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용히 뇌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그것은 결코 이곳 탄광조직에서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였다. 신갈파와 장진군의 지하조직들을 지도하시면서 느끼셨고 부전령비밀근거지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도 느끼셨던 현실적문제였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후방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더욱더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책동으로 하여 국내의 많은 지하조직들이 활기를 잃고 사기가 저락되고있었다.

(장군님께서 그래서 나를 여기로 보내신것이 아니겠는가.)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신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절감하시며 어두운 낮색으로 덤덤히 서있는 장신혁에게 눈길을 돌리시였다.

신갈파의 광선사진관에서 그를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생각나시였다. 끝없이 이어지던 정신적방황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고 열기에 떠서 토로하던 장년의 사나이, 참된 진리의 길을 비로소 찾

은 기쁨과 환희를 숨김없이 털어놓던 열정적인 사람… 당장이라도 경찰서를 들이치고 《조선독립만세!》를 웨칠것처럼 들썩이던 그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혹시 그는 이것을 두고 신증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주객관정세를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간혹 그런 착오를 범할 때가 있는것이다. 어쨌든 그 모든것은 국내정세가 그만큼 긴장하고 팽배하다는것을 시사하고있었다.

《장동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대중적지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고 방법론을 세워 놈들의 반혁명적공세를 혁명적공세로 짓부셔버려야 해요. 구체적인건 오늘 저녁 성지골에서 토의하자요.》

누기찬 바람이 불어오며 탄먼지가 오른 풀숲을 흔들었다.

천천히 걸음을 떼시던 김정숙동지께서 주춤하며 다시 멈춰서시였다. 자갈밭우에 떨어진 자그마한 주머니를 띄어보신것이다. 조심히 집어드시였다.

《돈주머니가 아니예요?…》

《?!》

《이자 그 총각이 떨군것 같아요. 덧천을 대고 기운것도 그래, 노끈을 맨것을 봐도 그래…》

김정숙동지께서는 엽전이 절렁거리는 험쩍한 돈주머니를 줌안에 꼭 쥐시며 주위를 둘러보시였다.

저녁어스름이 자리를 펴고있었다. 내가너머의 관목숲에서 풀벌레들이 씨룩씨룩 울고있었다.

《이 귀한걸 떨구고 그냥 갈수 있을까요? 잃은걸 알게 되면… 인차 찾으러 올거예요.》

그이께서는 주머니의 끈을 다시 팡팡 비끄러매시고 눈에 잘 띄우는 너럭바위우에 올려놓으시였다.

## 2

어둠이 짙어갈 무렵, 소나무숲이 울창한 성지골에서는 김정숙동지의 지도밑에 신흥, 흥남, 함흥 일대에서 활동하고있는 정치공작원 및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각 지구에 파견된 정치공작원들의 활동정형을 총화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중일전쟁에 대처하여 장군님께서 새로이 제시하신 투쟁과업을 전달하시였다. 특히 적들의 발악적인 대륙침략책동에 놀라 망명가적인 사업태도로 혁명을 대하는것은 적에게 투항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심각하게 지적하시며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대로 전인민적인 항전준비를 더욱 본격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맨 뒤끝의 아름이 큰 나무그루터기우에 몸을 웅크리고있은 장신희는 김정숙동지의 말씀 한마디한마디를 뇌리에 새기며 자기 사업을 돌이켜보았다.

나이가 50대 초엽에 이른 장신희의 경력은 단순치 않았다. 짓밟힌 강토의 몸부림을 더는 관망

할수가 없어 청운의 뜻을 안고 독립의 길에 나선 장신희의 반생은 거의나 방황과 울분, 절망으로 이어졌었다.

젊어 한때는 화승대를 메고 바람세찬 눈덮인 산밭들을 넘나들기도 했고 실패와 우여곡절을 겪으며 통한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후엔 뜻있는 사람들이 흘러간다는 연해주에 이르러 독립운동도 벌려보았으나 차례진것은 자기자신에 대한 허무와 약소민족의 설움뿐이었다. 그 나날에 애국렬사 리준의 아들과도 알게 되어 함께 독립의 길을 찾느라 모지름도 써보았으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다.

연해주를 동족의 피로 물들인 흑하사변을 겪은 장신희는 허를 깨물며 결연히 연해주와 리별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숨없는 땅, 빛 한점 들지 않는 메마른 대지, 래일이 없는 인생들의 한숨소리… 뜻을 이루지 못한 울분은 가슴을 갈가리 찢었다.

모든것을 체념하고 술잔을 기울여 인생의 허무를 쫓으려 했으나 그것도 한참나 왜놈들과 맞서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은 자기자신에 대한 혐오가 속을 아프게 우버뒀다.

그무렵 한점의 불꽃이 은둔자의 어둠시그레한 생활공간에 날아들었다. 백두의 산밭들을 주름잡으시며 일제의 백만대군과 항일전쟁을 벌리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였다. 그는 무작정 동북과 가까운 압록강연안으로 운명의 방향타를 돌렸다.

신갈파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하신 백두산녀공작원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를 두고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가슴을 들먹였다.

장신희는 김정숙동지께서 지도하시는 신파지구 당소조, 조국광복회신갈파지회에 들게 되었고 몇달전에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고 활동무대를 넓혀 이곳의 신흥탄광 로동계급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조직도 꾸리고 합법적인 투쟁을 벌릴수 있는 조건도 마련해놓았다.

그런데 별안간 일제의 중국관내에 대한 전면적인 침략전쟁을 계기로 정치정세가 급변하였다. 대대적인 검색소동이 벌어지고 합법적단체들의 활동마저도 금지당하였다. 모처럼 준비해오던 파업투쟁까지 실패하게 되자 장신희는 삽시에 의기를 잃고말았다. 물론 병어리총각이 실패의 발화점이 되기는 했지만 결코 그 하나에만 밀몰아붙일 문제가 아닌것 같았다. 하여 그는 조직을 보호하는것을 급선무로 제기하고 일시 활동을 중지하기로 했다.

김정숙동지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그는 자기의 오류를 깨달았다. 그렇다, 그것은 오류였다. 혁명의 전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데서부터 생긴 오류였다. 나이도 많고 투쟁년한도 오래다고 자처하던 이 장신희가 어떻게 되어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지...

바람이 기세를 돋구며 깊은 골안을 뒤흔들었다. 숲이 뒤채이는 웅글은 소음이 어둠질은 공간에 가득찼다. 나무숲사이로 툼툼이 스배들던 달빛은 사라진지 오래고 광포한 바람이 칠흑같은 어둠을 벗어나며 숲우듬지를 내닫는다.

장신혁은 다른 지하조직책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김정숙동지를 기다리며 해묵은 락엽이 부근부근한 소로길을 따라 거닐었다. 체구실을 다하지 못한 자책감이 계속 속을 파고들며 얼굴을 뜨겁게 했다. 김정숙동지께서 곁에 다가오신것도 느끼지 못했다.

《생각이 많은게지요?》

그이께서 말씀을 건넬시여셔야 장신혁은 편뜻 정신을 차렸다.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전달받고보니 가책이 큼니다.》

《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시는듯 감심한 어조로 수궁하시였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을 한손으로 꼭 누르시며 걸음을 떼시였다.

《참, 장동지에게 따로 해드릴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북청의 리용선생과 함께 한때 초기공산주의운동에 관여했던 리자영선생과 런계를 맺었다지요?》

《예, 좀 힘들게 런계를 가졌습니다. 리용동문 차호에서 김정숙동지를 만났던 소리를 몇번이나 외우면서 얼마나 감개무량해하던지... 아예 판사람으로 되었던군요.》

《난 장군님께서 주신 임무를 수행했을뿐이예요. 어쨌든 큰일을 하셨습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장신혁이와 함께 물매가 급한 경사길을 더듬더듬 내리시였다.

《장동지, 영향력있는 개별적운동가들을 장악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광범한 군중속에 깊이 뿌리박는것 역시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준비되고 검열된 한두사람의 힘만으로는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할수 없지 않나요. 이번 파업이 실패한 리유도 이런 면에서 생각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애요.》

《예-》

장신혁이 어눌한 목소리로 응대했다. 뇌리에 문득 떠오르는것이 적의가 번득이던 병어리총각의 감때사나운 눈길이다. 생각만 해도 울기가 치밀어 전딜수가 없다. 아니, 그 녀석을 너무 방심했던 자기에게 결함이 있다. 제때에 녀석을 신칙하고 단단히 틀어쥐었더라면... 혹은 당초에 외면해버렸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것이다.

일행은 골짜기를 빠져 희미한 불빛이 그물거리는 탄광마을에 들어섰다.

김정숙동지께서 류숙하실 집은 마을과 좀 떨어

진 산자드락의 유축진 곳에 외파로 위치하고있는 부녀회장네 집이였다.

장신혁은 그이를 모실 준비가 어떻게 되었겠는지 저속 근심되였다.

《장동지, 리용선생도 급격한 정세변화로 해서 심중이 복잡하겠지요?》

《예? 예-》

제 생각에 움하여 고개를 짓속이고 격석격석 걸음을 옮기던 장신혁은 느닷없이 울리는 그이의 목소리에 까닭모를 불안감에 휩싸이며 어정정한 어조로 대답올렸다. 서둘러 덧붙였다.

《아마 그럴겁니다. 공개된 요시찰인이어서 놈들의 탄압이 이만저만 아닐겁니다.》

《마음고생이 크겠군요. 리용선생은 차호에서 나를 만났을 때 조선국의 정통령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길에 선생을 다시 만나야 할것 같군요.》

장신혁은 걸음을 멈췄했다. 이런 일이 있을줄을 예견하지 못한것은 아니였지만 정작 부닥치고보니 온몸이 포박당한듯 옥죄여들었다. 고개를 가로저었다.

《김정숙동지, 이렇게 말하는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엔 못 갑니다. 놈들의 경계가 여간 심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리용동무야 놈들의 감시속에 있는데... 모험해선 안됩니다.》

김정숙동지께서 소리없이 웃으시였다.

《그러니 우린 이제껏 공담을 한셈이군요. 구태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나요.》

희벗한 겨름등빛이 새어나오는 길녘의 어느 집에선가 밥을 달라고 청얼대는 아기의 울음에 젖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를 달래는 녀인의 한숨쉬인 푸념이 잇달리는데 누구인가 그 집 가까이를 지나며 술김을 쉼 비린청으로 울밑에 선 봉선화의 구슬픈 곡조를 읊조린다.

《장동지, 어서 가자요. 비가 올것 같은데...》

김정숙동지께서 다우치시였다.

### 3

사개가 맞지 않은 문틈으로 바람소리가 양칼지게 들린다. 울담밖의 덩지 큰 비슬나무에서 마른 삭정이들이 툭툭 부러지는 소리가 엇섞여 들리는데 세찬 바람결에 지붕의 동기와돌마저 당장 날려가버릴듯 들척거린다.

웃방에서는 녀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간간이 흘러나왔다. 김정숙동지께서 이곳 부녀회원들의 모임을 지도하시고나서 그들이 알고싶어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일이 말씀해주고계시는것이다.

부엌아궁앞에 마주앉은 장신혁은 빗서 열린 정지문을 흘끔 쳐다보며 또다시 담배대를 갈아땀다. 침전물처럼 폭 같았던 기분이 그의 마음을 울적



하게 했다. 북청으로 나가시려는 김정숙동지의 결심을 끝내 돌려세우지 못했던 것이다. 구실을 못하는 자기에 대한 원망이 그리고 매일이면 또다시 위험천만한 길을 떠나셔야 할 그이를 여적 붙잡고 자질구레한 생활의 다반사를 다 물어보는 눈치없는 시골아낙네들에 대한 불만이 연기처럼 가슴속에 서리서리 엉켜돌았다.

아니, 저들은 모른다. 정찬 웃음을 지으시며 다 감한 어조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김정숙동지께서 어떤 고생을 겪으셨는지 또 건강상태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알수가 없는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장신혁은?... 역시 속수무책으로 가슴앓이를 할뿐이다. 완강하게 버티기도 해보았고 안타까운 호소도 해보았으나 그이의 웃음앞에서는 초볼처럼 맥을 추지 못했다. 이제는 그이의 뜻을 따르는 길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아니, 정녕 그 길밖에 없겠는가.

리용의 모습이 떠오른다. 날카로운 눈매에 허우대가 큰 사람, 조선독립을 위해 이국땅에서 피의 절규를 터뜨리다가 분사한 애국렬사 리준의 아들, 연해주와 만주를 편담하며 부친의 뜻을 이루고저 몸부림치던 독립운동자... 령도의 중심을 찾지 못한 수난자의 설움을 걸음마다 짓씹으며 눈물을 휘 뿌리던 불우한 인생...

《신혁군, 그대 우리가 가당을 포구는 어딘가? 난 캄캄해. 눈앞엔 온통 피범벅뿐이네. 아하! 뜻을 안고 연해주로 달려왔건만 차례진진 동족상쟁의 피뿐일세.》

창유리를 두들겨대던 울스산한 이국의 비바람, 철축같은 어둠을 찢어발기며 번쩍거리던 번개불, 리용의 거치른 두볼을 타고 하염없이 쏟아지던 눈물, 망향가를 부르던 애절은 노래소리...

리용은 또다시 만주에로 걸음을 돌렸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한채 일제의 비밀경찰에 검속되어 고향으로 압송되었다.

모든것을 포기해버린 그는 아버지의 명혼을 부르며 은둔생활을 하는 자기를 저주하였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태양의 빛발이 광막한 어둠을 뚫고 그의 신상에 닿을줄을 누가 알았으랴. ...

한달 전, 리원군 차호의 바다기슭에서 **김일성**장군님께서 파견하신 백두산녀장군을 만난 리용은 북받치는 흥분을 누를길이 없어 그달음으로 장신혁을 찾아왔었다. 김정숙동지께서 장신혁의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이다. 수년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상봉이었다. ...

난데없이 구석쪽에서 깨르르륵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장신혁은 고개를 기웃하고 살폈으나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한소나기 잘 퍼붓겠군.)

이제 와서 그의 걱정거리는 오늘 밤이 아니라 래일 아침의 일기였다. 만약 아침에도 비가 내린다면 그보다 큰 랑패가 없는 것이다. 하늘도 그리 무정하지는 않을것이라고 그는 속으로 자기를 위안했다. 정지문이 찌꺼 열리며 키가 작고 얼굴에 마마자국이 송송한 주인집로친이 웃음을 빙글거리며 부엌에 내려섰다.

《조화는 조화지. 말 한마디에 세상이 다 뒤흔들다니 글썄 우리 령감두 당장 유격대에 들겠다구 들썉거리서 사람을 웃겼시다.》

《포수아바이가요?》

한때는 룡혈포를 차고 홍범도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의기를 꺾었다는 포수령감이요보면 그럴만도 했다.

《령감이사 생각이 뻔하지우. 나한테 귀찮하는 말이 범상치 않은 체네라누만. 내 보기에도 령감말이 틀리지 않는것 같네. 정이 폭폭 드는 체네야.》

로친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깨끗이 빨아말린 베전을 당반에서 내리웠다. 이발 빠진 오지그릇에 정성껏 퍼더니 기장밥을 퍼담기 시작했다.

로친의 악마디진 손을 따라 눈길을 주던 장신혁은 밥을 베전에 담아 어디 쓰려는가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아직 모르시유? 옥순아지미가 이밤중으루 떠나겠다니 때끼라두 장만해드려야지요. 길을 가면서는 뭘니뭘니해두 량식이 든든해야지우다.》

《예?!》

장신혁은 와들 놀라며 아궁앞에서 일어섰다.

《어디로요?》 하고 그는 다급히 물었다.

《글썄... 좌우간 이밤중으로 떠난다우.》

그러니 북청으로 나가시려는것이 분명하다.

무엇때문에 갑자기 시간을 당기시였을까? 긴급한 정황이 제기되었다면 이 장신혁에게도 소식이 닿았을텐데... 모를 일이다.

밖에서 번개불이 번쩍 일었다. 뒤편 고막을 찢는 퇴성이 울렸다.

심술궂은 바람에 부엌문이 휘짝 제껴졌다가 팡 단졌다. 당반의 기름등잔이 홀 꺼져버렸다.

로친이 소란스런 날씨를 욱질하며 등잔불을 다시 켜다.

장신혁은 속이 부엌부엌하여 도대체 진정할수가 없었다. 아궁에 직심스레 불을 때며 이 한밤이라도 그이를 편안히 모시려던 그 차그마한 소망이 풍지박산이 나고만것이다.

마침 김정숙동지께서 부엌으로 내려오시였다.

《어머니, 기장밥을 참 맛있게 먹었어요. 함께 싸우는 동지들 생각도 나고 고향생각도 나고... 정말 고마워요.》

《가만, 잠깐만 기다리우다. 밥을 얼른...》

김정숙동지께서 의아한 눈길로 돌아보시였다.

《밥이라니요?》

《이 밤길에 떠나겠다니 남은걸루 쟈기밥을 쑤새다. 작다구 욕이나 하지 마우.》

김정숙동지께서는 감심한 표정을 지으시며 눈을 습벅이시었다.

《어머니, 집살림도 여의치 않겠는데…》 하시며 그이께서는 그만두라고 말씀하시었다.

《아이구, 되려 내가 죄스럽시다. 봐하니 큰 일을 하는것 같은데 사양마우.》

로친이 김정숙동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다. 망두석처럼 우두커니 서있던 장신혁은 헛기침을 쫓았다.

《정말 떠나시려는겁니까?》

《예, 등오골인지 하는 마을에 들려… 병어리총각을 좀 만나보고는 떠나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등오골로?…》

《웬일인지 그 총각의 일이 속에 걸리는군요. 부녀회원들에게 물어보니 총각이 앓는 어머니를 모시고있다더군요.》

김정숙동지께서 생각깊은 어조로 뇌이시었다.

로친은 어느새 웃방으로 올라갔다.

딱 단겨지는 사이문을 지그시 여겨보던 장신혁은 손에 쥐고있던 삭정이를 아궁속에 던져넣었다.

《후에 내가 만나보면 안되겠습니까. 보매 큰비가 내릴것 같은데 여기서 하루밤만이라도 좀 쉬여주십시오.》

《마음은 고맙지만 따뜻한 구들방에 눕는다고 마음이 편하겠나요. 왜놈들에게서 수모를 받는 것만도 가슴아픈 일인데 탄광사람들에게서까지 배척받고있다니 총각인들 작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돈주머니도 제대로 건사했는지 걱정되구요.》

《그럼… 내 혼자 가보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함께 가자요.》

김정숙동지께서는 장신혁을 보시며 정겨이 웃으시었다.

밤길은 지척도 가려보기 힘들만큼 컴컴했다.

바람에 실려 비꽃이 점점이 떨어지더니 이어 번개가 번쩍거리고 우뢰가 울며 대줄기같은 비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삼시에 불어난 산골물이 탕수를 이루며 팔팔 흘러내렸다. 길가에도 물이 범람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얼굴에 살갗이 날아드는 비발을 손등으로 가리시며 힘겨이 걸음을 옮기시었다. 앞서 걷는 장신혁은 줄곧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번개가 번쩍거릴 때마다 떡판같은 잔등에 창살처럼 쫓히는 비줄기가 잠깐잠깐 드러나보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젠가 누군가에게서 들은 신적이 있는 일체의 야수적만행으로 하여 부천호반에서 시체 하나 남기지 못하고 통채로 수장당했다던 그의 가족에 대하여 생각하시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점스레 비내리는 날이면 장신혁은 별스

레 입이 무거워지고 신경이 날카로와지는데 어찌 보면 실성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것이다. 지금도 그때의 기막힌 참상을 더듬고있는지…

《장동진 그냥 남아있을걸 그랬어요. 내가 혼자 가도 팬찰을걸 공연히…》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곁에 다가서시며 저으기 미안한 어조로 뇌이시었다. 무슨 소리인가 하여 귀를 바싹 강구던 장신혁이 손을 뻗 저었다.

《내 이제 무슨 낮으로 동지들을 대하겠습니까. 입이 열개라도 변명할 말이 없지요.》

《리해할거예요. 장동진, 난 이런 길을 백번 천번 걸어서라도 동지를 얻을수만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어요.》

《글쎄 그런 길이라면야 나도 꽤히 웃으며 따라섰을겁니다. 하지만 말도 못하는 녀석이나 만나보겠다구… 더구나 지금 정숙동지의 몸상태가 어떠한지 알기나 하십니까.》

김정숙동지께서는 그의 심정이 리해되시었다. 하면서도 왜서인지 가슴 한귀로 서운한 바람이 습배드느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불만어린 어조로 보아 장신혁은 분명 자신께서 걷는 길을 두고 하찮은 인정이나 동정때문이라고 생각하고있는 것이다.

피기없는 여원 얼굴에 비끼던 처절한 빛, 뼈가 앙상한 두어깨, 싸늘한 적의가 번뜩이던 눈동자 그리고 손때묻은 돈주머니… 불행하다면 누구보다 더 불행할 병어리총각일것이다.

문득 발을 헛짚으며 그이께서는 몸을 비칠하시었다. 가까스레 몸을 가누며 걸음을 옮기시었다. 귀속이 웅웅거리고 몸이 떨리시었다. 혹시 독감에라도 걸린것이 아닌지…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 자신의 건강쯤은 팬찮았다. 문제는 그야말로 하찮은 일때문에 동지들에게 부담을 주는것이였다.

도천리에서 지하정치공작활동을 벌리시다가 체포되셨던 일이 뇌리에 편득 떠오르신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때 적들의 악랄한 고문과 회유기만에 시달리면서 마음속으로는 길지 않은 자신의 생애에 종지부를 찍으시였었다. 꿈결에도 달려가 뵈고싶은 장군님이시였지만 바로 자신의 심장이고 생의 전부이며 조국의 운명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결단코 바치기로 결심하시였던것이다. 자신은 죽어도 조직이 살아서 장군님을 받든다면 더 바랄것이 없었다.

그무렵에 도천리민민들은 하루밤사이에 500명분의 량민보증서를 만들어가지고 경찰서장을 공박했다. 한사람의 보증도 받기 힘든 세월에 그것도 200여호밖에 안되는 마을에서 어떻게 하루밤사이에 500명의 보증서를 만들수 있었겠는지 지금도 놀랍게만 생각되신다.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내대고 자신을 보증해나선것만은 분명했

다.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자신의 피흐르는 발에 질신을 신겨주며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들, 옥순이가 공산당이라면 나도 공산당을 따라가겠다고 절규하며 순경놈들과 몸싸움을 벌리던 마을사람들... 바로 그들이었다. 강권이나 금권으로도 움직일수 없는것이 인민의 지지와 믿음이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원썬들과의 옥중투쟁에서 승리하실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그이께서는 찬비 뿌리는 밤길에서 숨없이 나서시었다. 병어리총각 역시 버려서는 안될 이 나라 민중의 일원이기에 움직이기 힘든 쇠약한 몸이지만 그를 찾아가기로 결심하신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흐릿해지려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이를 악무시었다.

장신혁이 무슨 기미를 느꼈는지 걸음을 주춤했다.

《힘들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생각을 하다나니...》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덧붙이시었다.

《방금전에... 신갈파에서 장동지를 만났던 때를 생각했어요.》

《거 신통하게두... 나두 바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정숙동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놈이 어찌 되었겠소.》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

물소리가 소란스레 들렸다. 급격히 불어난 산골물이 사품치며 멀기를 일으키고있었다. 보매 징검돌이 놓여있던 작은 시내가 갑작스런 소낙비에 어방없이 불어난것 같았다.

장신혁은 포말이 이는 물벽에 서서 한숨을 지었다. 기슭을 들때리며 곤두선 물보라가 그의 얼굴에 날아들었다. 온몸이 삼시에 나른해졌다.

《이젠 어쩔수 없습니다.》

《건느면 안될가요?》

장신혁이 고개를 버쩍 들었다.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바위돌도 쿨러내리는 판에...》

《그럼 예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서겠나요. 서로 부축하면 될것 같애요.》

《정숙동지, 제발 그만두십시오.》

하지만 그이께서는 벌써 물에 들어서고계시었다. 다리에 부딪친 물이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휘감겨 돌아갔다. 주위에는 온통 거센 산골물소리만 공명되고있었다.

장신혁은 헉 하고 느끼며 성급히 그이의 뒤를 따라섰다. ...

지나고 보슬비가 밤의 산야를 어루쓸고있었다.

물비린내를 실은 공기는 더없이 청신했다.

결코 집이라고 할수 없는 초막이 언덕받이의 돌서덜밭 귀퉁이에 외로이 서있었다. 가생이가 다 닳아빠진 멍석이 문짝을 대신했고 나무가지가 삐죽삐죽한 바깥벽에는 병어리총각의것이 분명한 질통이 매달려있었다. 질통에 닿는 비소리가 소연하게 들렸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비물이 툭툭 듣는 치마자락을 터시며 초막앞에 다가서시었다. 고फल이 타는 송진내가 짙게 풍겼다. 별거우리한 불빛이 어성진 풀송구리째으로 새어나왔다. 쿨럭쿨럭하는 줄기침소리가 났다.

《어머니, 이젠 약을 좀 드세요.》

목갈린 총각의 목소리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품에 안은 꾸레미를 추스르시며 의아한 눈길로 장신혁을 돌아보시었다. 이야기를 듣기에는 병어리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있다고 했는데 또 웬 아들이 있는가고 물어보시는것이다. 장신혁이도 고개를 기웃거렸다.

《어머니, 어서 들어요.》

《됐다. 이 에미걱정은 하지도 말아. 호- 이래저래 네가 고생하누나. 재철아, 래일부턴 너두 야학이라는데 가보려마.》

《병어리가 야학에 가선 뭘해요. 난 그저 어머니병만 나으면 돼요.》

새움처럼 돈는 욕망을 억지로 눌러버려야 하는 안타까움이 어눌한 어조에 묻어나온다.

《그저 내가 빨리 죽어야 해. 그래야 너두 마음편할텐데... 참, 재철아. 내 아무리 생각해봐두 오늘 일이 잘된것 같지를 앓구나. 마음씨 무던한 아지미한테 인사도 못했으니...》

말꼬리가 문드러지며 또다시 가슴을 찢는 줄기침이 터졌다.

《됐어요, 어머니. 더 마음쓰지 마세요. 래일 아침 마을에 가보겠어요. 아마 장 뭐라는 그 껍다리가 아지미의 행처를 알수 있을거예요. 에- 이, 그 사람은 정말 만나기 싫은데...》

《아서라, 누가 들을라. 그래도 사람은 영 나빠뵈질 앓더라. 네가 그 사람들 일을 망쳐왔으니 성을 내겠지 아무렴 무턱대고 그럴가?》

《어머닌 다 몰라요.》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라시었다. 굳어진 눈길로 멍석째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이윽도록 지켜보시었다. 분명 저녁무렵에 만났던 병어리총각이였다. 그 병어리총각이 말을 하고있는것이다. 영문을 알길이 없으시었다. ...

《주인님, 제십니까?》

그이께서는 의혹이 실린 목소리로 나직이 부르시었다.

《늬시우?》

《예－ 탄광에서 왔쇠다.》

장신혁이 얼른 대답하며 멍석을 쳐들었다.

부뚜막가까이에 맥없이 누워있던 녀인이 힘겨이 몸을 일으키며 이쪽을 여겨보았다. 피골이 상접한 자그마한 얼굴에 의아한 기색이 비껴있었다. 아궁 앞에 쭈그리고앉아 삭정이를 던져넣던 총각이 엉거주춤 일어섰다. 낮익은 병어리총각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총각에게 따뜻한 눈웃음을 보내시며 허리를 굽히신채 우둘투둘한 구들장에 올라서시었다.

《엄옥순이라고 불러주세요. 저녁무렵에 이 집 아들을 잠깐 만났됐는데 어머니랑 보고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늦은 밤에 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허니 우리 재철이가 외우던...》

녀인이 누렇게 뜬 얼굴에 사뭇 당황한 기색을 지으며 김정숙동지앞으로 앉은걸음을 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인의 손목을 꼭 잡아주시었다.

《몹시 편치 않으신게군요.》

《원, 내사 늘 이러지요. 고마워요. 팔자가 사나와서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이렇게 우리 집을 찾는 귀인두 다 있구...》

녀인은 와스스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질하며 구석쪽에서 삼각건을 찾아 질끈 동여맸다. 부엌에 우두커니 서있는 아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생각키운듯 보풀이 일어 너슬너슬한 아마직덕석밀을 손더듬했다. 녀인의 손에 자그마한 주머니가 끌려나왔다.

《이거우다. 에미를 살리겠다고 저 애가 푼푼이 모아둔건데 귀인을 만나서 찾았다질 않수. 저 애가 하는 얘기를 듣구 내 놀랐쇠다.》

장신혁이 재철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허거프게 웃었다.

《밖에서 이야기 나누는 소리를 들었수다. 그러니... 이제껏 병어리흥내를 냈단 말이유?》

이상한 정적이 깃들었다. 벽의 틈사리로 새어든 바람결에 고콜볼이 너울거렸다. 들쭉날쭉한 풀벽에서 그림자들이 흔들흔들 춤을 추었다.

《이왕지사 뭘 더 숨기겠소. 이놈의 썩은 세상이 우리 애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애아버지라는건 철없는것들을 남겨두구 일찍 가버렸지, 이 에미라는건 샅일에 녹아 병신이 되구... 계다가 빗값에 몰려 지주집에 끌려간 딸녀은 에미먼저 죽었수다.》

녀인의 낮은 목소리는 울음에 흠뻑 젖어있었다. 재철이도 부뚜막에 두주먹을 고인채 고개를 짓숙였다.

《딸녀이 죽은 날 억울하게도 지주놈과 순사놈들 헌테서 죽도록 매까지 맞은 저 애가 더는 참을수 없다면서 그놈의 집에 불을 놓았지요. 그리곤 이 에밀 데리고 고향을 떠났는데 벌써 길목길목마다 방화범인을 잡으라는 방이 나불구 순사놈들이 사람들

을 닥치는대로 단속합데다. 그 황보놈은 악착하기로 소문난 놈인데 술한 돈과 재물을 먹여서라도 제가 하겠다는짓은 끝내 하고야마는 개성미였수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당장 끌려갈 판이었지요. 아닐세라 몇번 줄경을 치를번두 했구요. ...》

《그러니 그때부터...》

장신혁이 입안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예, 그담부터 우리 재철인 아예 병어리흥내를 내면서 살았수다. 입이 있다고 어디 사정할데가 있소, 고함을 질러보기라도 하겠소. 차라리 병어리가 되는게 낫다는게지요. 호－》

녀인은 숨이 가빠오는지 한동안 헐썩거렸다.

《...그러자니 저 앤들 어찌 속이 타지 않았겠수. 파업인지 뭇지 하는 얘기두 들었어요. 우리 재철이때문에 일이 글러졌다구 합데다. 다 내탓이우다. 어미한테 약척이라도 사주려다가 왜놈의 꾀임에 빠졌지요. 그게 우리 팔자인지...》

웃고름으로 눈굽을 짝짝 찍어내던 녀인이 고개를 맥없이 가로저었다. 복두갈구리같은 손으로 김정숙동지의 손을 움켜잡았다.

《아재, 우리 앤 나쁜 애가 아니요. 이 에미가 잘 알지요. 그저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우.》

김정숙동지께서는 가슴이 답답해나시었다. 자기의 불행한 처지를 한사코 팔자탓으로만 여기는 녀인이 안타깝게 생각되시었다.

장신혁은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고있었다. 놀랍기 그지없는 사실에 접하고보니 속이 다 떨렸다. 자기가 것처럼 어리숙하게만 보아오던 녀석이, 무지렁이처럼 놀려사는데 습관되고 왜놈이 던져주는 돈 때문에나 침을 흘릴줄 안다고 생각했던 저 총각에게도 그런 뼈에 사무친 원한이 있고 항거의식이 있다는것이 사뭇 놀라왔다. 병어리?... 그가 병어리였다고?!...

장신혁은 부엌에 구부정하고 서있는 재철이를 바라보았다. 재철의 시선과 부딪치자 얼른 눈길을 거두었다. 차마 그를 마주볼수가 없었다.

런 며칠째 쏟아지던 장마비, 호반에 닿는 비소리만 소란하게 들리던 깊은 밤, 별안간 사태처럼 쏟아져내리는 세찬 물결, 삽시에 물에 잠긴 마을들... 장신혁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픈 추억이었다.

왜놈들이 언제를 구원한다면서 마을들에 알리지도 않고 수문을 열었을 때 아래녘의 군잠에 들었던 사람들은 한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장신혁의 처자도 그렇게 꺼져버렸다.

물녘에 차넘치던 통곡소리, 웨침소리, 불러도 불려도 대답없는 이름들을 부르며 기슭을 따라 댕없이 내닫던 사람들, 《초혼》의 시구절을 읊조리는 울음에 젖은 목소리들...

장신혁은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채 고개를 짓숙였다. 어금이를 으깨문 입술사이로 신음소리

가 새어나왔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그를 일별하시며 녀인의 발치에 뭉그러져있는 허름한 적삼을 차곡차곡 개이시였다.

《그것이 왜 이 가정에서만 겪는 불행이겠습니까. 나도 그렇고 장동지도 그렇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슬픔을 안고있답니다. 그것이 팔자탓이겠나요? 아니예요,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강탈하고 재난을 들썩였기때문이에요. 그런데 제 설움에 겨워 울기만 해서야 어찌 어머니가 바라는 그런 행복이 올수 있겠나요.》

녀인의 시름에 잠긴 눈이 문득 커졌다. 미덥지 못한듯 한 표정이 조갈이 든 입술을 스쳤다.

《재철이 어머니 이를 악물고 일하느라 하면 허리 펴 날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지요? 아니예요. 왜놈들이 망하기 전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살아갈 길은 오직 왜놈들과 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도 힘을 합쳐 투쟁하는거예요. 여기 탄광에서 일어난 파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고 굴복하면 차례지는건 망국노의 설움과 죽음뿐이에요. 일어나 싸워야 해요. 그래야 어머니를 위하려는 재철의 소박한 지성도 성취될수 있답니다. 물론 어머니나 재철이를 잘 도와주지 못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답니다.》

재철이 뒤더수기를 굽적거리며 시무룩이 웃었다. 녀인은 그린듯이 앉아 검스런 연기를 토하는 고콜불만을 멍히 지켜보면서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왜놈들이 얼마나 악독하다구... 더구나 우리같은 녀자들이야 무슨...》

《어머니, 지금 백두산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군대를 이끄시고 왜놈들을 죽이고계신답니다. 그 군대에는 재철이와 같은 나 어린 총각들은 물론 녀성들도 들어있어 왜놈들을 벌벌 떨게 하고있어요.》

김정숙동지의 높지 않은 목소리가 방안에 조용히 울렸다.

녀인이 눈시울을 치켜올리며 그이를 유심히 살폈다.

《저... 거긴 뉘시우?》

김정숙동지께서는 정채도는 눈으로 장신혁을 돌아보시며 가볍게 웃으시였다.

《뉘 숨길게 있겠나요. 전 **김일성**장군님의 슬하에서 싸우고있는 항일유격대원이랍니다.》

녀인이 불쑥 놀라며 앓은키를 숨구었다. 의혹질은 눈길로 장신혁을 바라보았다.

《그럼 **김일성**장군님의 부하...》

장신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옳습니다. 이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을 직접 모시고 싸우는분이웨다.》

녀인은 경탄의 눈길로 김정숙동지를 우러렸다. 불시에 정신을 차린듯 《어허이구.》 하며

그이의 손을 움켜잡았다.

《내 이렇게 희한한 날을 보자고 허이허이 살았나보우. 애 재철아, 뭘하고 싶냐? 얼른 인사를 해야지. 나라를 찾겠다고 싸우시는분들인데...》

재철은 긴장된 몸가짐으로 부엌에서 올라왔다. 김정숙동지께서 그의 손목을 잡아끄시며 자신의 곁에 앉히시였다.

《어머니, 일제놈들을 때려부시고 어머니나 재철동무가 주인이 된 진정한 인민의 나라가 선 다음에 우리 인사를 나누자요. 허리를 펴고 살 날을 맞자면 어머니도 재철이도 일제놈들과 맞서싸워야 해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일떠서면 무서울게 없어요.》

녀인의 누으런 얼굴이 금시 환해졌다.

《정말... 그럴가요?》

《그럼요. 어머니 자기를 믿지 못하고 하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데 그렇게 되면 좋아할건 왜놈들밖에 없어요. 문제는 자기를 가다듬고 투쟁의 길에 나서는데요. 태양이 있는 한 세상만물은 반드시 소생하는 법이랍니다.》

녀인은 그이의 말쑈를 다는 리해할수 없었다.

그러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불우한 인생을 위해 부러 폭우내리는 밤길을 달려오신 그이이시였기에 무한정 믿고싶었고 공감하고싶었다.

《참, 아직 식사도 못하셨겠군요.》

김정숙동지께서는 김이 새어나오는 숟가마에 피끗 눈길을 주시며 뒤편에 있던 자그마한 꾸레미를 끄당기시였다.

《음식이 좀 생겼길래 가져왔어요.》

《이러지 마시우. 이러면 안됩니다.》

녀인이 두손을 황황히 내저으며 뒤편으로 나앉았다.

《어머니, 서로 돕고 이끄는거야 우리 인민의 좋은 풍습이 아니나요. 내가 재철이네 집에 들리겠다고 하니 한 할머니가 성의껏 꾸려주더군요.》

《어쩔...》

감동된 표정이 녀인의 얼굴에 씩여졌다. 무슨 말인가를 하려고 입술을 오무작거리던 녀인이 끝내는 뒤편을 잊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흐느낌소리가 고요한 방안에 퍼졌다.

장신혁이도 고개를 외로 틀며 눈굽을 훔쳤다.

그렇다, 김정숙동지께서는 결코 이들을 위로나 하자고 귀한 시간을 내신것이 아니였다. 자기를 찾아오셨던 신갈파의 비내리는 봄날 저녁처럼, 또 암야에서 헤매이는 리용이를 찾아가셨던 차호의 이른아침처럼 오늘 밤도 애국의 싹을 틔워주려고 태양의 따스한 빛을 안고 이 스러져가는 초막으로 찾아오신것이다.

이제껏 장신혁은 불쌍한 이들을 어떻게 대해왔던가. 동정이나 하는것으로 그쳤다. 나중에는 방해가 된다고 버럭처럼 차버렸다. 그리고 장신혁이 혼자만이 혁명가인듯이 명망있는 운동가들을 찾아

# 물 려 주 신 유 산

김 정 삼

사랑하는 아드님에게  
우리 어머니  
무엇을 넘겨주셨던가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셨던가

뜨거웠으리 어머니 그 마음  
천고의 밀림속 통나무귀틀집에서  
눈물겨운 지성으로 수놓은 쪽무이포단에 안겨  
울부짖는 눈보라소리와 싸움의 총포성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성장하신 아드님에게  
세상제일 큰 기쁨을 주고싶으셨으리

간절했으리 어머니 그 마음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백두의 광명성으로 탄생하시였던만  
삼키기 힘든 통강냉이죽을 드셔야 했고  
나무로 깎은 권총과 쌍안경 쪽무이지도가  
장난감의 전부였던  
가슴미여지는 고난과 고생을  
어릴적부터 다 겪으신 아드님이었기에  
세상제일 귀한 행복 다 주고싶으시었으리

수령님 받들어  
불바다 혈전만리 헤쳐오시며  
해방의 봄을 안고오신 어머니  
강토 삼천리가

민족의 환호로 들끓던 그때에도  
아드님을 위하여  
색다른 무엇 하나 마련하신적 있으셨던가

사랑하는 아드님을 위해선  
저 하늘 억만 별도 다 따오고픈 그 소원  
바다속 억만 진주도 다 캐오고픈 그 진정  
용암같은 그 열망  
우리 어머니 정녕 단 한번이라도  
가슴후련히 풀어보신적 있었던가

허나 세월이 멀리 흐른 오늘  
수령님 태양의 모습으로 밝게 웃으시는  
여기 금수산기념궁전앞에서  
우리 당의 총비서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러르며  
내 지금 세상 향해  
뜨거운 목소리로 웨치고싶나니

김정숙어머님은  
수령님 위해 힘차게 고동쳐온  
자신의 고결한 삶의 전부를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에게  
온 생애의 유산으로 물려주셨다고...

헐떡헐떡 뛰어다녔다.

이번 파업이 실패한 문제에 대해 다시 분석해보는것이 좋겠다고 조용히 이르시던 김정숙동지의 말씀이 뇌리를 친다. 그렇다, 파업은 다른아닌 장신혁이때문에 실패한것이였다. 땅속깊이 뿌리내리지 못한 나무의 운명이란 결코 오래 갈수가 없는것이다. 장신혁의 오류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

이제껏 재철이와 같은 사람들을 버력으로 여겨온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아니, 아무리 좋은 비계탄도 땅속에만 묻혀있으면 버력이나 다른 없는것이다. 성의있는 노력과 진심에 의해서만 보물이 될수 있고 빛을 낼수 있는것이다. 만약 이밤이 없었더라면... 생의 활기에 넘쳐 싱글거리는 저 재철은 언제까지건 병어리로 남아있을것이고 장신혁이 역시 그를 버력으로나 알고 스쳐보냈을것이다. 이 탄광지구는 나같은것들때문에 적들의 공세에 눌리워 허리를 펴지 못했을것이다. 그러나 이제 신심이 생긴다. 아, 생의 은인! 그늘없이 비

쳐드는 태양의 빛발!...

장신혁은 그이를 우러르며 멀리 백두산에서 비쳐오는 태양의 따스한 빛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재철의 손을 짹 잡으며 의미깊은 웃음을 지었다. ...

김정숙동지께서 북청을 향하여 초막을 떠나신것은 먼동이 푸름푸름 밝아오는 이른새벽이였다. 그이께서는 녀인과 재철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돌아보시며 손을 저어주시였다.

×

그로부터 얼마후, 신흥탄광의 로동계급은 강도 일제의 식민지적착취와 약탈에 맞서 또다시 총파업에 결기하였다. 그 앞장에는 재철이를 비롯한 사람들이, 어제날 버력돌마냥 굴러다니며 천대와 멸시를 당하던 버림받은 사람들이 서있었다.

##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을 형상하는 문학에서는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보여주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전사, 수령과 인민사이의 혈연적인 관계를 풍만한 생활로 펼쳐야 한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 문학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혁명전사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이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서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야 한다.》

## 빛과 열은 어디서

전 옥 진

여기엔  
한점 햇빛도 없다  
여기엔 다만  
정날끝에서 번쩍이는 불꽃과  
희미한 전등뿐

갱이 깊어갈수록  
빛과 열은 더 멀어지고  
푸른 숲 맑은 공기 유정한 새소리...  
불수도 들을수도 없는  
희천발전소 물길굴막장

돌천정에서는 쏘아지는 석수  
막아선 담벽에선 내어뿜는 물줄기  
적들과 총창을 맞댄 격전장마냥  
황포한 자연과의 격전장에  
어버이 우리 장군님 오셨어라

갱에 들어서신 장군님께  
지휘관들 우산을 펼쳐드리며  
석수같은 눈물 쏟으며 청을 드렸어라  
—장군님 아직은 위험합니다  
물길굴이 완공된 다음에 들어가보십시다

오히려 그들을 달래이시듯  
나는 완공된 갱을 보러 온것이 아니라  
갱속에서 일하는 병사들을 보고싶어 왔다고  
머리우에 펼쳐진 우산을  
조용히 거두게 하신 장군님

석수를 맞으시며 한자욱  
버럭을 뿜으시며 한자욱

석수에 젖은 희미한 전등아래  
석수에 야전복을 적시시며 찾으신  
물길굴의 한끝

전사들이 있고 인민들이 있는 곳엔  
이 땅의 한끝도 한달음에 가시고  
바다가초소도 지척인듯 찾으시며  
그것을 락으로 삼으시는 그 걸음으로  
여기 천척 지하물길굴을 찾으시였거니

어찌 물이 흘러 전기가 되고  
전기가 흘러 빛과 열이 되어  
이 땅의 한끝까지 밝히고 덥히며  
삶엔 만복을 주고  
자연엔 아름다움 준다더나

이 땅을 빛내이는 빛과 열을 위해  
어둠속 지하길을 앞장서 걸으시고  
이 땅에 빛과 열을 주기 위해  
찬비 눈비 석수를 달게 맞으시며  
현신의 길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

그이가 안아오신 빛이어서  
산천도 마음속에도 어둠이 없는 내 나라  
찬 석수 맞으시며 안아오신 열이어서  
언제나 화창한 봄날같은 내 나라

아, 이 땅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서 시작되고  
이 땅의 밝은 빛과 열은 어디서 오는지  
우리 너무도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 장군님을  
삶의 태양이라 부르는구나



## 참된 삶의 노래는 이렇게 태어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필가들은 현실체험을 잘하여야 합니다. 작품의 철학적인 종자도 현실에 있고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 형상의 원천도 현실에 있습니다.》

들끓는 현실은 명작창작의 풍만한 저수지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이 현실에 늘 나가보아야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느낄수 있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신심도 나날이 굳게 가질수 있다.

사람들이 오늘도 즐겨부르는 노래 《내 삶이 꽃피난 곳》도 한 인민군작가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체험을 진지하게 하는 과정에 창작한 명곡이다.

갓 창작의 길에 들어선 작가는 어느날 당에 대한 송가창작을 결심하고 밤을 새며 창작을 진행하였다.

깊은 사색속에 시어를 고르고 그러다 막힐 때엔 또 조선말사전들을 뒤지면서 하나하나 어휘를 찾아내어 드디어 가사를 창작해냈다.

그 가사가 바로 《내 삶은 어디서 시작됐는가》였다.

가사는 곧 합평회에 제출되였다. 그런데 합평회에서 책상우에서 고안해낸 작품, 다른 냄새가 풍기는 표절가사, 종자가 없는 도식적인 작품 등 혹독한 비평들이 제기되였다.

작가는 앞이 아득하였다.

이런 때 나이지속한 작가들이 경험을 들려주고 조언을 주면서 그에게 신심을 안겨주었다.

여기서 힘을 얻은 작가는 다시 배낭을 메고 생활체험의 길을 걸음걸음 이어나갔다.

우리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으로부터 철령,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청산리, 어촌 등으로...

실로 가는 곳마다에서 체험한 모든 사실들은 작가가 쓰는 《삶》이라는 주제의 가사에 종자를 굳혀주고 형상을 꽃피우는 자양으로 되였다.

작가는 자기가 체험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창작적환상을 불러일으키며 가사를 써나갔다.

하여 가사 1절에 보람찬 내 삶이 시작된 곳을 노래하면서 《금물결 설레는 들판을 지나 초소로 떠나던 동구길인가》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는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고전적로작에서 귀중한 명구를 찾기도 하고 《들끓는 건설장》, 《구내길》, 《값높이》, 《순간순간》 등 적중한 시어들을 만들고 다듬어 가사의 구절구절을 엮어나갔다.

몇달동안 생활체험을 하면서 고심어린 탐구로

수정이 아니라 다시 창작하여 합평회에 내놓은 가사는 드디어 집단의 지지를 받게 되였다.

즉시 작곡된 노래 《내 삶이 꽃피난 곳》은 녀성독창으로 형상되게 되였다.

그러던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노래를 보아주시고 3절 두번째 줄에 《자애론 당중앙 그 품이여라》라고 썼던 가사를 그으시고 《어머니당의 그 품이여라》로 친히 가필해주시였다.

작가는 《자애론 당중앙》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려 하였는데 장군님께서 《어머니당》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주시였다.

사실 이 대목은 송가작품의 종자이고 생명선이다.

손수 필을 드시고 통속적인 표현으로 일반화하여 당에 대한 송가로 완성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70(1981)년 10월 어느날 노래가 정서가 있고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만수대예술단에서 편곡을 다시 하여 관현악과 합창으로 형상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작품도 형상도 품위있게 완성된 가요 《내 삶이 꽃피난 곳》이 명곡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되였다.

보람찬 내 삶이 시작된 곳은  
고향집 어머니 그 품이런가  
금물결 설레는 들판을 지나  
초소로 떠나던 동구길인가  
아 영광의 대오속에  
이 몸을 세워준 그 품이여라

...

노래가 나가자 특히 청년들속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며 많이 불리웠다.

주체70(1981)년 10월 24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노래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노래 《내 삶이 꽃피난 곳》은 곡도 좋고 가사도 좋고 편곡도 잘하였다고, 대단히 훌륭한 노래이라고, 조선인민군협주단 작곡가가 노래 《내 삶이 꽃피난 곳》을 잘지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노래 《내 삶이 꽃피난 곳》은 가사가 좋다고, 가사가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형상적으로 된것이 좋다고, 가사가 형상적으로 되었기때문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고, 바로 가사는 들으면 많은것을 생각할수 있도록 써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더없이 만족하시여 이 노래를 지은 창작가들에게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었으며 문예총의 작가, 작곡가들의 감상으로 논회를 조직할데 대한 뜨거운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후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여러가지 형식으로 훌륭하게 형상하여 내보낼데 대한 구체적인 방도를 밝혀주시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대의 명곡이라고 높이 평가하

수 필

## 눈내리는 철의 도시에서

장 의 복

눈을 맞을 때의 사람의 감정이란 참으로 이상야릇하다. 더우기나 한해를 마감짓는 령마루에서 뒤를 돌아보며 눈을 맞을 때의 감정은 정말 감회롭다.

나는 지금 눈을 맞으면서 생각을 하고있다.

지나온 생활의 갈피들을 하나하나 번져보며 감회깊이 마음뭉클 떠올리는 하많은 이야기들...

계획했던 사업들과 실현한 일들, 꿈꾸었던 자식들의 희망과 기대, 취재길과 체험지에서 만났던 인상깊은 사람들...

뒤편뒤편해도 돌이켜보는 감정이 주도적이다.

나 역시 눈내리는 철의 도시의 구내길에서 창조의 위훈으로 보람참고 격동에 가슴벅찼던 올해에 이 김철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있다.

나는 올해에 김책제철련합기업소 2강철직장에서 현지체험의 나날을 보냈다. 여기 사람들은 흔히 둘강철 혹은 불강철이라고 부른다.

불을 다루는 사람들과 한동아리가 되어 함께 피를 끓이고 심장의 박동을 맞춰온 감회도 깊은 이해의 마감에 나는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호소문을 전국에 발표하던 이해의 첫 기슭으로 거슬러오른다.

철이 많아야 쌀도 기계도 사랑도 쏟아져나온다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하라고 김철로동계급을 대고조전투의 선봉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그 믿음을 안고 제철소가 끓어번지기 시작했다.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이는 정녕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과 의도를 온 나라 강산에 메아리치게 하는 크나큰 울림, 선군시대의 산 울림이었거니.

로동계급뿐이라, 온 철의 도시가 우리 장군님 현지지도의 그날 서계시던 강철직장의 구내길로 물밀듯이 밀려왔다.

이 구내길에서 나도 낯선 사람들과 많이 만났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낯익은 한 녀인을 만난적이 있었다. 그는 신발수리공이었다.

시였다.

그리하여 가요 《내 삶이 꽃피난 곳》은 주체시대가 낳은 명곡으로서 높은 전인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천만군민들속에서 더 큰 사랑을 받고있다.

김 명 일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의 집과 신발수리소가 30리 밖에 있다는걸 아는지라 놀랍고 호기심도 동했다.

《어떻게라니?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강철직장을 온 나라가 다 찾아오는데... 호호.》

녀인은 부드러운 웃음을 지으며 구내공원에 둘러앉아 신발수리기계를 돌리고있는 녀인들을 가리키는것이였다.

《로동자들의 작업신발을 수리해주려고 왔어요. 발이 날개란 말이 있지 않나요. ...》

어마어마하게 큰 제철소의 구내를 생활의 향기 넘쳐나는 아늑한 보금자리로 따뜻하게 보이게 하는 이들의 모습은 나의 가슴에 뜨거운 걱정을 그득 채워주었다.

귀맛 좋게 달걀거리는 신발수리기계소리는 몇 달사이에 이 구내에 펼쳐진 아름다운 생활과 사람들의 모습을 영화화면처럼 눈앞에 떠올렸다.

성의껏 준비한 지원물자를 자동차에 싣고 달려와 침식도 잊고 쇠물을 뽑고있는 로동자들의 손에 수저를 들려주고 호주머니마다 간식들을 넣어주던 철의 도시 사람들.

우리 장군님 아끼시는 로동자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멋쟁이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에 리발도 구를 펴놓고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던 이름모를 리발사녀인들.

로동자들의 건강은 자기들이 말했다며 피와 살을 바쳐 사경에 처했던 로동자를 다시 강철전선에 세워준 참된 의료일군들.

때로는 로동자들과 어울려 로벅돌도 나르고 땀 각판이 얼어 생산이 중단될수 있는 정황속에서는 저저마다 차디찬 판을 부둥켜안고 긴긴 겨울밤을 웃음과 노래로 태워버리던 고마운 사람들.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하여 심장을 불태우고 자기 삶의 자리도 그 길에서 찾는 이들을 정녕 지원자라고만 부를수 없었다. 전투장에 나선 전투원들과 꼭같았다.

경애하는 장군님 다녀가신 원호식련속조피작업반 명예반원이 된 영예군인들과 그 안해들의 가

슴에도, 노동자아저씨들이 쇠물꽃을 더 활짝 피워 아버지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려달라고 편지마다 부탁하던 소학교 학생들의 작은 가슴에도 오직 아버지장군님만 따르고 반들어갈 맹세가 용암이 되어 흐르고있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대와 함께 불비속을 헤쳐온 남강마을녀성들처럼, 인민군대와 한 전호에서 판가리결전을 벌린 어랑천인민들처럼 장군님을 따라 철의 도시 전체 인민이 강철전선에 나섰다.

하여 김철의 노동계급은 주체철용광로에서의 비폭스제철법에 완전성공하고 갈탄을 100% 리용하는 고속환원법에 의한 주체철생산체계를 확립하는 야금공업에서의 일대 혁명을 일으켜 10월의 대축전장에 년간계획완수자의 공지와 영예를 안고 당당히 들어섰다.

기적은 하늘이 가져다주는것도, 우연히 얻어지는것도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함으로써 온 세상에 당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우리 인민만이 이 위대한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다.

주체철이 사품치고 주체숨, 주체비료가 폭포

치고 하늘을 치뚫으며 만년언제가 솟아오르는 이런 기적들로 하여 인류의 리상향인 우리의 강성대국은 이 땅우에 거연히 일떠서고있는것이다.

기적과 변혁으로 들끓고있는 시대의 한복판과도 같은 김철의 구내길에 서서 노도와 같이 일떠선 천만군민의 모습을 나는 보았다.

눈이 내린다.

눈발에 가리우긴 했어도 나는 보고있다.

용해장이며 조괴장, 주체철용광로와 열간압연직장의 곳곳에서 강철증산으로 내닫는 김철의 노동계급의 활력에 넘친 모습을...

차관마다 철강재를 그득 싣고 기적소리를 울리며 희천으로, 대안으로,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철차의 장쾌한 모습을...

철의 도시 구내길마다에 눈이 내린다.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노도처럼 일떠선 천만군민의 뜨거운 자취를 보고 보고 또 보고싶어 하염없이 내린다.

영웅적위훈으로 자랑찬 한해를 보내며 새해에도 공격전의 맨 앞장에서 내달릴 김철의 노동계급의 불같은 맹세를 담아시고 송이송이 내린다.

철의 도시 하늘가에 영원히 피어있을 아름다운 불노을을 담아시고 붉은 눈이 내린다.

## 희 천 의 불 바 람

### 동 기 춘

희천이여

너의 계곡은 고요하였다

계절조차 조용히 왔다가는 오랜 세월

너의 산발은 숲에 묻혀 조용하고

너의 골짜기는 인적없는 물소리뿐

허나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이

강성대국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희천땅의 한 지점을 짚으시자

잠잠하던 너의 계곡엔

전번의 세찬 불바람이 터졌다

아직은 여기

타빈이 돌아가는 요란한 음향도

숲처럼 일떠선 송전탑도 송전선도

산중의 호수도 없다

그러나 여기

첫 발파의 폭음이 울리고

내려치는 함마에 불꽃이 튀길 때

너는 이미 수십만키로와트의 전기로

온 나라를 눈부시게 휩싸인지 않았더냐

나는 듣고있다

희천이 용쓰며 우뚝치는 소리를

조국의 병사들 일으키는

대미약 대혁신의 불바람

그것을 우리 장군님 희천속도라 명명하셨거니

우리 장군님

험한 산발에 초행길 내시며 걸으시고

석수 떨어지는 물길굴을 걸으실 때

희천이여 어찌 너의 가슴에서

변을 안은 폭풍이 터지지 않았으랴

희천속도라 일으키는 불바람은

우리 장군님의 의지에서 시작된

천만군민의 정신력의 폭발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숨의 폭풍

최첨단돌파의 CNC의 질풍

경공업과 농업전선에 일어번지는 열풍이었거니

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그날

희천속도의 불바람은

불이 되고 열이 되고 빛이 되어

수령님의 리상 장군님의 리상이 무엇인가를

온 세상에 눈부시게 펼쳐주리라



김도환

명남은 다리가 휘청거리고 전신이 물에 젖은 숨  
뭉치처럼 맥이 없었다. 눈앞에서는 간단없이 별꽃  
이 감돌았고 이따금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엇  
바뀌며 천길나락으로 변해버리는듯 하였다.

모두가 지칠대로 지쳤다. 땀을 어찌나 흘렸던지  
얼굴이며 목에는 소금발이 내뿜고 신발이며 바지  
가랭이는 본래의 모양을 가늠하기 어렵게 흠투성  
이로 되었다.

식량공작을 위해 새벽에 유격근거지를 떠난 소  
부대는 너무도 힘겨워 어느 산중에서 휴식하게 되  
었다.

삼복철이라 무더위를 피해 그들은 그늘이 짙은  
늪은 참나무밑에 자리를 잡았다. 바람이 선들거렸  
지만 누구도 시원한줄 몰랐다. 모두가 온몸이 녹  
작지근해서 앉자마자 털썩털썩 자리에 드러누워버  
렸다.

사실 몇달째 쌀 한알 구경 못하고 풀죽으로 끼  
니를 에워온 그들이었다.

수풀속에서 숨을 죽였던 풀벌레들이 다시 울어  
대기 시작하였다.

명남은 미풍에 살랑대며 이마를 간지럽히는 풀  
잎을 끊어서는 한끝을 입귀에 물고 질근질근 씹  
었다.

송이구름 한점 없는 파란 하늘이 웬일인지 아득  
하게 울려다보였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맥이 없  
었다. 온몸이 그대로 땅에 잣아드는것 같기도 하  
고 허공중에 둥둥 떠오르는것 같기도 했다.

명남은 어느 사이에 꿈속을 헤매이기 시작했다.

...악악 소리를 지르며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왜  
놈들이 탕탕 총을 쏘대고 불을 마구 질러대면  
서 미친듯이 날뛰고있었다.

시뻘건 땀의 허바닥같은 불길의 널름거리며 누  
렇게 익어가는 보리밭을 거뭇게 태웠고 풀썩 무

너지는 귀틀집에서 시꺼먼 연기가 타래쳐올랐다.

유격근거지에 대한 놈들의 《토벌》은 더욱 악  
착스러워졌고 봉쇄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었다.

그러나 처참즈근거지 인민들은 이 참화속에서도  
굶주림속에서도 승리를 철석같이 믿으며 하나같이  
굳게 뭉쳐 싸웠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총을 쏘았고 놈들의 머리우  
에 돌을 굴렸다.

랑랑히 울려퍼지는 아동단원들의 나팔소리, 노래소  
리, 인민혁명정부지붕우에 펄펄 나뭇기는 붉은기...

문득 하얀 이마에 손가락만 한 흠집이 있는 해  
쓱한 한 얼굴이 떠올랐다.

《명녀누나...》

명남은 입속으로 중얼거리었다.

뒤에서 보면 좁은 어깨가 꼭 소녀처럼 느껴지는  
그가 비틀거리며 고동하기슭으로 나가고있었다.  
허기증으로 눈앞이 빙그르르 돌아가는듯 팔썩 주  
저앉았다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겨우 몸  
을 가누면서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옆구리에 꼭 붙안고있는 쭈그러진 소꿉이에는  
여러가지 산나물이 들어있었다. 고사리, 곰취, 삽  
주, 둥굴레, 무수해, 도라지, 송곳나물, 뎀나물...

얼마나 생생히 떠오르는지 꿈이라고 믿어지지  
않을만큼 현실적이였다.

사실 며칠전 열차습격전투를 끝내고 근거지에  
돌아왔을 때 작식대에서 명녀와 같이 일하는 순  
덕어머니가 근심어린 어조로 말했었다.

《저는 그냥 굶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제 몫  
을 다 덜어주곤 하니 명녀가 영 말이 아니란다.  
피기가 싹 가서져 얼굴이 하얗다못해 파랗게 되  
였구나. 입술은 조갈이 들어 터갈라졌지. 저러다  
가 쓰러지지 않겠는지 걱정이다.》

《누나가 어디 있어요?》

《내가에 산나물 씻으러 갔을게다.》

명남은 허둥지둥 고동하기슴으로 달려갔다.

《명녀누나!》

명남은 소리쳐부르며 뛰어갔다. 명녀는 돌아보는것조차 힘겨운듯 겨우 얼굴을 돌렸다.

그는 명남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영양실조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참만에야 알아본듯 해쓷해진 얼굴에 가냘픈 미소를 지었다. 이전에는 밝게 웃던 그였지만 지금은 웃으면 한쪽 볼편이 어색하게 펴며 좀 작아진 왼쪽눈에 인차 물기가 어리곤 하였다. 그 웃음은 명남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명남... 이구나.》

속삭임마냥 가느다란 목소리였다. 불현듯 명녀는 쓰러지듯이 곁에 늘어진 버드나무가지를 붙잡으며 눈을 꼭 감았다. 연약한 버드나무가지는 그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운듯 휘청거리며 하늘에 뻗은 가지들을 구슬프게 흔들었다.

《누나!》

명남은 황급히 그를 부축하며 허둥거렸다.

이윽하여 정신을 차린 명녀는 식은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말했다.

《아직 식전이겠구나?》

그 지경이 되어가지고도 명남의 걱정이다.

《아, 아니... 먹었어요.》

《먹긴 어디서 먹었겠니? 내 이제 이것을...》

그는 소랭이에 담겨진 산나물을 내려다보았다.

《됐어요! 자긴 그냥 굶기만 하면서...》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진 명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명남의 가슴은 찢기는듯 했다.

명남은 부랴부랴 메고있던 배낭을 내려 그속에서 비상미주머니를 꺼냈다. 거기에는 한홉가량의 통강냉이가 들어있었다.

《누나, 이걸 받아.》

명녀는 와플 놀라며 부르짖었다.

《이건 비상미가 아니냐?!》

명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안돼! 비상미를 어떻게...》

명녀는 두손으로 비상미주머니를 밀막으며 도리질하였다.

《지금 누나정상이 어떤줄 알아? 이제 그러다가...》

명남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머니를 명녀에게 내밀며 격해서 말했다.

《이런 때 쓰라는 비상미예요!》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일없어.》

명녀는 한사코 비상미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받아, 받으라는데!》

《안돼, 그건 안돼!》

그들은 한참동안 서로 밀고 막으며 싱갱이질을 하였다.

명남은 성이 나서 우격다짐으로 그의 가슴에 비

상미를 안겨주고는 달아났다.

뒤에서 안타까움에 찬 명녀의 목소리가 그냥 들려왔다.

《명남아, 명남아, 이걸 도루 가져가. 가져가란데, 응. 넌 이제 또 싸움터에 나가야지 않니?—》

명남은 멈춰서지 않고 머리만 돌리고 웨쳤다.

《누나! 내 걱정은 말아. 빨리 그걸 먹고 원기를 돋구라요!—》

《명남아!—》

...

명녀의 안타까운 부름소리가 너무도 귀가에 쟁쟁히 울려 명남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앉았다.

그때 쓰러지듯이 누워버린 대원들을 무거운 얼굴로 돌아보던 소부대책임자가 소랭이가 매달린 배낭을 멘 대원에게 말했다.

《불을 피우고 작식준비를 하오.》

그 말소리에 누워있던 대원들이 하나, 둘 일어났다.

작식준비라니? 식량이라고는 한 알갱이도 없다는것을 다 알고있는데 무엇으로 작식을 한단 말인가. 혹시 책임자의 배낭에는 비상식량이 몇줌이라도 있는것이 아닐가.

작식을 맡은 대원이 불을 피우고 소랭이에 물을 담아 올려놓자 책임자는 자기 배낭속에 손을 넣었다.

모두의 기대어린 눈길이 그의 손으로 겨누어졌다.

그러나 눈길들에는 곧 실망이 비꼰다. 배낭속을 더듬다가 나오는 그의 손에는 훌쭉한 비상미주머니 아니, 완전히 텅 빈 비상미주머니가 쥐여있었던것이다.

그렇수밖에 그의 비상미주머니에 남은것이 있을 리 없었다. 유격대에서는 제일먼저 동나는것이 지휘관의 비상미주머니였고 제일 많이 굶는것이 지휘관이었던것이다.

그러나 소부대책임자는 마치 주머니에 비상미가 가득차있기라도 한듯 주머니를 풀고 불우에서 김을 올리기 시작하는 소랭이에 대고 간간히 털었다. 거동으로 봐서는 한되박이라도 털어넣는듯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품을 들어 꼼꼼히 털고나서 대원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비상미주머니를 꺼내여 여기에 대고 터오. 낱알찝질이라도 있겠지. 이제 강행군을 하고 식량로획전투를 하려면 우리는 힘을 돋구어야 하오.》

낱알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물을 마시고 힘을 내야 한다는 말이였다.

모두들 빈 비상미주머니를 꺼내여 소랭이에 대고 털었다. 어느 주머니에서나 먼지에 가까운것만 얼마간 떨어질뿐이였다.

《에쿠, 강냉이가 두알이 남아있었군!》 하고 누군가 환성을 올리자 다른 대원이 《도무지 두알?

이것 보게. 나한텐 원알도 넘게 있어!》하고 큰소리를 친다.

모두들 놀래여서 지켜보는데 그의 주머니에서 실상 나오는것은 겨우 반손가락정도 되는 좁쌀알이어서 일동의 웃음을 자아냈다.

명남은 그 웃음에 어느 사이 흥그러운 기분이 되어 배낭아구리를 풀었다. 자기의 배낭속에는 비상미주머니조차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으나 배낭을 풀었다. 혹시 배낭밑바닥에 강냉이 몇알이라도 있을지 어찌 알랴. 지금은 강냉이 한알, 좁쌀 한알이 그 무엇보다 더 귀중한것이 아니라.

배낭에 손을 집어넣던 그는 이상한 감촉에 깜짝 놀랐다. 이게 무언가. 손에는 비상미주머니 같은 것이 부딪혔던것이다.

《?!》

그는 배낭아구리를 활짝 제졌다. 그러자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배낭속에는 그가 틀림없이 명녀누나에게 주었던 비상미주머니가 고스란히 들어있는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도로 배낭속에 들어와있을가.

하기는 의심할것도 모를것도 없었다. 명녀누나가 그의 배낭에 도로 넣어주었을것이였다. 언제 넣었을가.

문득 출발을 앞두고 나무밑에 앉아 졸고있다가 인기척에 눈을 떴을 때 저쪽에서 바빠 사라지던 명녀누나의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 몰래 넣어준것이 분명했다.

《아, 누나!》

해쓱한 얼굴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모습이 되살아나며 가슴을 찌르는듯 아프게 했다.

떨리는 손으로 비상미주머니를 끄집어내던 그는 다시한번 놀랐다. 자기 눈을 의심하기까지 했다. 그밑에 또 하나의 비상미주머니가 있었던것이다. 꽃무늬가 있는 빨간 천으로 만든 비상미주머니였다. 처음 보는 주머니였다. 이런게 어떻게 자기 배낭안에 들어갔을가. 그는 마치 남의 배낭안에서 꺼내듯 조심스레 그것을 꺼내들었다.

바삭바삭하는 감촉과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 미시가루라는것을 보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어떻게... 누가 넣었을가?... 명녀누나가?... 아니, 너무나 허기져 제대로 걸지도 못하던 그에게는 이런 비상식량이 있을수가 없었다. 미시가루가 아니라 난알껍질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되었을리 없다. 그리고 명녀누나에게는 이런 비상미주머니가 없었다. 이걸 틀림없이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것이다.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명남이!》

하는 부름에야 명남은 자기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러자 자기 주위에 모여서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내려다보고있는 동무들을 보았다.

《동무배낭속엔 식량창고가 있는게 아니야?!》

명남은 더듬더듬 비상미주머니가 두개나 배낭속에서 나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다. 말을 끝냈을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이야기를 들은 대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어렸다. 누구도 비상미주머니에 선뜻 손을 대지 못했다.

소부대책임자가 저으기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들, 근거리인민들은 이렇게 자기들은 굶주려 쓰러지면서도 우리가 왜놈들과 잘 싸워주기만을 바라고있소. 이것은 우리에게 자기들의 생명을 넘겨준것이나 같소. 우리 인민들의 그 마음이 담긴 이 비상미로 힘을 돋구어 빨리 전투장으로 떠납시다.

명남동무는 식량공작을 마치고 돌아오면 명녀동무에게 그 비상미주머니에 강냉이가 아니라 흰쌀을 가득 채워서 돌려주시요. 그리고 다른 비상미주머니에도 쌀을 채워 꼭 주인을 찾아 돌려주시요.》

그리하여 두개의 비상미주머니안의것은 마침내 소랭이에서 끓고있는 물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그러자 또 한번 놀라와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강냉이도 그저 강냉이가 아니야. 강낭쌀이 구만.》

《이게 강냉인가, 쌀이지! 명녀동무의 솜씨가 달라!》

명남은 또다시 목이 메여올랐다. 명녀누나는 그가 준 통강냉이를 한알도 다치지 않고 강낭쌀로 만들어 넣어준것이였다. ...

맹물만 끓던 소랭이에서는 구수한 난알냄새가 피여올랐다.

두세 줍의 강낭쌀과 미시가루를 두고 끓인것은 죽이 아니라 미음에 가까웠고 한사람에게 한공기 씹이나 겨우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류달리 즐겁고 흥겨운 분위기속에서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명녀에 대한 생각에 잠겨있었다.

지난날 명녀와 한고장에서 살았다는 박동무는 그의 이마에 난 흠집을 두고 말했다.

《지주집 부엌데기로 일할 때 생긴 흠집이지요. 너무 배고파 부엌에서 몇알 안되는 콩을 불에 굴리는데 그걸 본 지주녀편네가 생야단을 치면서 단부지깅이로 이마를 내려쳤다는거요. 원한의 흠집이지요.》

책임자 김동무도 말했다.

《왜놈들에게 랑부모를 잃고 근거지에 들어와서 비로소 명녀라는 이름을 가졌지. 그저 부엌데기로만 불리웠는데... 밝은 세상에서 새롭게 태어난 녀성이라는 뜻이지요.》

그에 대해서는 명남이도 잘 알고있었다. 명남이 자신도 한때 어린 나이에 머슴살이를 하면서 외양쇠라고 불리웠는데 근거지에 들어와서 명남이라는 새 이름을 가졌던것이다.

그런 연고로 해서 더욱 명녀를 친누나처럼 따르게 된 명남이었다.

《출발!》

책임자의 힘찬 구령소리에 모두가 힘있게 발걸음을 내디뎠다.

온몸에 백배로 힘이 솟구쳐오르는것 같았다. 그것은 근거리인민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안겨준 힘이였다. ...

그들은 질풍같이 내달려 그날 밤 번개같이 적을 죽치고 식량공작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귀로에 오르게 되었다.

무거운 쌀배낭을 메고 근거지로 돌아오는 명남의 발걸음은 날개라도 돌힌듯 가벼웠다.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는듯 산까치도 즐겁게 우짚었다.

명남은 돌아가면 명녀를 만나서 비상미를 얼마나 요긴하게 썼는가 인사를 하고 하나의 비상미주머니가 더 생겨난 수수께끼를 꼭 풀어보리라 마음먹었다. 명녀누나는 그 비상미주머니가 누구의 것인지 알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 수수께끼를 풀수가 없었다.

작식대 순덕어머니가 명녀를 찾는 명남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명년 없네, 없어. 싸우는 고지에 죽가마를 이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쓰러진 후 더는 일어나지 못했네.》

명남은 억이 막혀 잠시후에야 물었다.

《왜놈들의 흉탄에 맞았어요?》

《아니.》 순덕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다.

《죽가마곁에 쓰러져있는데 부상당한 자리는 전혀 없었어. 그런데도 숨이 켜더구만. ...》

그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흐느꼈다.

명남의 가슴은 칼로 도려내는듯 했다. 죽가마를 곁에 두고 굶주림으로 숨진것이였다. 전우들의 식사를 보장하려고... 아 누나, 왜 죽물을 한순같이 라도 들지 않고 그렇게 갔소?

《싸움이 끝난 후에도 누구도 그 죽을 먹지 못했네, 목이 메어서...》

명남의 목도 짝 메어올랐다. 짝 감은 두눈에서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렇게 가다니... 죽가마를 옆에 두고 ... 한순갈이라도 들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걸. ...》

그러나 명남은 순덕어머니라도 그렇게 했을것이며 자기도 역시 그렇게 했으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아니, 근거리사람들은 누구나 다, 유격대원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것이였다. ...

×

그때로부터 십여년세월이 지난 해방된 조국땅, 위대한 장군님의 건국로선을 받들고 각 도에 나가

사업하던 투사들이 평양 해방산숙소에 올라와 며칠 묵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반갑게 만나서 그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나간 일들을 추억하기도 하였다.

어느날 점심시간이였다.

유격대시절 중대정치지도원이였던 김삼덕이 얼굴에 추연한 빛을 띠며 말했다.

《이렇게 해방된 조국땅에서 음식상을 마주하고 보니 근거리에서 식량고생을 하던 때 일이 떠오르는구만. 정말 그때 처창즈에서 식량고생을 무척도 많이 했지.》

투사들은 그가 왜 식사중에 지난날을 추억하는지 알고도 남았다.

사실 그들도 식사를 하면서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있었던것이다.

해방된 오늘 고생하던 지난날을 더욱 잊을수 없는 그들이였다.

명남의 눈앞에도 처창즈근거리에서 겪었던 가지가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보기에도 처참했던 산과 강, 삶아먹던 개구리알, 우려먹던 도로기...

이마에 흠집이 있는 명녀의 험쭉한 얼굴이 다시금 떠올랐다. 산나물이 들어있는 그릇을 옆에 끼고 비칠거리며 고동하기슭으로 걸어나가던 명녀누나, 비상미주머니를 받지 않으려고 떠밀던 명녀의 창백한 얼굴, 눈물이 가랑가랑해 애원하듯 말하던 명녀의 목소리...

《명남이, 그러지 마. 체발... 나는 배가 고파도 얼마든지 참을수 있지만 동무들이 배끓는건 차마 못 보겠어. ...》

(아, 명녀누나!... 비상미주머니!)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때없이 떠오르는 명녀누나, 그에 뒤따라 떠오르는 비상미주머니, 주인을 찾지 못한 그 비상미주머니는 지금도 그의 배낭속에 귀중히 간직되어있었다.

(정말 그 비상미주머니는 누구의것이였을까?)

십여년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수수께끼는 명남의 가슴속에 의문부호로 걸려있었다.

삼덕이 말을 이었다.

《그때 처창즈근거리에선 녀자들이 더 고통을 겪었지. 녀인들은 주변산속의 산나물은 다 뜯고 멀리 100여리 떨어진 수림속까지 찾아다녔지. 허기진 배를 부여안고 나물을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매느라니 얼마나 힘들었겠소.》

그때 밀림속에서 만난 한 처녀가 지금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는구만. 한 처녀가 산나물바구니를 안은채 쓰러져있지 않았겠소? 너무도 굶주려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퉁퉁 붓기까지 했더군. 다행히도 아직 숨결이 있었고 소리쳐부르니 겨우 눈을 뜨더군. 처창즈에서 왔다는걸세. 그대로 두면 그 자리

에서 숨져버릴것 같더구만. 그래서 배낭속에서, 마침 비상용미시가루가 한홉가량 있었다네. 비상미주머니를 쥐어주었지. 받으려고 할게 뭐가. 그런 걸 억지로 쥐어주고 그곳을 떠났지. 대오를 따라 가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곳을 떠난 후에야 그때 내 손으로 미시가루를 물에 타서 먹여주지 못한게 마음에 걸리더란 말일세. 그때 근처지인민들이 강냉이 한알이 생겨도 제 입에 넣을 생각을 했나. 녀자들은 더 했지. 꼭 그 처녀가 내가 준 미시가루를 그냥 가지고가다가 영영 쓰러져버렸을것 같더란 말일세. 지금도 난 그게 마음에 걸린다니까. 그런 정상이 되어서도 비상미주머니를 받지 않으려고 하던 그 얼굴과 간절한 눈빛이 생생히 떠오르면서 말일세.》

명남은 피땀 뇌리를 치는 생각에 상반신을 일으키며 다우쳐물었다.

《혹시 그 처녀의 이마에 흠집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마에 흠집이?... 글썄... 가만, 흠집이 있었던것 같아. 눈앞에 삼삼히 떠오르는군. 분명 이마에 흠집이 있었소. 그러니... 명남동무가 아는지녀요?》

명남은 대답대신 배낭을 끌어당겨 풀었다. 그리고 맨밑에서 착착 접어넣었던 비상미주머니를 꺼냈다.

《이게 혹시 그때 그 미시가루주머니가 아닙니까?》

《어영?!》

삼덕은 눈이 휘둥그래지며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그는 비상미주머니를 몇번이나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며 보다가 명남에게로 와락 다가앉았다.

《이 주머니가 어떻게 동무한테 있소?》

명남은 그의 손을 와락 잡았다.

《그러니 삼덕동지가 비상미주머니주인이었군요!》

《이건 내가 유격대에 입대하는 날 안해가 집에 한채밖에 없는 이불을 뜯어 만들어준거요. 그 처녀 그래, 어떻게 됐소?》

하던 삼덕의 얼굴이 흐려졌다.

《이 비상미주머니가 동무한테 있게 되었으니...》

명남은 비상미주머니에 담겨있는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다시 목이 메어올랐다. 식량공작 나가던 길에서 전우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처럼 저절로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 명녀누나!)

그의 귀전에 또다시 명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명남이, 그러지 마. 제발... 나는 배가 고파도 얼마든지 참을수 있지만 동무들이 배굶는건 차마 못 보겠어. 가슴이 빠작빠작 타들어!》

아, 명녀누나!... 이야기를 듣는 동지들의 눈에도 모두 눈물이 어렸다.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한 동지가 분위기를 돌리려는듯 한마디 하였다.

《그러니 명남동문 십여년만에 비로소 가슴속에 걸려있던 수수께끼를 풀었구만.》

삼덕이 들고있던 비상미주머니를 명남에게로 내밀었다.

《이 주머니는 명남동무가 가지고있소. 이 주머니의 입자는 내가 아니라 명녀라는 그 처녀요. 우리를 위해 자기의 젊은 목숨을 바친...》

하고 그는 모두에게 말했다.

《동무들, 우리 인민들은 바로 그런 인민이요.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 인민을 믿고 혁명을 하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신거요. 식사들을 합시다. 그리고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장군님의 구상을 실현하러 다시 떠납시다.》

모두들 간소한 점심상에 둘러앉았다. 그러나 선뜻 수저를 들지 못했다. 못 잊을 추억들로 목이 메어와서였다. ...

## 상 식

### 다양한 정서생활을 하는것이 좋다

뇌수의 신경세포는 100억~150억개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뇌신경세포는 머리를 쓰면 쓸수록 수명이 길어질뿐아니라 되살아나기도 한다.

하지만 무서운것은 머리를 쓰지 않으면 더 많은 량의 세포가 죽어없어지는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일만 하고 다양한 정서생활에 관심이 적은 사람은 뇌수의 신경세포가 일면적으로 리용

되기때문에 늘고있는 신경세포가 많아지며 따라서 뇌수의 활동이 굳어지고 뇌수가 빨리 늙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리해가 부족하여 감정이 메달라지고 인간성도 부족해진다. 때문에 뇌신경세포를 고르롭게 쓰도록 하며 늘고있는 신경세포가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자기의 기본혁명과업에 전력하는 한편 다방면적인 정서생활을 하여야 한다.

책읽기와 노래감상, 영화감상, 견학, 들놀이 등 다양한 정서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늘고있는 신경세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사색과 열정의 산물 — 참된 지성의 경마루에서

— 시초 《미래가 보이는 언덕에서》를 두고 —

한 미영

어제는 화학공업의 자동조종에서 높은 수준인 DCS체계가 우리 식으로 개발도입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더니 오늘은 CNC공작기계기술에서 가장 앞선 단계에 이른 새형의 9축선삭가공중심반을 개발하는데 성공한 최첨단돌과의 새 경사의 소식이 온 나라를 흥분케 하고있다.

주체라고 불리우는 련이은 기적들!

누구의 가슴에나 휘몰아치는 최첨단돌과열풍!

우리 시인들앞에는 지식인들이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고무추동하여야 할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가 높은 지성세계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잘 형상한 작품은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고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화시킬수 있다.》

내 조국의 수도 한복판 남산재언덕에 네귀를 건듯 들고 높이 솟은 인민대학습당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인류지성의 참다운 보금자리이다.

시초 《미래가 보이는 언덕에서》 [허수산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8(2009)년 9호] 는 그 제목이 시사하는바와 같이 인민대학습당을 선군조선의 찬란한 래일이 바라보이는 언덕으로 궁지높이 노래하면서 그 래일앞에 걸머진 지식인의 량심과 사명을 심오히 깨우친 의의있는 작품이다.

8편의 시들이 묶여진 하나의 시조를 펼치면서 우리는 강성대국의 래일을 오늘의 산 현실로 느끼는 것과 동시에 사색과 열정으로 충만된 시인의 양양된 정신세계와 세련된 지성미를 본다.

## 평범한 순간들에 대한 시인의 안목

시를 어디서 찾을것인가.

시를 어느 순간부터 시작할것인가.

시상문제, 시적계기문제는 시의 출발을 알리는 것과 동시에 시의 전반을 예상하므로 자못 심중하다.

일반적으로 시적인 상이 떠오르는 순간을 시적계기라고 한다. 시적계기는 강한 정서적충동을 주는 어떤 구체적인 순간 (정몽환의 시 《새들은 숲으로 간다》)일수도 있고 오랜 나날 쌓아오던 어떠한 감정이 최대로 축적되어서 드디어 터져오르

는 순간 (김상오의 시 《나의 조국》)일수도 있다.

시의 결면에 직접 제시되는 시적계기(김철의 시 《더 쓰지 못한 시》)가 있는가 하면 내부적인 체험의 폭발로 하여 시결면에 내보여지지 않는 시적계기(정서촌의 시 《조선》)도 있다.

훌륭한 시적계기를 위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상치 못하게 여기는 순간들에서 새롭고 특색있는 의미를 찾아낼 줄 아는 시인의 남다른 시적안목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하나나 열을 체험할 때 그 하나에서 백, 천을 진지하게 체험하는 지성적사고력이 요구된다.

시초 《미래가 보이는 언덕에서》를 쓰면서 시인은 시적계기를 둘러싼 이러한 형상적요구들에 충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한생 교단에서 시를 가르친 로교수—시인은 인민대학습당에 흐르는 평범한 순간순간을 남다르게 포착함과 동시에 인민대학습당을 두고 오랜 나날 축적해온 내부적체험세계를 강렬히 터뜨렸다.

이 시초의 시적계기면에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시하는것은 시인이 그 어떤 특정의 순간을 노린다거나 혹은 강한 흥분감을 즉시에 불러일으키는 뜻밖의 사건, 사실, 정황을 찾아 분주히 오가지 않고 오히려 침착하여 평범한 순간들을 유심히 체험한 바로 그것이다.

평범한 순간들— 그것은 어떤 순간들인가.

우선 맨먼저 시인은 《나의 자리》에 가앉는다.

인민대학습당의 1층 3호실, 햇빛 잘 드는 창문 옆 두번째줄 가운데— 그것이 시인의 자리이다. 시인뿐 아니라 인민대학습당의 단골독자들은 저마다 이런 자리, 즉 《나의 자리》들을 가진다.

그다음 시인은 교요속에 책을 읽는다. 시인뿐 아니라 독자라면 누구나 다 지키는 도덕이고 애초부터 교요란 더 말할나위없이 인민대학습당에 지당한 정숙이다.

그다음은 휴식 또 그다음은 인민대학습당을 보러 온 참관자들로 하여 잠시 깨여지는 교요, 그다음은 방학없는 대학, 또...

이것이 인민대학습당의 하루이고 한해이다.

그가 인민대학습당의 독자라면 누구나 공기나 물처럼 흔히 체험하는 평범한 순간들, 너무나 평범하고 레사로운 순간들의 끝없는 반복이어서 여기서 시가 나오리라 고는 사실... 믿기도 어려울 형편이다.

그러나...

그렇다.

우리의 로시인은 여기서 시를 찾았다.

얼마나 고마운 자리인가. 지난날 광산광부의 아들을 나라의 지식인으로 키워준 자리, 누구라없이 직업과 재산여부도 묻지 않고 선뜻 앉혀주는 은혜로운 자리, 누구나 나의 자리라고 당당히 앉을 수 있는 아, 고마운 사랑이 고여주는 금방석!

그리고 얼마나 의미깊은 고요인가. 여기에는 사나운 눈보라도 없고 삼복철무더위도 없고 오직 고요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듯, 그러나 고요 속에 묻힌 사람들의 가슴속에서는 눈보라와 무더위가 휘몰고 (그것은 우리 장군님 헤쳐가신 그 눈보라, 삼복더위) 지식은 광명, 무식은 암흑이라는 철리가 메아리치고 새로운 발명의 소리들, 새로운 인재들이 태어나는 소리들이 장엄히 울린다.

《흰머리와 검은 머리》에서 시인은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어울린중에서 흰머리가 적고 검은 머리가 더 많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

내가 가본

어떤 나라에서는

청년들 돈밖에 모르고

저녁노을 퍼지기 바쁘게

유홍장으로 달려가진만

여기 내 나라에선

대학생청년들로

열람실의 자리가 모자라는구나

검은 머리 젊은이들 많아

머리 흰 세대의 마음 흥그럽구나

...

이 역시 평범한 순간에서 확대해본 인민대학습당의 장관이다.

시 《방학없는 〈대학〉》은 그보다 훨씬 더 의미심장하다.

《내 일하던 대학에도/방학이 있고/온 나라의 배움터들에/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어도》인민대학습당에는 방학이 없다.

...

일요일에도

나는 온다 여기에

하루공부하고 나서면

그것은 정서생활이고

그것은 곧 큰힘이구나

...

그 어떤 사나운 바람이 불어도

너는 언제나 열려있으리

너의 품속에서 자란 인재들로

나라는 더욱 흥성이리라

조국의 미래는 더욱 찬란하리라

나아가서 시 《여기에 나의 저서도 있다》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구상하시는 내 조국의 전망도에 점 하나, 선 하나 보태지 못하는 그런 지식인이 앉을 자리가 여기에는 없음을, 인류지성의 성스런 보물고인 여기 인민대학습당서가에 자기의 저작을 꽂아넣은 사람만이 한생의 언덕에 당당히 오를수 있음을 심오히 깨우친다.

이러한 시적계기들이 축적되고 서로 편결되는 과정에 서정의 발생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시 《노래를 드린다》에서 그 절정이 후련히 보인다.

...

그렇더라 조국은

인재를 체일로 귀하게 여기는 나라

오늘보다 미래를

더 귀중히 여기는 나라

...

너는 진정 우리 수령님

인민에게 주신 사랑중의 사랑

우리 장군님

우리 인민에게 준 선물중의 선물

...

이는 진정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 사회주의의 품속에서 나라의 어엿한 지식인으로 성장한 시인—로교수만의 감격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지식인들, 이 나라의 모든 평범한 공민들이 아뢰이는 심장의 웨침이다.

공민의 감격, 공민의 량심...

인민대학습당에 흐르는 평범한 순간순간을 세부적으로 고찰하고 조리있게 엮어나간 결과로 이 시초는 단순히 시적계기의 측면에서뿐아니라 서정구조의 측면에서도 치밀히 짜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순간 또 한순간.

한편 또 한편.

한뫼음의 시초를 쓰기 위해 한생을 인민대학습당의 독자로 산 시인의 사색적인 얼굴을 그려 본다.

그가 시를 쓰기 위해서 인민대학습당을 오고갔던가. 아니, 그는 평생을 다 바쳐 우리 장군님과 시대가 바라는 참된 지식인이 되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단골독자가 되었다.

그가 시 《흰머리와 검은 머리》에서 무수한 검은 머리들을 보며 그리도 감회에 젖는것은 이런 의젓한 제자들을 무수히 키우는것이 우리 장군님앞에 지닌 이 나라 대학교원들의 신성한 의무일진대 그 미래를 오늘의 현실에서 보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 로교수는 마침내 평범한 독자로부터 시인이 될 권리를 가졌다.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리고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숨... 미처 손꼽지 못할 최첨단을 돌파했으며 그 보폭으로 강성대국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는 우리 지식인들의 장한 모습을 보고 그를 통하여 내 조국의 미래를 본 이것이 정녕 시인것이다. 때문에 이 시의 시적제기에 대해 논할 때 우리는 기발하다거나 재치있다거나 하는 류로 평하지 않는다.

대학교수다운 이성적사고력을 가지고 높은 지성 세계에서 현실을 분석하여 평범한 순간들이 지닌 철학을 의미심장하게 밝힌 여기에 이 시의 진정한 매력이 있다.

어떤 각도, 어떤 심도에서 현실을 보는가에 따라 평범한 순간들이 시로 전환될수도 있고 그저 범박히 꺼질수도 있다.

사실 선군시대의 우리의 모든 평범한 순간들은 시로 될 가치를 이미 가지고있다.

문제는 그를 대하는 시인의 정신적높이에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작가가 높은 지성세계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잘 형상한 작품은 사상에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를수 있고 사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감화시킬수 있다.

평범한 순간들에 기울인 시인의 사색을 가늠하면서 우리는 비상한, 극적인, 경이적인 순간들에 쉽게 매혹되기보다는 평범한 생활의 밑바탕에 흐르는 진리를 노래하고자 애쓴 시인의 자세에 공감한다.

### 인민대학습당풍경소묘에 대해 간단히...

이 시초에는 인민대학습당특유의 고유한 서정이 강하게 풍긴다. 시초의 곳곳에는 인민대학습당에 깊이 습배인 환경, 질서, 습관 등이 세부적으로 선택되고 역시 세부적으로 형상되어있다.

《책냄새특유의 수백의 열람실들》, 《키높은 서가》들, 《책속에 묻히고》, 《바늘떨어지는 소리도 들리는 교묘》, 《흰머리와 검은 머리가 섞인 장관, 인민대학습당의 《창문을 적시는 듯 한》 《만수대에술극장의 천만분수》.

시 《손님도 꽤 많군》에서 련속 울리는 사진

기사타누르는 소리, 감탄하는 소리 (이는 분명 고요를 깨치고 긴장한 사색을 형크는 소음이나 불쾌할 대신 오히려 흐뭇하다, 마치 아름다운 노래소리인양.)

거기에 《봄비던 독자식당》의 《시원한 국수발》이며 《단골독자》, 나아가서 《너를 배경으로 한 주석단》에서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인민에게 환호를 보내시고 《장엄한 열병대오의 발구름소리》는 《너의 창문에 먼저 와 부딪친다》는 형상적세부들.

마치 제집에 들어선듯 한 독자의 스스럼없는 눈빛이며 편안한 앓음새, 옥류관국수를 마주한듯한 흥성한 기분이며 집구경 온 손님의 편이은 감탄을 기쁘게 듣는 주인의 심정이며를 방불히 그려보이는 이러한 세부적형상들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이는 인민대학습당풍경소묘이다.

매 시적대상에는 오직 그에만 고유한 선과 색이 있다. 이 선과 색을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사실주의적필치로 그려내야 시적대상의 원색을 살릴수 있다.

시인의 그 어떤 강렬한 주장도, 또 그 어떤 시적상상도 이러한 세부적형상을 떠나서는 진실성을 가질수 없다.

이 시초의 경우에 시인은 인민대학습당고유의 원색을 잘 그려주면서 여기에 심오한 지성적사색을 깃들여 인민대학습당이 지닌 철학적무게를 진실하게 밝히었다.

×

하나의 시초를 두고 두가지 문제를 논하였다. 평범한 순간들에 대한 시인의 남다른 안목문제, 시적대상에 대한 세부적형상문제였다.

세련된 운물이라든가, 시적어휘라든가 하는 등은 이 평론에서 논하지 않았다.

시의 완성이란 생각과는 달리 멀리에 있기때문이다.

우리모두가 한결같은 심정으로 사랑하고 제집인듯 여기는 인민대학습당에 대하여 진정한 시편들을 묶은 시인의 노력은 평가할만 하다. 그리고 이 시초를 통하여 시의 원론을 이루는중의 두가지문제에 대해 다시금 깊이 돌이키게 되었다는 그것이 또한 중요하다.

시에 대한 교수의 사색은 계속되며 또 그의 창작도 계속된다.

왜냐면 사색과 열정의 산물— 참된 지성의 령마루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리키신 주체101(2012)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지식인의 길, 시인의 길에는 순간의 휴식도 없어야 하기때문이다.

# 불빛 찬연한 거리에서

최 성 진

멀리 북관땅에서 평양출장을 온 친구가 우리 집에 들러 한창 즐거운 해후를 나누던 끝에 싱글싱글 웃으며 《이보게, 오늘 밤은 밖에 나가 나와 함께 한껏 취해보자구.》 하고 말했다.

나는 영문을 몰라 눈을 등그렇게 떴다.

방금 식사하면서 맥주까지 마셨는데 무슨 취하는 소리인가?

어쨌든 우리는 수도의 밤거리에 나섰다.

늦은 저녁이지만 거리는 사람들로 붐비고있었다.

평양의 거리거리는 아름다운 불의 세계였다. 어디에나 불빛이 찬연하여 도무지 밤이라는 느낌이 없었다.

우리는 주체사상탑의 봉화가 하늘을 밝히며 타오르는 대동강반에 서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오래동안 수도에서 살아오면서도 우리 평양이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도시인 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새삼스럽게 느끼곤 한다.

하늘에는 땅우의 불빛의 화광인양 밝은 빛이 서리었는데 붉고 푸른 불빛이 물결우에 실려 어룡거리는 대동강너머에는 황홀한 꿈세계마냥 눈부신 불빛에 싸인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있었다.

**김일성**광장너머 인민대학습당은 빛속에 싸여 찬란한 웅자를 드러내고있는가 하면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대극장의 합각지붕들은 환상의 세계를 향해 나래쳐오르는 학무리의 하얀 날개를 편상케 했다.

장대재언덕우의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이채로운 불장식으로 하여 마치 하늘가에 둥실 떠오르는듯 하였고 대동강의 고요한 물결우에 두둥실 떠가는 듯 한 옥류관은 동화속의 한적의 아름다운 배와도 같았다.

《평양의 밤은 정말 아름답구만! 평양의 밤에 대한 많은 노래가 나올만도 해. 세상에 우리 평양처럼 멋있는 도시가 또 있을까?

자넌 글을 쓰는 사람인데 저 불장식이 화려한 평양의 밤거리를 뭐라고 표현할수 있나? 어디 말해보게.》

친구가 하는 말이였다.

뜻하지 않게 밤의 절경과 마주선 나는 할말을 다 잊고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굴리여도 적중한 표현을 찾아낼수 없었다.

단지 황홀한 빛의 세계에 어리둥절해질뿐이였다.

우리는 대동강을 건너 불밝은 종로거리를 지나

만수대언덕으로 올라갔다.

위대한 수령님 밝은 빛발속에 서시여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손들어 가리키시는 만수대!

그 언덕에 서서 둘러보니 도시는 온통 찬연한 빛의 세계이다. 그 빛으로 하여 평양의 건물들마다가 마치 하얗고 파르스름한 옥돌로 다듬어세운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천리마가 네굽을 안고 하늘을 향해 나래 펼친 천리마동상아래를 지나 개선문쪽으로 향했다. 어디선가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밤의 고요를 흔들어깨우고있었다.

눈앞에는 개선청년공원의 황홀한 전경이 나타났다.

공원의 불장식은 또 얼마나 신비로운것인가!

각각각색의 장식등이 명멸하는 불빛의 바다에서 웃음과 노래를 실은 유희기구들이 빙글빙글 돌아간다. 실로 행복의 무아경이였다.

이런 생각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개선청년공원을 찾으시여 행복에 취한 청춘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쁨의 환한 미소를 지으시던 그날의 그 영상이 우렁이 안겨온다.

행복한 이밤, 희한한 불장식으로 더욱 환해진 수도의 이밤을 인민들에게 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지금도 머나먼 현지도의 길에 계시지나 않을까!

우리는 천리마거리에도 걸어서 갔다.

밤이 지새도록, 발목이 시도록 걷고만싶고 우리 마음을 잡아끄는 평양의 거리였다.

뜨거워지는 생각을 안고 천리마거리에 들어서니 또 새로운 환희가 심신에 깃들었다.

환희가 일렁이는 거리!

희한한 불장식으로 신비로움의 극치를 이룬 인민문화궁전이며 평양체육관, 창광원이며 청류관의 풍경!

가로수들마다에는 신비로운 열매가 달린듯 무수한 장식등이 반짝인다. 저 하늘의 별들이 다 내려앉은것이나 아닌지...

《어 - 취한다!》

나의 친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였다. 결국은 한껏 취해보자던 친구의 말이 깨도가 되였다.

그는 정말 취했다. 불빛의 세계에 취해버렸다. 그의 눈에서는 물기가 번뜩이였다.

조국의 먼 북단에서 온 사람, 조국을 위해 한생 충을 잡고 군사복무를 해오는 그.

그가 어찌 혁명의 수도 평양의 환한 야경을 범

상한 마음으로 레사롭게 대할수 있으랴. 조국을 위해 바친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조국의 귀중함과 그 아름다움의 진가도 느낄수 있는게 아니랴.

뜨거운 생각에 잠겨있는 친구를 바라보느라니 나에게도 가슴 뭉클 적시며 떠오르는 지난날의 뜨거운 이야기...

그게 어느해였던가.

원썬들의 악랄한 책동으로 하여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헤쳐나가야 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머나먼 전선시찰의 길에서 돌아오시다가 평양의 거리에 가로등이 꺼진것을 보시였다.

몹시 마음 아프시여 차를 멈추시고 수도의 거리를 둘러보시던 아버지장군님.

아무리 나라의 전력사정이 어렵다 하여도 가로등을 다 켜서 수도의 거리들을 밤에도 밝게 해야 한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

그러시고는 또다시 그 다음날에도 불꺼진 평양의 거리를 마음에 안으시고 최전연구분대들을 찾아나가시였다고 한다.

나의 눈앞에는 그날 어둠에 싸인 조국의 산야를 누비며 전선으로 향하던 한점의 불빛이 보이는데만 같았다.

우리 장군님 타고가시던 승용차의 불빛이, 어둠

을 태우며 달리던 그 불빛이.

그 한점의 불빛이 오늘 이밤의 황홀한 불빛의 세계를 펼쳐놓은것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 장군님 선군으로 안아오신 세상에서 으뜸인 평양의 야경이다.

추억으로 소중하고 더 아름답게 안겨오는 평양의 밤이다. 그 추억속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당의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신 환희의 그 나날도 있고 장군님을 따라 억척같이 다져온 선군의 위력과 우리 인민의 정신력을 만장약하여 장쾌하고 아름다운 축포성으로 터뜨렸던 10월의 환희로운 밤도 있다.

사람들 행복에 무엇어 잠 못드는 평양의 밤!

불빛이여, 흐르라, 끝없이 흐르라! 저 눈부신 불빛속에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가 두둥실 동터오고있다.

멀리 지나온 개선청년공원쪽에서는 아직도 청춘들의 웃음소리, 즐거운 음악소리가 들려오는듯 하고 수도의 화려한 밤경치는 끝없이 펼쳐지는데 나의 눈앞에는 여전히 조국의 산야를 누비는 한점의 불빛이, 우리 장군님 내 조국의 방황공곡 지칠줄 모르고 찾아가시는 승용차의 불빛이 사라질줄 몰랐다.

## 우리 젊은이들

양 치 성

희천!

온 나라 젊은이들 여기에 다 모인것 같구나  
발전소를 세우는 일이 나라의 큰일인줄 알아  
마음이 하나 되어 모습도 하나같은가  
누구나 더 많은 일 하지 못해  
쟁에서 난장에서 바빠 돌아가는 이들

그들속에는 있다

전국근로자들의 노래경연무대에서  
노래를 잘 불러 인상깊었던 그 청년  
초소를 떠나 고향집을 지나온 제대군인도  
휴가받고 달려온 기계공장 선반공도

자세히 보면

스무살나이에 박사가 된 그 청년도  
한몸 던져 술한 생명 구원해준 청년영웅도  
모내기철 우리 집 울타리 손질해준 군인동무도  
이웃공장 직장장 아들도 농장회계원의 딸도

그들에겐 없다

눈비에 젖어 암반을 깨내면서도  
따뜻한 아래목을 그리워하는 안일한 마음

함마를 휘둘러 언뎀 녹일줄 알아도

그것마저 알아주기를 바라는 추호의 공명심

오, 이제라도

나라에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보라  
만일 전쟁이 일어났다면 총대잡은 가슴에  
이 언제도 함께 안고 전선으로 나가리  
희천발전소건설도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이 아  
닌가

미더웁다 우리의 젊은이들

그들이 바라는것이라면 장군님전사라는 높은 칭호  
그들의 행복이라면 나라위해 젊음을 바치는것  
그들의 소원이라면 완공된 그날 장군님 모시는것

그 행복 그 소원의 상상봉에

희천발전소는 우뚝 솟아 빛을 뿌리리라  
장군님부름에 결사대가 되고  
조국을 위하여 돌격대가 된  
순박하나 강인한 조선청년들의 모습으로  
희천발전소는 최전선의 언제로 높이 솟아 빛나  
리라!



한 영 호

시외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이 딸이 불쑥 집에 들어서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반가와하실까. 의학대학졸업증에다 파견장까지 내놓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이다.

나는 그 흥분을 안고 차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봄을 맞아 연록색으로 물든 가로수너머로 대학기간에 정든 도시의 거리가 흘러가고 있었다.

정든 도시여, 안녕히! 난 네 품을 떠나 섬으로 간다. 내 소녀시절이 흘러갔고 오늘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는 그곳으로...

# 1

나의 어린시절은 어느 자그마한 바다가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언제부터 그곳에서 살았는지 알수 없지만 내가 태어난 곳은 원래 어느 섬이라 했다. 아마 너무 어릴 때 그곳을 떠나오다보니 기억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았다.

마을이래야 군판가족들이 살고있는 여라문채의 집뿐이었다. 이상한것은 마을에는 녀인들과 아이들뿐인것이였다. 아버지들은 모두 바다멀리 섬초소에 나가있는것이였다. 아버지들은 며칠에 한번 집에 들리곤 했다. 그런 날이면 온 마을이 명절분위기에 휩싸인다. 집집마다 무엇을 볶고 지지는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날이면 아버지들은 발동선을 타고 또다시 바다멀리로 떠나가곤 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그런데 구분대장이다니 그 기회마저 번질 때가 많았다.

나는 다섯살나던 해에 그 의혹을 풀려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는 초소가 있는 섬을 무릉도원으로 꾸리려 갔

다는것이였다.

《엄마, 무릉도원이라는건 뭐나요?》

어머니는 내 얼굴을 정겨운 눈길로 바라보다가 품안에 나를 꼭 껴안으며 말했다.

《무릉도원이라는건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고 온갖 열매들이 무르익는, 사람들이 화목하게 사는 곳을 두고 하는 말이란다. ...》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과랑, 복숭아랑, 감이랑 많겠구나.》

《그럼.》

어머니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다음날부터 나는 매일과 같이 파도 출렁이는 도래곶이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아득한 수평선너머 그 어디엔가 있을 무릉도원을 그려보곤 했다.

그러던 나에게 그 미지의 세계를 알아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갑자기 어머니가 프락에서 기르던 닭을 잡고 찢살도 불구기에 물어보니 가족지원대를 무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섬초소를 찾아간다는것이다. ... 바빠 돌아치는 어머니의 치마자락을 잡고 졸라댄 보람이 있어 마침내 함께 가자는 허락을 받아내고야말았다.

잠풍한 겨울날씨였다. 이른아침 부두를 떠난 발동선은 섬을 향해 기세좋게 달리였다.

나는 갑판우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끝없이 펼쳐진 넓으나넓은 바다세계를 둘러보았다. 엷은 안개속으로 파스한 아침해빛이 비쳐들고있었다.

머리우에서는 갈매기가 무리지어 날아예고있었다.

하얀 날개를 저으며 아버지를 찾아가는 나를 축복해주는듯 한 갈매기들에게 손을 저어주고있는데 누군가 소리쳤다.

《섬이 보여요!...》

그 소리에 놀란 나는 얇은 안개속에 잠긴 수평 선쪽을 정신없이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거뭇한 점같은것이 아스라하니 바라보였다.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아아한 절벽이며 바위들이 널려있는 기슭 그리고 여러명의 군관들이 나와있는 섬의 잔교가 점차 선명하게 안겨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 군관들가운데 서있는 아버지를 알아보고 목청껏 소리쳤다.

《아버지!》

아버지도 나를 알아보았는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며보이고는 점점 다가오는 발동선을 향하여 잔교의 가늉까지 걸어나왔다.

배가 몇타 헤엄버치며 내리려는 나를 닝큼 안아 올리며 꺾꺾 웃었다.

《허! 우리 영애도 왔구나!》

나는 바다바람에 그슬린 아버지의 두리두리한 얼굴에 불을 갖다대며 기쁨에 겨워 속살거렸다.

《아버지, 나 무릉도원 보러 왔어요. ...》

《그래! 허허!...》

아버지는 다시한번 큰소리로 웃고나서 내 코를 꼭 눌러주었다.

《아무렴, 무릉도원이 되구말구. 아직은 무릉도원이라 할수 없지만 앞으로는 꼭 된다!...》

《그럼 아직 멀었나요?》

아버지는 넓은 가슴에 나를 다시한번 꼭 껴안아 주었다.

《아니다, 인차 된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걸어갔다.

아버지는 이따금씩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섬의 여기저기를 가리켜보였다.

《병실건설도 끝나 이제 기본적으로 병사들의 생활이 안착되었소. 저기가 군관사택구역이요. 지금 불을 피워가며 내부미장을 하고있는중인데 봄에는 이사할것 같소.》

어머니는 연송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병사들이 수고하는군요.》

《그래, 섬에서 건설은 특지고 다르지. 세멘트, 목재는 물론이고 모래, 자갈, 심지어 물까지 물에서 날라와야 하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화에는 흥심없이 섬의 곳곳을 눈빛질하던 나의 눈에는 점차 의혹의 빛이 어리기 시작하였다. 여기가 정말 무릉도원이 될가? 온통 바위투성이인 섬에는 나무 한대도 찾아볼수 없었던것이다. 바다바람에 잎은 다 떨어져 나가고 가지만 앙상히 남은 떨기나무들만이 드문드문 서서 추위에 떨고있었다.

나는 그만 실똥해서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감이랑, 복숭아랑 어디서 파나?》

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병실둘레를 빙 돌아가며 섬은 대여섯봉 되나마나한 나무모들을 가리켰다.

《영애야, 지금은 작아보여도 저 나무들이 크면 큰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릴거다. ...》

《힝, 내 키보다 작은걸. ...》

《허, 아마 한해후면 우리 영애를 따라잡을걸!...》

나는 그만 입술을 삐죽이 내밀었다. 그 나무모들을 심느라 병사들이 땀을 흘리며 바위를 뽑아내고 거기다 물에서 날라온 흙이며 거름을 채웠다는것을 어이 알수 있었으랴!

점심때가 되여오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취사장에서 병사들의 식사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그옆에 결달린 자그마한 방에서 창박을 내다보고있었다. 아침까지만 하여도 잔잔하던 바다가 시커먼 거품을 일쿠며 뒤설레인다. 갈매기들도 어디로 사라졌는지 찾아볼수 없었다.

수평선너머 먼 하늘에 검은구름이 밀려오며 사위가 점점 어둑어둑해졌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집에 돌아갈 일이 걱정되었던것이다.

어머니가 삶은 계를 접시에 담아들고 방에 들어섰다. 어머니의 크고 부드러운 눈에는 웃음이 함뿍 실리어있었다.

《오, 우리 영애 아직도 섬구경하누나.》

나는 어머니에게 창박을 가리켜보였다.

《엄마, 바다가 무서워!...》

어머니가 나의 잔등을 두드려주었다.

《걱정말아, 아버지가 곁에 있지 않니.》

때마침 아버지가 들어왔다. 크고 꺾꺾한 손바닥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꺾꺾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래도 우리 영애 어머니랑 함께 섬에서 하루밤 묵어야 할것 같구나. 해상경보다!...》

나는 불안한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저기 파도가... 섬에서는 일없지?》

아버지는 큰소리로 웃고나서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무렴, 이 섬은 가라앉지 않는 전투함선과 같단다, 허허!...》

날이 어두워지면서 바람은 더욱 세차지더니 어느새 광풍으로 돌변하였다.

무섭게 뒤설레이며 노호하는 바다, 길길이 치솟으며 기슭의 바위들을 때리는 세찬 파도, 마치 섬이 통채로 기우뚱거리는데 했다. 이러다 섬이 바다물속에 아예 잠겨버리거나 앓을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바람소리, 파도소리가 뒤섞여 마치 그 어떤 무서운 괴물이 내지르는 괴상한 비명소리처럼 울리며 귀청을 아프게 자극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그 자그마한 방에 오도카니 앓아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다우에 외로이 떠있는 이 섬을 통채로 부서버릴듯 절벽을 때리는 파도소리가 쉬임없이 짹짹

고막을 울린다.

섬에는 아직 전기도 없었다. 정어리기름으로 켜 등잔불이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가냘프게 타오르고 있었다. 갑자기 휘파람 비슷한 소리를 내며 창문새썸으로 바람이 스며들자 마침내 등잔불마저 꺼졌다.

나는 와락 어머니 품에 안겼다.

《엄마, 나 무서워!》

《영애야, 무서워 마, 엄마 여기 있다.》

어머니는 나를 바싹 껴안았다. 방안은 오솔오솔했다. 섬에는 땀감마저 넘쳐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온밤 추위에 떨고 공포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시무시한 하루밤이 지났으나 바람과 파도는 잠들줄 몰랐다.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리며 사납게 몰아쳤다. 벼랑쪽에서 무엇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소리에 나는 흠칫 놀라 어머니 가슴을 파고들었다.

《엄마, 우린 언제 집에 가나?》

《바람이 잦으면 간다. 그래, 인차 잤겠지.》

하지만 바람은 어머니말대로 인차 잤지 않았다.

그날밤에도 바람은 사납게 불어쳤고 바다는 무섭게 광란하며 잠들줄 몰랐다. 복잡한 바다흐름과 바람길사이에 놓인 섬은 년중 때없이 이런 시달림을 받고있었던 것이다.

바람은 잦을줄 모르고 파도는 계속 세찬데 먹는 물마저 떨어졌다. 그때에야 나는 섬에 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파도가 세차니 배도 띄울수 없었다.

나는 갈증을 참을수 없어 어머니에게 하소했다.

《엄마, 나 목말라!...》

뜻밖에도 아버지가 물이 조금 담긴 군용밥통을 들고 방에 들어섰다. 어머니가 놀라며 반기자 아버지는 들고온 물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했다.

《파도가 치면서 바위에 얼어붙었던 얼음을 녹인거요. 그래도 이게 바다물보다는 짜지 않소. 우리 병사들이 때로는 이런 물을 달게 마시며 섬을 꾸렸지. 이제 샘을 찾으면 이렇게 물고생하는 일이 없어질거요. 내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이 여기서 샘을 찾아내고야말테요.》

나는 정신없이 그 물을 받아 들이켰다. 처음에는 짭짤하다는 느낌도 몰랐다. 그러나 마신 후에는 오히려 더 갈증이 심해지는건 무엇때문인가?

나는 기진하여 어머니무릎에 쓰러졌다. 무릉도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깨어져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섬으로 건너온것을 후회하였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집에 있을걸!

파도는 서서히 멎어버렸다. 우리가 섬으로 건너온지 꼭 나흘만이였다.

나는 것처럼 보라빛공상의 세계에서 그러보던 무릉도원을 꿈결에서처럼 혼몽한 기분속에 떠나왔다. ...

겨울은 바다너머로 물러가고 봄이 왔다. 우리는 섬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다른 집 아버지들은 이사집을 꾸리러 모두 왔지만 아버지만은 바쁜 일로 오지 못했다. 그러나 옆에서 도와주어 수월하게 이사집을 발동선에 실을수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다시한번 프락을 돌아본 어머니는 나에게 일렀다.

《영애야, 이제 가자. 모두 우리를 기다리누나.》

그 순간 나는 노랑강아지를 품에 안은채 마당 한가운데 풀썩 주저앉았다.

《엄마, 나 섬 싫어, 안 갈래!...》

어머니는 너무도 놀라운 나의 행동에 어리둥절해져서 걸음을 멈추었다.

《엄마, 영철이네는 안 가지 않나!...》

그제야 영문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나를 달래기 시작하였다.

《영애야, 영철이 아버지는 여기 부두를 지켜야 해. 저길 보렴, 배가 떠날 차비를 하고 고통을 울리지 않니?》

나는 킁킁거리는 강아지를 더 힘껏 그러안은채 애원에 찬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섬에서 묵은 그 음산한 나날들, 파도소리, 바람소리,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그물그물 타오르던 등잔불, 바위에 얼어붙은 얼음을 녹인 찻잔한 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나는 울음섞인 목소리로 떠들떠들 말했다.

《엄마, 난... 여기가 더 좋아. 소금물 먹는 거기가 싫어!》

어머니는 어찌할바를 몰라하다가 거의 사정하다 싶이 내 작은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영애야, 너 그냥 어머니속 태우겠니?》

《엄마, 정말이야. 나 거기 무서워!...》

순간 어머니의 손이 찰싹하니 내 애리애리한 볼에 와닿았다.

나는 흠칫 놀라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언제한번 성낼줄 모르던 어머니, 집을 떠나있는 아버지뻘까지 합쳐서 오직 애무밖에 모르던 어머니한테서 당한 손찌검으로 하여 나는 그만 와락하니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안타깝다는듯 입술을 감뻘며 울며 발버둥치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꼭 그치지 못하겠니.》

그리고는 여직 울음에 목이 메어 꼭꼭거리는 나를 안고 사람들이 기다리고있는 부두로 종종걸음을 쳤다.

발동선이 움직이자 흐르는 눈물속에 내가 살던 물이 멀어져갔다.



나는 섬에 새로 생긴 소학교분교에 입학하였다.  
학생이래야 도무지 네명뿐이었다.

선생님은 우리가 글을 익히자 《나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으라고 하였다.

나는 푹푹히 생각하다 이렇게 글을 지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를 따라 섬으로 이사왔습니다.

섬은 전에 살던 곳보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 대신 아버지와 함께 모여사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섬을 싫어할가봐 걱정합니다. 섬에 정을 붙여주려고 저더러 집마당에 감나무를 심게 하고는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주었습니다. 섬에서 새로 찾은 샘바닥에 조가비도 깔게 합니다. 희귀한 바다집승과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꼭꼭 학교에 가져다 우리들에게도 보여줍니다. 우리 학교에는 군대아저씨들이 만들어준 바다새박제품과 물고기표본들도 많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사는 섬이 비록 자그마하고 지도에도 올라있지 않지만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없어서는 안될 섬이라고 늘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섬을 제일로 사랑하며 나도 섬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있어 이 섬이 좋습니다. ...》

선생님은 글을 잘 지었다 하며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여주라고 하였다.

나는 그 기쁨을 안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집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고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커다란 출장용 가방을 꺼내 놓고 짐을 꾸리고있었던것이다.

나는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어머니, 아버지 출장가나요?...》

출장용가방에 아버지의 속옷을 챙겨넣던 어머니는 일손을 멈추고 생각깊은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영애야, 아버지는 대학에 가신다!...》

《대학엘?...》

어머니는 웃음을 지어보이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동안 우리 영애 어머니와 함께 여기 있어도 일없지?》

나는 그냥 어리떨떨하여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버지, 오래 가있나?...》

《그래, 몇해는 잘 걸릴것 같구나!》

나는 어머니무릎앞에 주저앉았다.

《어머니, 우리두 아버지를 따라가자. 아버지에게 말해봤나?》

어머니는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거진 우리 가족들이 따라가는 곳이 아니다. 아버지는 이제부터 학생이란다.》

나는 맥이 풀려 어깨를 내리뜨렸다. 글을 보여 주려던 그 기쁨도 다 잊고 울먹울먹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도 떠나갈걸 우린 왜 섬에 왔

나?》

어머니는 아무 말없이 그저 애연한 눈길로 나를 마주보기만 하였다.

이튿날 아버지를 배래기 위해 우리는 부두로 나갔다.

어머니는 약간 갈린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졸업후에는 어떻게 될것 같아요?...》

천천히 섬을 둘러보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하여 돌아섰다.

《글쎄, 그거야 모르지. 나야 군인이니 명령 받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소.》

어머니는 가는숨을 내쉬었다.

《섬섬하군요. 당신이 이 섬을 지금처럼 꾸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어요? 저도 그새 여기에 정들었었는데...》

나는 영문을 알수 없었다. 이 거칠고 적막하고 외로운 섬을 떠나기가 왜 섬섬하다는것인지...

나는 그저 병병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둘러보았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를 품에 꼭 껴안았다.

《영애야, 어머니말을 잘 듣거라. 공부도 잘 하고...》

마침내 아버지는 발동선우에 성큼 올랐다.

나는 떠나는 아버지를 향하여 손을 저었다. 그리고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있었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나에게 말했다.

《영애야, 이젠 들어가자. ...》

그 소리를 못 들은듯 그냥 그 자리에 서있던 나는 갑자기 생각나는것이 있어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아까 아버지 하던 말 뭐나요? 대학을 졸업하면 아버지 이 섬에 오지 않나요?》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래, 그럴수 있지. 아버지 군대가 아니냐? 군대는 명령받은대로만 해야 한단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반짝 일었다. 아, 그랬었구나! 그러니 아버지는 물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러 대학에 가셨을거야!...

## 2

대학을 졸업한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물으로 데려가려 왔다. 물에다 이사짐을 날라갈 준비를 다 해놓았으니 매일 당장 섬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나는 조가비젯기를 하는 동무들을 찾아 한달음에 바다가로 달려나갔다. 멀리에서부터 소리쳤다.

《애들아!...》

그 목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하나둘 허리를 펴고 내쪽을 바라보았다.

나는 숨을 할딱거리며 그들에게 말했다.

《애들아, 우린 래일 이사를 간다!...》  
순식간에 아이들이 내 주위를 둘러쌌다.  
《어디로 가니?》  
《물으로 가니?》  
나의 얼굴은 금지로 넘쳤다.  
《그래, 도시로 가는것 같애. ...》  
한순간 모두 넋을 잃고 나를 바라본다.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는 눈길들이었다.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는 도시로 간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빨리 물으로 나가 자동차를 타고 그다음 기차를 갈아탄 후 도시에서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니 도시로 가는것이 아니고 뭔가!

아이들은 저저마다 내 손에 기념품을 쥐여주기 시작했다.

《영애야, 이 조가비를 받아. 내것중에서 제일 고운거야.》

《내것두 받아. 도시에는 이런것 없을거야.》  
나는 그제야 그동안 정든 동무들과 헤어지는 아쉬움, 나만 물으로 가게 된 미안함을 금치 못해하며 령묘한 줄무늬가 건넌 그 조가비들을 모두 받아안았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발동선에 이사집을 실었다.  
모든 일은 영문도 가려볼 사이없이 내 눈앞에서 번뜩번뜩 흘러갔다. 발동선을 타고 물에 이른 우리는 자동차에 이사집을 옮겨싣고 역으로 향했다.

나는 난생처음 이처럼 긴 여행을 해보았다.  
자그마하고 한적한 바다가마을과 외로운 섬에서만 자라온 나에게는 세계일주에라도 나선듯 한 심정이었다.

새벽에 섬을 떠난 우리는 점심때가 거의 되어서야 역함으로 나섰다. 저 멀리 산굽이쪽에서 경쾌하고도 장엄한 기적소리가 길게 울렸다. 그러자 두줄기의 레루를 타고 기관차가 불쑥 나타났다.

레루가 울리고 딥고선 역함바닥이 통채로 흔들거리는듯싶었다. 마침내 기관차가 굉음을 내며 역함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어망결에 어머니품에 얼굴을 묻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손에 이끌려 열차에 올랐다.  
정작 오르고보니 열차는 얼마나 아늑하고 열차여행은 또 얼마나 경쾌한것인가! 처음 보는 풍경과 전경이 차창밖으로 흘러가고있었다. 것처럼 높아보이던 섬 정수리와는 대비도 안될 아아한 산봉우리들, 누런 벼이삭이 설레이는 끝없는 전야, 거세찬 동음 울리는 이름모를 공장들!

나는 세상이 이처럼 넓고 멋진데 놀랐다. 열차는 철교우를 지나고있었다.

저녁노을속에 금빛으로 물든 강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버들이 무성한 기슭에서는 염소떼들이 물을 마시고있었다. 그래, 강물은 짜지 않으니까. ...

나는 점점 어둠이 내려앉는 차창밖을 아쉬운 눈

길로 바라보았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도시에서 내렸다. 산간역과 대비할수없이 큰 역함을 빠져나온 나는 주춤 주춤을 멈추었다. 하늘을 찌를듯 높이 솟은 고층건물들과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각양각색의 자동차며 길이 넘쳐나게 흐르는 사람들의 물결이 대번에 나를 놀라게 했던것이다.

내가 공원앞 의자에 앉아 난생처음 본 도시풍경을 되새겨보고있을 때 어디론가 갔던 아버지가 돌아왔다. 부대에서 자동차가 왔으니 빨리 가자는것이였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따라가보니 여러명의 군인들이 벌써 화물차에 우리 이사짐을 싣고있었다. 우리를 태운 자동차는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하였다. 도시를 벗어나 교외길로 들어섰다. 것처럼 화려하고도 멋진 도시가 점점 내 눈앞에서 멀어져가고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의혹에 찬 눈길을 보냈다.

《어머니, 우린 지금 어디로 가나?》  
《가면 알게 된다. ...》

가도가도 끝이 없는 길이 계속되였다. 차가 거의 반나절가량 달렸을무렵 갑자기 앞이 탁 트인 바다가 나타났다. 마침내 자동차는 우리 살던 바다가마을의 부두와 비슷한 곳에 멎어섰다.

나는 그만에야 어리둥절해서 주변을 살폈다. 기나긴 여행끝에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온듯 한 환각이 들었던것이다.

어머니와 내가 화물차에서 내리자 병사들이 이사짐을 발동선에 옮겨싣기 시작하였다.

나는 더럭 겁이 나서 어머니를 불렀다.  
《엄마?!》

어머니는 발동선쪽으로 그냥 눈길을 준채 내 어깨를 어루쓸며 약간 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래, 우린 섬으로 간다, 갈미섬으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엄마, 거짓말쟁이!...》

순간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더니 이윽도록 나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말할듯말듯 하더니 슬며시 돌아섰다. 그리고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어 눈굽을 짖었다.

나는 놀랐다. 어머니는 울고있었던것이다. 지금껏 어머니가 우는것을 처음 본 나는 대번에 기가 꺾이고말았다. ... 발동선은 드디어 부두를 떠났다.

나는 어머니와 조금 떨어져 이사짐사이에 홀로 자리를 잡았다. 사방 아득한 수평선을 서글픈 눈길로 바라보던 나는 마침내 내내 안고있던 자그마한 배낭의 아구리를 헤쳤다.

동무들이 기념으로 준 조가비들을 꺼내어들었다. 그러자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 그 령묘한 줄무늬우에 떨어졌다. 것처럼 환희와 기쁨, 희

망과 기대속에 흘러온 러행길이 꿈속에서 지나간 일인듯싶었다.

나는 그 조가비들을 하나씩하나씩 힘없이 배전 밖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하였다. 침병...침병... 하나... 둘... 조가비들이 나의 부서진 희망과 기대와 함께 푸르른 바다물속에 잠겨버렸다. 아, 나는 섬에서 섬으로 왔구나!...

섬부두에서 우리를 반겨맞이하러 이사집을 날라주던 군관가족들도 다 돌아갔다.

나는 마당가에 홀로 앉아 황혼이 깃드는 섬의 나지막한 산봉우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문득 그 정수리에 올라서면 도시가 보이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 이어져있을것만 같았다.

그 막연한 호기심을 안고 나는 일어섰다. 그리고는 산봉우리로 구불구불 뻗어올라간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이름모를 새들이 놀란듯 푸드득 풀숲에서 날아올랐건만 무서움도 잊고 단숨에 섬 정수리로 올랐다. 끝간데없이 아득히 펼쳐진 바다가 나의 눈앞에 펼쳐졌다. 사방을 둘러봐도 설레이는 바다, 출렁이는 물결뿐이었다.

나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떨리고 다리맥이 풀려 잔솔포기옆에 오도카니 주저앉았다. 수평선둘레로는 점점 어둠이 내려앉고있었다.

나는 수평선 한쪽끝 하늘가에 남아있는 저녁노을의 검붉은 잔광을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왜 남들처럼 물에서 살지 못할가?

별안간 등뒤에서 인기척이 나며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여기 있었구나. ...》

나는 못 들은듯 그 자리에서 까딱하지 않았다. 내옆에 자리를 잡는 아버지의 부시력거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애야, 성났니?》

나는 그제서야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우린 왜 또 섬에 왔나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었다.

《영애야, 섬을 떠나 아버지가 가면 어디로 가겠니. 바로 이 섬도 조국의 한부분이기에 이 섬을 지키기 위해 군복입은 아버지도 있는거란다.》

나의 눈길은 그냥 아버지의 얼굴에서 움직일줄 몰랐다. 그럼 아버지는 왜 대학엘 갔을가?

《아버지, 대학에서 왜 물에서 하는 일을 배워오지 않았나요?》

아버지는 꺾꺾 소리내어 웃었다.

《영애야, 아버지는 섬에서 하는 일을 더 잘 배우기 위해 대학에 갔다. 그래서 또 크고 새로운 섬을 맡아안은거구...》

나는 그제야 이 섬이 전에 살던 섬보다 비할바없이 크다는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섬은 큰데 아직은 그닥 좋은 곳이라 말할수 없다. 무인도를 꾸리는 일 못지 않게 아버지한테는 앞으로 큰 일감이 맡겨져있다. ...》

나의 머리속에는 또 다른 의혹이 갈래를 쳤다.

《아버지, 그럼 우린 왜 좋은 섬에 가지 못하나요?》

아버지는 내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었다.

《그건 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고 신임이다. 병사시절부터 지금까지 섬에서 복무해온 경험을 가지고 여기 갈미섬도 잘사는 곳으로 만들수 있다고 믿기때문이다. 그러니 영애도 이 아버지마음을 따라야지. ...》

나는 그만 더 물어볼 의욕을 잃었다. 지금 아버지의 말을 이해해서보다는 러행길에서 보고 받아안은 충격이 너무도 컸던것이다.

《아버지, 엄마 아까 울었어. ...》

《!...》

《내 말에 성나서...》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내 어깨를 쓰다듬더니 나직이 침묵을 깨었다.

《네 어머니는 참 좋은 어머니다. 거의나 이 아버지와 떨어져 홀로 살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눈물 한번 보인적이 없었던단다. 모든 사연을 속에 묻고 아버지를 도와나섰지. 하지만 물에서 살고싶어하는 우리 영애앞에서는 어찌지 못했구나. 그래서 운거란다. ...》

그 말이 나의 가슴을 찢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때문에 울었구나. 아버진 나를 찾아 여기까지 오고... 난 정말 나쁜 애야, 나쁜 애...

《아버지, 지금도 엄마가 울고있나요?》

아버지는 빙긋 웃었다.

《아니, 우리 영애에게 먹이려고 망챙이국을 끓이고있단다. 이제 영애가 들어서면 너무 기뻐서 웃을거다.》

그바람에 나도 방긋 웃었다.

《아버지, 그럼 빨리 가자요.》

《아무렴, 그래야지, 하하!》

나는 아버지를 따라 잔솔포기옆에서 일어섰다. 어느 사이엔가 둥근 보름달이 자기의 자태를 드러냈다. 달빛에 함뻍젖은 바다는 소리없이 늑실거리고 그 기슭을 따라 뻗어간 백사장은 잠에 취한듯 고요히 누워있다.

아버지는 두손을 랑허리에 얹고 감회깊게 섬을 둘러보았다.

《영애야, 섬이 얼마나 아름답니. 이제 앞으로 섬은 도시못지 않게 변모될거다. 그러면 누구나 도시를 부러워하지 않을거다!...》

《정말?!...》

아버지는 갑자기 소꿉동무들처럼 제끼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약속했다!...》

나는 아버지손가락에 내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약속, 약속, 거짓말 하면!...》

나는 손가락을 흔들다말고 갑자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짐짓 정색해있는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그만해야 웃음을 터뜨리고말았다.

나는 아버지와 손목을 잡고 오솔길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어두운 밤길에 비칠거리자 아버지는 나를 등에 업었다.

나는 난생처음 아버지잔등에 업혀보는 기쁨에 아버지목을 꼭 그러안고 나직이 속삭였다.

《아버지, 난 아버지가 좋아!...》

《나두 우리 영애가 제일 고운걸!...》

나와 아버지의 웃음소리는 부드러운 어둠속에 잠긴 숲으로 조용히 울려 퍼졌다.

나는 섬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물갈이로 고생하기 시작하였다. 가끔 수업도 중에도 배가 아파서 참기 어려웠다.

옆에 앉은 영희가 그걸 알고 동정하기 시작했다. 인정이 깊은 그는 공부가 끝나면 나를 바다가로 이끌곤 했다. 배아픔에는 모래찜질이 제일이라는 것이었다.

한여름의 폭양속에서 우리는 교복을 훌훌 벗어 던지고 바다물에 뛰어들었다. 좋아라 자맥질을 치는데 영희가 주의를 주었다.

《영애야, 파가와도 맨살을 모래불에 지쳐야 해, 알겠니?》

우리는 약속이나 한듯 물속에서 뛰쳐나왔다. 뜨겁게 달아오른 모래불위에 엎드렸다.

가벼운 비명소리가 새어나왔다.

《아, 뜨거워!...》

내곁에 엎드린 영희가 좋아라 웃어댔다. 순간의 뜨거움이 지나가고 배아픔이 멎는듯싶었다.

별안간 영희가 손가끼이의 조그마한 조가비를 주어들고 속삭였다.

《영애야, 얼마나 곱니. 꽃단추갈애!》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살던 섬에는 그것보다 고운게 많았어. 모래에 쓸리고 바다물에 씻겨 꽃파자갈았어. ...》

《왜 가져오지 않았니?》

나는 대답할수 없었다. 갈미섬으로 건너오는 배길우에서 그걸 버리던 서글픔이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그 생각을 안고 조용히 되물었다.

《영희야, 넌 섬이 좋니?》

《좋아, 하지만 도시에도 꼭 가보고파. 기차도 타보고...》

나는 그를 측은히 마주보았다.

아버지는 섬의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림화, 원림화계획을 내놓았다. 수종이 좋은 나무와 과일나무를 심어 섬을 수림으로 뒤덮자는 것이었다.

모두들 입을 딱 벌렸다. 그 많은 나무모도 문제지만 온통 돌투성이인 섬에 어떻게 심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섬을 일신시키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병영과 군인사택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완전히 새로 짓는다는 것이었다. 목욕탕을 비롯하여 돼지목장, 염소목장, 토끼목장건설도 다 같이 밀고나갈 결심이였다. 그것은 단순한 후방기지건설이 아니라 부대의 싸움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의 한 부분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 나무가 언제 커서 수질이 해결되랴!

어느날 어머니는 정말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었다. 아버지랑 다 함께 가족휴양을 간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휴양을 가게 된 것이었다. 정치좋은 곳에서 휴양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내 속тал이 뚝 떨어질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저녁녁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섰다. 요즘 돼지목장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다보니 휴양을 떠나는 전날까지 작업장에 나갔던 것이다.

오던 길에 후방부에 들려 가재미며 낙지 같은 것도 한구럭 들고왔다. 도중식사를 준비해야 했던 것이다. 나는 앓던 아이 같지 않게 음식감을 손질하는 어머니와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머니, 휴양소에선 어떻게 놀가?》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나도 잘 모르겠다. 갔다온 사람들이 말하길 정말 즐거웠다 하더라. 등산도 하고 유희오락도 하고 아버지들까지 다 한테 모여 춤도 추고...》

나는 그만 소리내어 웃었다. 춤추는 아버지모습을 그려보았던 것이다. 웬일인지 어머니가 내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어머니, 왜 그렇게 찬찬히 보나요?》

그제야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웃는걸 오래간만에 보아서 그런다.》

나는 짐짓 새초롬히 눈길을 내리깔았다.

《어머니, 아픈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웃지 않은거지...》

아버지는 펍 늦게야 집에 들어섰다. 어느때없이 활기에 넘쳐 밥상을 차리는 나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히, 우리 영애가 오늘은 사기가 났구나.》

늘 부대에 나가살다싶이 하던 아버지이다보니 우리 식구는 오래간만에 한밥상에 모여앉았다.

그런데 웬당 래일 떠나게 된 휴양이야기부터 해

야 할 아버지가 왕청같은 소리를 꺼냈다.

《수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섬이 계획한 건설을 밀고나갈수 없소. 수송선도 못고 이왕이면 부업선도 몇척 더 무어야 할것 같소.》

나는 의아한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 당장 휴양을 떠나겠는데 무슨 소릴 하는걸가? 혹시?!...

아버지는 부드러운 눈길로 나를 마주보았다.

《영애야, 그래서 말이다. 우리 가족휴양을 다 음번으로 미루자꾸나!》

나는 손가락을 든채 멍하니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눈길을 내리깔며 말을 이었다.

《우리 영애가 좀 섭섭하겠지만 어찌겠니. 다음 번엔 꼭 함께 가자꾸나. 약속하자, 우리 손가락 절가?》

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만에 손가락을 든 손을 땡없이 내렸다.

어머니는 놀란듯 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둘러보았다.

나는 소리없이 일어나 옷방으로 올라갔다. 울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두손으로 입을 감싸쥐느라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한동안 아래방에서도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한숨쉬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애가 안되었군요. ...》

《어찌겠소. 당신이 좀 리해시켜주오. ...》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 일어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나가요?》

《전투를 벌려야 하겠는데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요.》

아버지는 갑자기 생각난듯 어머니에게 물었다.

《우리 집에 말린 수산물 좀 있지?...》

《예, 그런데?...》

《래일 참모장네가 이사를 가오.》

어머니의 놀란듯 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소환인가요?》

《그렇소, 그걸 좀 보내오. 물에서야 그렇게 그럴지...》

나는 흠칫 눈물에 젖은 얼굴을 아래방쪽으로 돌렸다. 그럼 영희네가?!...

아버지가 집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만에야 방바닥에 엎드려 또다시 느껴울기 시작하였다. 휴양을 못 가게 된 아쉬움, 영희에 대한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던것이다.

### 3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의학대학에 추천을 받았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의학대학을 지망하게 하였던가. 아마 그것은 내가 물갈이로 겪은 고생

때문이었을것이다.

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받으며 시험을 치러 떠났다. 섬의 중학교와는 비할바없이 웅장한 대학건물이며 그곳에서 봄비는 술한 수험생들로 하여 나는 처음 일종의 위압감을 느꼈다. 시험을 잘 치른 나는 들어설 때와는 달리 한결 활기에 넘친 걸음으로 대학교문을 나섰다. 한쪽에서는 학부형들이 자기 자식을 마중하여 시험과정의 일들을 알아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는 그들을 한동안 부러움에 넘쳐 바라보던 나는 그 자리를 떠나 거리로 나섰다.

나는 잠시 길옆에 오도카니 서있었다. 가만, 시외버스주차장이 어디에 있었던가?...

갑자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듯 한 소리가 들려왔다. 슬며시 주위를 둘러보던 나는 속으로 웃었다. 참, 이 도시에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있겠다고! 또다시 찾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던 나는 놀랐다. 내포래의 처녀애가 반기며 마주 달려오고 있었던것이다.

《영애야!...》

어리둥절 그를 바라보던 나의 입가에서 가느다란 부르짖음이 새어나왔다.

《그럼 너 영희?!...》

《영애야, 그렇게도 몰라보겠니?》

《영희야!...》

우리는 서로 손을 맞잡고 길바닥에서 쿵당쿵당 뛰었다.

영희는 반가움에 넘쳐 물었다.

《그래, 지금 어디 있지?》

나는 그저 웃기만 했다.

《아직도 섬에 있지?》

《그래, 아직도 섬에...》

《그런데 여긴 어떻게 왔니?》

《대학시험치러...》

《무슨 대학이게?》

《의학대학이야.》

영희는 입을 딱 벌렸다.

《영애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영희는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길옆의 공원으로 나를 이끌었다. 아늑한 한구석에 자리를 잡자 또다시 질문을 들이댄다.

《그런데 너 혼자 올라왔니?》

《응, 아버지는 자리를 뜰수 없고 어머니도 요즘 부대가족들과 함께 집짐승을 기를 풀판을 조성하느라 바쁘시단다.》

《여전하구나. ...》

영희는 자기가 섬에서 살던 그때를 그려보는지 잠시 말이 없었다.

나는 홀린듯 영희를 그냥 마주보았다. 아, 그렇게 가무잡잡하던 영희는 어디로 갔는가? 어쩌면

이리도 희고 말쑥하게 번졌을가? 그 부러움을 안고 물었다.

《이젠 네 이야기나 듣자. 너도 대학시험을 쳤겠지?》

영희는 씩스럽게 웃었다.

《아니, 전문학교야. 경공업전문학교... 그때에도 너 나보다 성적이 펍 높았지. 너 머리가 좋고 이악해서 꼭 훌륭한 의사가 될수 있어. 아니, 학자선생도 될수 있지!...》

《학자선생?...》

《왜 놀라니?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소로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니?》

그 어떤 희망이 불쑥 내 눈가에 비껴들었다.

그렇다! 남들이 하는 일을 나라고 왜 못할가, 나에게도 그런 길이 열려져있지 않는가! 그러나 문득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영애야, 의학대학을 지망한 널 지지한다. 꼭 섬에서 없어서는 안될 유능한 의사가 되거라!...》

영희가 갑자기 내 어깨를 살짝 쳤다.

《뭘 그리 심각해서 그러니? 집에 가자, 우리 어머니도 몹시 반가와할거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학에 올라오면 그때 들리자꾸나. 어머니가 날 혼자 보내놓고 몹시 걱정하실거야. ...》

《애두 참. ...》

나는 몹시 아쉬워하는 영희와 작별하고나서 거리를 걸어갔다. 웅장한 건물이며 산뜻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물결이 새롭게 내 눈에 안겨왔다.

그래, 딸이 잘되는걸 아버지, 어머니라고 왜 지지하지 않으랴!

나는 섬의 부두에 내렸다. 저녁녘의 불그스름한 해빛이 섬의 여기저기를 비치고있었다.

나는 거의 달리다싶이 집을 향하여 걸었다. 문밖에서부터 소리쳤다.

《어머니!》

집안은 웅얼그렁하니 비어있었다. 풀판조성을 간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던것이다.

나는 성수가 나서 저녁을 짓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날이 어둑어둑할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밖에서부터 전등불이 켜진것을 알아보아서인지 반가움에 넘쳐 집안으로 들어섰다.

《영애가 왔구나!》

나는 젖은 손을 급히 훔치고나서 어린애마냥 어머니목에 매달렸다.

《그래, 시험을 잘 쳤겠지?》

《어머니, 자신있어요.》

어머니는 따뜻이 나의 어깨를 감싸쥐었다.

《수고했구나. 그러지 않아도 널 홀로 보내놓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이젠 너도 다 자랐구

나. ...》

이때를 기다려 나는 품고있던 생각을 어머니앞에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어머니, 난 생각을 좀 달리했어요. 의사가 되자던 결심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건 왜?》

어머니는 놀란듯 나를 마주보았다.

《난 크게 발전하고싶어요. 의학연구사가 되겠어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었다.

《영애야, 결심은 좋은데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니? 너 봉 땀구나.》

나는 짐짓 눈을 흘기었다.

《어머니, 난 한다면 해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찬성하지요?》

어머니는 웃음을 채 거두지 못한채 부드럽게 물었다.

《그런데 우리 영애가 견디어낼가? 장차 섬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와 헤어져 살아야 하겠는데...》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모아쥐었다.

《어머니, 이젠 아버지나이도 있잖아요. 평생 군복을 입을수 없지 않나요. 그때 우리 모여살면 되지 않나요.》

웬일인지 어머니는 슬며시 자기 손을 거두었다.

《영애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고있니? 아버지나이가 뭐 어떻다는거냐?》

《어머니, 이제 와서 아버지가 더 발전하겠나요? 그러니 저도 아버지 두어깨에만 매달려있을수 없지 않아요. 어머니, 저를 믿지요?》

어머니얼굴은 저으기 심각해졌다. 나의 질문을 부정하듯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네가 아버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머니, 그럼 아버지 왜 이 섬을 뜨지 못하고 있어요? 누가 아버지를 찾아주고 불러주거나 하는가 말이에요. 난 이젠 지쳤어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이 섬을 뜨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네가?》

어머니얼굴이 약간 창백해졌다. 무엇을 참는듯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래가지고는 연구사가 아니라 평범한 의사로도 될수 없어!...》

못박는듯 한 그 말에 나는 실망에 차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그저 아버지말이면 다지요. 이 딸의 장래는 생각도 하지 않고있어요.》

《그만두지 못하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으기 높아졌다. 그 바람에 나는 어머니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풀판조성을 하느라 터지고 갈라진 손, 붕대로 싸맨 두개의 손가락이 가슴아프게 바라보였다. 저도 모르게 눈앞

이 흐려졌다.

《어머니, 난 이번에 시험치러 가서 울었어요. 다른 어머니들은 곱게 차려입고 자식들과 함께 왔더군요. 어머니 언제 그렇게 차려입고 저와 다녀 본적이 있어요? 그저 작업복... 언젠가 부대에서 상품으로 받은 치마저고리도 10년세월이 되도록 동정 한번 갈아달지 못한 새것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그래, 이 섬에서 어머니라이란 뭐예요?》

나는 금시 울음이 나올것만 같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성난 손길에 이끌려 그만 제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다시한번 말해봐라. 어머니라이 뭐 어쩔다구?...》

《난, 난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되고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어머니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킨듯 가볍게 떨렸다.

《네가 감히...》

내 눈가에는 벌써 눈물이 그렇그렇 고이기 시작하였다. 참지 못할 반발심에 오연히 부르짖었다.

《난 어머니가...》

순간 어머니의 봉대감긴 손이 사정없이 뺨을 후려갈기는듯 한 착각을 나는 느꼈다. 그러나 뜻밖에도 어머니는 의연히 침묵을 지키며 그 자리에서 까딱하지 않았다. 웅당 성을 내야 할 어머니얼굴에는 분노뒤끝에 오는 심한 허탈감이 그대로 드러나있을뿐이었다.

무엇을 아예 단념해버린듯 한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문득 갈린 목소리로 나뉘듯이 말했다.

《가거라, 아무데든!...》

그제야 나는 정말 한대 얻어맞기라도 한듯 어머니 무릎에 어푸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없이 나를 밀어버리며 자리에서 일어서 부엌으로 나가버렸다.

아버지는 어느때와 다름없이 늦게 집에 들어왔다. 나는 옷방의 침대에 누워있었다. 아래방에서 아버지의 물음에 가까스로 대답하는 어머니의 맥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어 옷방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나는 그만 벽쪽으로 돌아누워버렸다.

아버지는 내 침대가장자리에 앉았다.

《시험을 잘 쳤다지, 축하한다!》

나는 그냥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까딱하지 않았다.

《아직은 어머니가 다 말해주지 않아 잘 모르겠다. 하지만 네가 연구사를 지망했다고 해서 어머니가 성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높이 가지는건 좋은 일이지.》

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아버지는 정겨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진심으로 과학탐구에 뜻을 두었다면 이 아버지도 반대없다. 그리고 이 섬의 의사로 되는

문제는...》

아버지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여전히 부드러운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그것도 네 결심에 맡기겠다. 왜냐하면 강요해서는 살수 없는 곳이 바로 섬이기때문이다. 그렇게는 한생을 못살아. 그러구 네가 이 아버지가나이를 걱정했다는데 자식된 도리로 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네 마음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이 아버지는 섬을 떠나서는 살수 없는 몸이야. 언젠가도 말했지만 이 섬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군복을 입은 이 아버지가 있는게 아니겠니.

너도 앞으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게다. 앞으로 대학기간이라는 나날이 있으니 올바른 눈으로 생활을 가려보고 선택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 아버지도 서둘러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한가지를 강요하고싶지 않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고는 아래방으로 내려갔다.

나는 잠시 두눈을 감고 아버지의 조언을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명백한것은 모든 결심을 나에게 맡겼다는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나는 스스로 품은 희망에 대하여 더 무겁게 생각해보기 시작하였다.

나의 꿈을 현실로 이끌어주듯 의학대학입학통지서가 와닿았다.

대학으로 떠나는 나를 바래러 부두에는 어머니가 나왔다. 어머니는 어머니였다. 그날에 있던 일때문인지 아침에 일어나보니 어머니의 눈언저리는 불긋하니 부어있었다. 간밤에 나몰래 울었을것이다.

《밤에 잘 때에는 꼭 모포로 배를 가리우거라.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제때에 편지하고...》

나는 어머니품에 슬며시 안겼다.

《어머니, 제 걱정은...》

나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정작 헤어지자니 목이 짹 메였던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위하여 마음써온 어머니의 다심한 손길을 이제 더는 몸가까이에서 느껴볼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솟구쳤던것이다.

나는 그 울음을 가까스로 씹어삼키며 발동선에 올랐다. 어머니모습과 함께 내가 살던 집, 공부하던 학교, 내가 울랐던 산봉우리 그리고 내가 뛰놀던 백사장이며 도래곶이가 눈앞에서 점점 멀어져가고있었다. 어머니모습이 조그마하게 보이자 나는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어머니, 전 꼭 성공하겠어요. 그때면 아버지, 어머니도 기뻐 이 딸을 이해할거예요.

#### 4

대학기간에 나는 교원들이나 동창생들속에서 공

부밖에 모르는 학생으로 알려져있었다. 그렇게 된 데는 남모르게 품은 꿈도 있지만 의학이라는 그 분야가 그처럼 매혹적인 취미를 불러일으켜주는데야 어찌하랴!... 휴식일도 잠시간도 다 잊었다. 어찌다가 동무들이 극장구경표를 들고왔을 때에도 가볍게 거절하였다. 대학입과가 끝나면 도서관과 대학병원에 나가있었다. 그런 노력이 있어 대학말기에는 컴퓨터에 의한 림상진단법을 연구발표하여 대학생과학탐구상까지 받았다. 그러자 동무들은 물론이고 일부 교원들속에서도 졸업후 대학연구소에 떨어지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가 들어왔다.

드디어 섬을 떠나오면서 품은 나의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정작 대학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섬에서 외롭게 지낼 아버지, 어머니모습이 때없이 떠오름을 금할수 없었다. 참자, 이제 내가 더 발전하면 아버지, 어머니도 나를 이해해주고 기뻐할것이다. ...

얼마전에 영희가 찾아왔다. 자기의 생일이라는 바람에 졸업시험기간이었지만 어쩔수없이 끌려갔다. 그날따라 부대훈련장에 늘 나가살다싶이 하던 영희 아버지까지 와있었다. 무척 반가와하며 나를 축하해주었다.

《과학탐구상이라!... 팬찮아,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고 그 열정이야 어디 가겠나!》

내가 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침묵을 지키자 영희 아버지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해주었다.

《언젠가 갈미섬을 가까이 한 바다가를 지나시던 우리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갑자기 차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수평선쪽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갈미섬으로 말하면 그 어느 섬보다 생활조건이 좋지 않은 곳인데 우리 군인들과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다고 안색을 흐리시었지. 그러시고는 수행원들에게 갈미섬을 잘 꾸려야 한다고, 그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절절히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장군님의 그 뜻을 받들고 대학을 졸업한 네 아버지도 그리로 자원하여갔다. 정말 영예롭고 무거운 과업을 네 아버지는 스스로 맡아안았지.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장군님의 걱정을 털어드릴 그 일념으로 아직 섬을 뜨지 못하고있는거다.》

그날 저녁 영희 아버지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머리에 내리기 시작한 흰서리, 늘 소금버께가 내돈아있는 색깔은 군복, 굵힐수 없는 결심을 알리듯 꼭 닫겨진 입술, 정열에 넘쳐있는 서글서글한 눈, 그 모든 아버지모습이 점차적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내 눈가에 비껴들기 시작하였다.

어느날 대학도서관에서 기숙사로 들어서는데 어머니의 편지가 와있었다.

나는 조용한 기숙사휴식처에 가서 편지를 펼쳐 들었다. 눈에 익은 어머니글씨가 안겨왔다.

《영애야, 보고싶구나!...》

편지 첫머리에서부터 눈곱이 찢릿하게 젖어들어 나는 잠시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금 글줄을 따라갔다.

《지금 이 어머니 심정을 무슨 말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영애야, 놀라지 말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갈미섬에 오셨댔다!...》

순간 내 눈길이 굳어졌다. 파도사나운 바다길로 여러시간 가야 하는 갈미섬... 바로 그런 곳에 우리 장군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에 가슴이 후두둑 뛰었던것이다. 그 놀라움과 긴장감에 애써 가슴을 누르며 서둘러 글줄을 뒤쫓았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오랜 시간 섬의 곳곳을 다 돌아보시었다. 새로 일떠선 군관사택마을과 부대병원, 종합봉사시설을 갖춘 <갈미원> 이랑 수산부업기지 그리고 염소목장, 토끼목장...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과일나무들이 짝 들어찬 섬을 둘러보시며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여기서처럼 나무를 많이 심어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갈미원> 같은것은 도시사람들이 와서 봐도 울고 갈것이라고 기뻐 웃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네 아버지가 걸어온 지난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물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부대장동무가 그 어디보다 생활조건이 어려운 갈미섬을 스스로 맡아안고 최고사령관에게 만족을 드리기 전에는 섬을 절대 뜰수 없다 하며 물으므로의 소환도 마다했다는데 자신께서는 이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부대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였다. 촬영대앞에 이르신 장군님께서 웬일인지 섭섭한 안색으로 수행원들을 둘러보시었다. 그러시면서 군인가족들이 왜 보이지 않는가고, 정든 고향을 떠나 갈매기울음소리, 파도소리만 들려오는 이 외진 섬에서 남편들의 혁명사업을 묵묵히 도와가는 그들이야말로 혁명가의 안해, 최고사령부작식대원들이라고 하시며 어서 모두 불러 우리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자고 뜨겁게 이르시었다. 영애야, 그래서 이 어머니도 장군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 장군님께서 섬을 떠나실 때였다.

배에 오르신 장군님께서서는 웬일인지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서시었다. 그러시고는 못다주신 사랑이 있는듯 또다시 네 아버지를 정겹게 바라보시다가 ...동무는 이 섬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네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요즘 여기 섬사람



들은 네가 언제 오는가고 이구동성으로 물어본다.  
 처음 나오는 섬태생의사라고 자기 일들처럼 기  
 빼하누나. 영애야, 사람은 자기를 필요한 존재로  
 찾아주고 불러줄 때만큼 행복한 순간은 없단다.  
 어디에 더 필요한 존재로 되는가 하는거다. 그건  
 너의 결심에 맡기겠다. ...

부디 건강하여 졸업시험을 잘 치기 바란다.  
 어머니로부터》

이른아침 도시를 떠난 시외버스는 점심때가 되  
 여서야 부두근처에 멈춰섰다.

버스에서 내린 나는 대학기간의 책들과 학습장,  
 생활필수품이 들어있는 커다란 여행용가방을 들고  
 부두쪽을 향하여 걸음을 옮겼다.

갈미섬으로 건너가는 부두는 사람이 많지 않았  
 다. 갯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섬에 배치되어가는듯  
 한 몇명의 애젊은 군관들과 한쌍의 신혼부부뿐이  
 었다.

그들은 대학생복차림으로 나타난 나를 호기심어  
 린 눈길로 훑길훑길 훑쳐보았다. 나이지숙한 발동  
 선선장만이 나를 알아보고 반기였다.

《허? 졸업인가?》

내가 대담대신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리자 그는  
 껄껄 웃었다.

《집에서 꽤나 반가와하겠군!...》

발동선은 드디어 섬을 향하여 닻을 올렸다.

새롭게 찾은 참된 생활의 향로를 따라 나도 마  
 음의 닻을 올렸다. 어제와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  
 니는 나에게 섬을 강요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이 길에 들어서고있었다. 배전을 스치는 푸른 물  
 결을 바라보는 내 눈가에는 어린시절의 옛 추억이  
 떠올랐다. 바로 여기였다. 발동선에 실렸던 이사  
 집, 그 사이에 앉았던 나, 자그마한 여행용배낭에  
 서 꺼내들었던 조가비들!... 아, 그 조가비들은 지  
 금 어디에 있을까? 바다밑 어느 산호초속에 외로  
 이 묻혀 잠들고있으리, 이름모를 물고기들만이 무  
 심히 그 주위를 노닐고있으리. ...

이제라도 그 조가비들을 이 두손에 다시 모아담을  
 수 있다면, 그 조가비들을 다시 찾을수 있다면!...

조가비들은 버렸지만 섬은 더 강렬히 내 마음속  
 에 깃들어있었다. 그것은 새롭게 찾은 아버지, 어  
 머니모습이기도 했다. 갈미섬으로 이사온 날 저녁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바로 이 섬도 조국  
 의 한 부분이기에 이 섬을 지켜 군복입은 아버지  
 도 있는거란다. ...

나는 그때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  
 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우리 장군님께서 그 뜻을  
 일깨워주셨다!

섬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한 사람!... 무엇이 아  
 버지로 하여금 그런 사람으로 살수 있게 하였던  
 가! 아버지의 가슴속에는 늘 섬이 있었다. 비록  
 지도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척박한 땅이라 해도  
 우리 장군님께서 더없이 귀중히 여기시는 조국의  
 한 부분이였다.

나는 이것을 몰랐다. 그래서 아버지는 섬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대학을 갔지만 나는 섬에 다시  
 오지 않을 작정으로 대학에 갔다. 그렇게 떠나간  
 도시에서 어떻게 섬이 보일수 있으랴! 방학기간  
 집에 와서도 나날이 변모되어가는 섬의 현실을 자  
 신의 리상과 이어보려 하지 않았다. 누구인가 말  
 한 도시현훈증에 걸렸다 할지...

나는 아득한 수평선을 향하여 고개를 들었다.  
 과거와 오늘 그리고 래일로 이어진 희망의 푸르른  
 바다, 푸르른 하늘이 찬연히 펼쳐져있다.

순박하고 진실한 섬사람들이 지금 나를 기다리  
 고있었다.

어머니의 편지구절이 다시금 눈가에 떠올  
 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아시는 사람이 된 아버지,  
 한시바빠 아버지를 보고싶었다. 그 넓은 품에 얼  
 굴을 묻고 마음껏 울고싶었다.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애만 먹인 이 딸을 용서해주세요. ...

나는 자기의,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았다. 그  
 걸 떠난 사람의 삶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허황한것  
 인가!

갈미섬이 수평선너머 우렁이 떠올랐다. 분명 바  
 다와 하늘이 잇닿은 수평선에서 섬이 보이기 시작  
 하였다.

## 경구, 격언

## 명 예

- 명예는 사려면 3만냥, 팔려면 3냥
- 명예는 사람의 재부
- 처녀의 명예는 그의 재산이다
- 명예는 외적인 량심이고 량심은 내적인 명예이다
- 명예는 강물과 같다. 가볍고 텅 빈것은

- 떠내려가고 무겁고 짙 찬것은 가라앉는다
- 사람마다 영광의 높이는 다른것이다
- 갑자기 찾아온 명예는 인차 가버린다
- 남의 명예를 빼앗는것은 자기 명예를 잃는것이다

## 어느 한 군양묘장에서

리 명 현

이미 잘 알려진 사실도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범상스런 생활의 갈피에 잠겨 사람들의 기억속에  
서 멀어져간다.

우리 생활은 벅차다, 투쟁하며 전진하고 전진하  
며 투쟁하는 생활이기에.

그러나 그 생활의 주인공들이 발휘하는 아름  
다운 지향, 아름다운 소행은 자못 평범하고 소박하  
리라. 고개숙인 이삭처럼, 향기를 품어싸안은 꽃  
송이같이.

흔연히 흐르는 평범한 생활속에 평범치 않은것  
이 없다고 누가 단언할수 있으랴.

...

언젠가 구장군인민위원회에 출장을 갔던 나는  
군양묘장에 들렀던적이 있다.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모들이 자라고있는  
양묘장의 풍경은 정말 보기 좋았다. 발머리에서  
그곳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양묘장을 둘러보  
던 나는 발 한쪽에서 일하고있는 여기 종업원같이  
보이지 않는 두 늙은이에게 눈길이 가게 되었다.

누군가고 물어보는 나에게 책임자가 말해주었다.

《저들이 김광철영웅의 부모들입니다.》

1990년대의 첫 영웅으로 력사에 남아있는 김광  
철영웅을 모를 사람은 없다.

더불어 어느해인가 신문에 실렸던 김광철영웅의  
가정을 소개하는 기사내용이 떠올랐다.

혁명군대지휘관으로서 웅당 해야 할 일을 한 아  
들에게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시고 그  
의 삶이 영생의 언덕에서 값높이 빛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심장에 지니고 아들딸을 모두 최전연초  
소에 내세우고 인민군군인들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원호사업에 온갖 지성을 바쳐가고있다는 영웅의  
부모들인 김명룡, 신송옥부부!

겪어온 인생의 다반사를 주름으로 엮은듯 한  
그들의 해별에 탄 얼굴을 바라보던 나는 직업적  
충동에 이끌려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삼아 자기  
소개를 하고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가 물어보  
았다.

《이 파일나무모들을 광철이가 복무했던 부대에  
보내자구 그런다우. 여기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키워준다 하지만 우리 마음이야 어디 그렇소. ...

우리 장군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 광철이 부대를  
찾으실 때 파일나무가 무성한것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

파일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는 초소!

다시 부대를 찾으시여 파일나무들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우리 장군님!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웅어리져 치밀어오른다.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 선군의 먼먼 길우에 찍  
어오신 자옥자옥이 우렁치 눈앞에 떠오른다.

세계가 조선을 지켜보던 그때.

자주적인민의 존엄을 수호하는 우리 인민의 앞  
길에 엄중한 도전이 부딪친 력사의 그 시기에 조  
국과 민족의 운명 한몸에 안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선군의 보검 높이 드시고 찾으셨던 군부대들 얼마  
나 많고많은가.

녀성해안포중대를 찾으셨을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병실주변의 감나무들을 바라보시며 감나무가 많으  
니 보기도 좋다고, 그러니 이 중대는 감나무중대  
라고, 이제 열매가 익을 때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이야기도 그 나날에 생겨난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도의 길에서 제일  
기뻐하시며 수고 많았다고, 기특하다고 아낌없이  
칭찬하시고 내세워주시는것도 수림화, 원림화가  
잘된 고장과 군부대들이다.

그이는 정녕 무비의 담력과 천재적예지를 지니시  
고 총포성없는 전쟁을 승리로 명도하시는 강철의  
령장이시기 전에 조국의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  
는가 하는 생활의 철리를 가르쳐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이, 위대한 스승이시였다.

건군력사에 사랑의 전설로 아로새겨진 조선인민  
군 중대의 그 이름들에 붙여진 나무들을 단순히  
경치를 돋구어주고 열매를 안겨주는 나무로만 우  
리는 볼수 없다.

그것은 우리 인민군군인들의 가슴속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심어주시는 조국의 향기이고 정이고 사  
랑이며 나아가서는 조국의 귀중함과 함께 곳곳이  
마음속 기둥으로, 버팀목으로 되어주기도 하는 조  
국애의 상징이기도 하다.

우리 장군님의 그 선군의 자옥과 더불어 세월이  
흐르고흐른다.

변혁의 년륜을 감고감는 이 땅의 그 기상은 더

# 고향의 밤길에

김 무 림

내 출장길에 잠간 들린 고향의 밤길  
밤철차를 멀리 바래우고  
눈감고도 갈수 있는 큰길을 두고  
내 걸었네 철길과 나란히 뻗은  
좁은 길 어린시절 추억이 깔린 길

하나둘 침묵도 세어보며  
철길녘 코스모스향기도 맡아보며  
마음은 동심에 잠겼는데  
그 동심의 끝없는 세계로 불러주듯  
가락맞게 들려오는 레루못치는 소리  
철길우에 반짝이는 전지불빛

나는 철길우에 올랐네  
그리고 수고많은 철길순회원아바이에게  
담배도 권하며 물었네  
아바이는 언제부터 이 일을 하는가고

달빛젖은 레루에 걸터앉은 아바이  
자랑스럽게 말을 했네  
제대되어 오늘 이때까지  
10리구간 철길우에 30여년세월을 실었다고

레루... 침묵... 자갈을 밟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아바이의 30여년로동생활이  
이 산촌 10리철길구간이었던 말인가  
남들이 즐겨걸는 넓은 길대신  
철길만을 따라 오갔단 말인가

아 세월과 세월을 레루와 레루처럼 이어가며  
달과 해를 침묵처럼 고여가며  
날과 날을 자갈처럼 다져가며  
나라의 동맥에  
자기의 피줄을 이어놓고 산 아바이

부끄러웠네 얼굴이 붉어졌네  
내 철차를 타고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했던가  
내 이들처럼 살았던가  
당과 조국을 위해 묵묵히 살아온 이들처럼

나는 생각하였네 철길에서 잠간 만난  
철길관리원아바이 같은  
이런 애국의 마음에 받들려있기에  
조선이라는 혁명의 기관차는  
강성대국승리의 그날을 향해  
질풍같이 달리고달려  
정시에 닿으리라!

~~~~~  
푸르고 억세게 그 위용 세상에 펼쳐나간다.

우주에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날아오르고 선군  
의 위력이 성새처럼 쌓아져있거니 력사에 전무후  
무한 선군의 위대한 평장을 높이 모신, 자주를 제  
일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인민이 가는 앞길 막을  
힘 이 세상 어디에 있으랴.

어제날이 없이 오늘이 없고 오늘이 있어 래일이  
있거니. 나는 영웅의 부모들의 모습에서 이 진리  
를 체험하고있다.

말년을 편안히 지낼수도 있는 그들이었다.

하지만 누가 시키지는 않는 일, 향기론 열매 주  
령지는 과일나무를 초소에 심고 가꾸게 하여 군인  
들에게 조국의 귀중함과 고마움을 알게 하자고 로  
년에도 변함없이 원군의 길을 걷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10월의 대축전장에 울려  
퍼지던 군민의 환호성의 여운이 이들의 마음속에  
도 생생히 남아있다.

그것이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지향으로 이어져 그들의 삶을  
오늘에도 영원히 빛내는것이 아닌가.

그지없이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땅에 사회주  
의무릉도원, 주체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시기 위  
해 불철주야로 초강도강행군길을 걷고계신다.

천만의 군대와 인민이 그이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춰나간다.

최현발전소 군인건설자들, 주체철, 주체숨, 주  
체비료의 생산자들, 경쟁바람의 기폭을 앞장서 날  
리고있는 미곡과 동봉의 농장원들...

소박하고 평범한 아름다운 사람들의 원군길도  
계속 이어지고있다.

찬란한 해빛이 아낌없이 뿌려지는 가을날에 나  
는 영웅의 부모들과 함께, 이 땅의 천만군민과 함  
께 끝나지 않을 원군길을 걷고있다.

# 아버지의 군복 외 1편

리 성 칠

표창휴가 받고 고향에 온 이 저녁  
금빛혼장 무겁게 드리운  
아버지의 군복결에  
나의 군복 나란히 걸어놓으니  
아 가슴뜨거워라  
생각도 깊어져라

아버지의 군복  
바로 이 군복이 아니었던가  
내 어린시절 군사놀이하다가도  
초소에 잇닿은 동구길로 달려가  
아버지품에 안길 때면  
두불을 포근히 감싸주던 그 군복자락이

그땐 미처 몰랐어라  
하얀 등산모 꼭 눌러쓰고  
야영지로 떠나던 그날에도  
아버지의 이 군복이  
험산준령을 뚫으며 땀엔 얼마나 젖었는지  
군무의 밤 찬이슬엔 또 얼마나 젖군 했는지

정녕 몰랐어라  
철없던 그 시절  
내 달콤한 꿈나락에 빠져든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군복은  
최전연고지에서 초연에 그슬리고있는줄은

지금도 아버지의 군복  
가만히 살펴보면  
그날에 젖었던 새벽이슬이며 초연이  
아직도 이 옷깃에 그대로 어려있는듯

알았노라  
조국이 안겨준 군복 입고  
성스러운 복무의 자욱을 새겨가는 오늘에야  
어이하여 아버지가 이 군복을  
한생토록 벗지 않으시는지  
어이하여 어머니가 이 군복을  
날마다 그리도 정성껏 손질하군 하시는지

다 어리여있구나 아버지의 군복엔  
조국이 안겨주는 믿음도  
티없는 애국의 무게도  
총과 함께 영원히 빛내여갈  
내 인생의 참다운 삶의 좌표도

아 속삭이누나 아버지의 군복은  
수령결사옹위의 그 첫자리에  
이 아들이 서라고  
조국의 기억속에 영원한 영웅병사  
내가 되라고!

## 그대들이 사는 곳은

—인민대표단 성원이 최전연에서 부른 노래—

에서 평양은 얼마나 멀던가  
내가 떠난 수도에서 여기는  
산을 넘어 들을 지나 천리  
허나 어찌 멀다고만 하랴  
최전연병사 그대들이 사는 이곳이

여기선 어느 하나도 무심히 볼수가 없구나  
전호가의 나무 한그루 바위 하나  
병실마다 정중히 모신  
한장한장의 사랑넌친 사진들...

정녕 무심히 볼수가 없구나  
우리 장군님  
삼복철무더위도 아랑곳없이 넘고넘으신  
칩칩 힘한 령 저 굽이굽이를  
대소한추위도 아랑곳없이 오르고오르신  
저 칼벼랑길을

예가 어디더나  
이 나라 초소의 한끝  
그 언제 적란이 날아들지 모르는 곳  
총구와 총구가 맞서

서리발 풍기는 최전연초소가 아니더나

지금도 다 말해주고있구나  
칼도마소리 정다운 취사장  
손수 열어보신 가마들마다  
후덥게 뿜어나오는 더운 김 더운 김

어찌 이 초소에서만이랴  
공장에 가시여서도 병사들 생각  
농장에 가시여서도 병사들 생각  
질 좋은 경질그릇 하나를 보시여도  
맛 좋은 과일을 하나 보시여도  
여기 최전연병사들한테부터  
어서 보내주자 하셨나니

아 하늘땅에 넘치는 어버이사랑이여  
복반은 최전연병사들이여  
그대들은 언제나  
장군님마음속에 살고있구나  
장군님 계시는 최고사령부뜨락가에  
그대들이 살고있구나!



1

별빛이 총총한 산촌의 깊은 밤이었다.

수림이 우거진 골짜기로 흐르는 강기슭 누계막 모닥불가에서 깜박 잠에 들었던 김유성은 개짖는 소리에 화닥닥 놀라 깨어났다. 그의 옆에 발쭉한 귀를 쫓깃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던 검정개가 갑자기 자리를 차고 일어나 사납게 짖어대며 오리 나무숲사이를 꿰질러 절벽밑 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유성은 벌떡 일어나 그쪽으로 전지불을 비쳤다. 잔잔하던 소가 갑자기 가마안의 물끓듯 부글부글 끓어번지며 팔뚝같은 고기들이 푸들쩍푸들쩍 은빛 수면위로 뛰어오르고있었다.

알뜰이를 하기 위해 호수에서 강을 거슬러올라 오던 송어들이 아마 수달의 습격을 받고있는 모양이었다.

유성은 살창을 집어들고 소로 달려갔다.

검정개는 어느새 먼저 소에 뛰어들어 용맹하게 절벽쪽으로 헤엄쳐가고있었다. 그러자 송어를 잡아먹으려고 물속으로 자맥질해들어갔던 수달이 위험을 감촉했던지 물위로 솟구쳐올라 재빨리 기슭으로 달아나더니 숲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검정개는 달아나는 수달을 향해 《왕! 왕!》하고 끝없이 으렁으렁 울리게 짖어댔다.

《검비! 검비! 휘-익!》

유성이 휘파람을 길게 불자 검정개는 주인에게로 돌아와 흥분하여 땀돌았다. 아마 끝까지 추적하고싶은 모양이었다.

《그만하면 됐다, 검비!》

유성은 검정개가 비호같이 날래고 령리하다고 하여 사랑스럽게 검비라고 불렀다. 그가 검비의 늘씬한 허리를 쓸어주며 애무해주자 검비는 몽롱한 주둥이를 그의 바지가렁이에 부벼대며 살갑게

라 광 철

돌아갔다. 한차례의 소요가 일어났던 소는 다시금 조용해졌다. 물속에는 사금알갱이들을 뿌려놓은 듯 별들이 가득 내려앉아 반짝이고있었다.

유성은 나무꼬챙이로 모닥불을 피워놓았던 자리의 재무지를 헤쳤다. 그러자 빨간 불씨들이 이글거리며 살아올랐다. 그는 그속에서 조약돌같이 디글디글한 감자알들을 끄집어내고 다시 불을 지펴놓았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자 칠칠알흠이던 사위가 극장의 무대처럼 환히 밝아졌다. 자작나무, 붓나무, 다릅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나무들로 혼성림을 이룬 숲이 모닥불이 너울거릴 때마다 붉어지기도 하고 푸르고 검게도 변하곤 했다. 강바닥에 울퉁불퉁 배겨있는 바위들을 감돌기도 하고 타고넘기도 하며 흐르는 강물소리만이 계곡의 고요한 밤정서를 유성히 흔들어놓고있었다.

유성은 파끈파끈한 감자알을 하나 집어 돌우에 솟검뎡이를 탁탁 털고는 꺼렇게 된 껍질을 벗겼다. 노르끼레하게 익은 속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다. 그는 입김을 후후 불어 그것을 옆에 점잖게 앉아있는 검비에게 먼저 주었다. 검비는 밤알같이 반질반질한 코등을 벌름거리더니 넌름 감자알을 받아물었다. 그다음 유성이라도 한알 입으로 가져갔다. 수림속 모닥불가에서 솟검뎡이를 입술에 묻혀가며 먹는 군감자맛이란 참 별맛이었다.

감자구이맛이란 잘 모르고 자란 유성이었지만 이 심심산골에서 수년세월 살아오면서 이제는 군감자뿐 아니라 향긋하고 새크무레한 돌배나 머루, 다래는 물론 짧은 구름나무열매의 진맛까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유성은 그 감자맛도 별로 유별히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요새 생각이 복잡했던 것이다. 딸 송이가 학교갈 나이가 되자 안해인 조혜정이 이제는 천연기념물보호감독원사업을 인계하고 자식을 위해서 읍에 내려가 살자고 조

르고있는것이다. 립산마을에도 분교가 있었지만 조혜정은 아이는 시내에 나가 키워야 한다고 생투정을 부렸다. 사실 자신도 한적한 이 심심산골에서 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사실 유성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는 ××광산에서 한번 보람있게 일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군대에서 제대되어 들끓는 광산이 아니라 인적드문 이 산골로 오게 되었다.

이 산중의 마양호수에는 천연기념물인 마양송어가 있다. 바다로부터 알쭉이를 하려고 강을 거슬러 이곳까지 올라왔던 송어때가 수십년전 언젠가 일어서고 호수가 생겨나면서 정착되어 사는 동안에 민물송어로 변화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희귀한 물고기였다. 이 마양송어가 국가적인 천연기념물로 등록되어 적극 보호증식되어오고있었다.

바로 그 보호감독원으로 유성이 배치되었던것이다. 처음에 그는 산중호수에서 저절로 사는듯싶은 그 송어와 함께 이 깊은 산골에서 피가 펄펄 끓는 나이를 잠재운다는것이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혔다. 그런 일이야 나먹은 사람들에게 말겨도 될상 싫은데...

유성은 다시 자기를 어렵고 힘든 광산으로 보내 줄것을 제기했다. 그는 최전연초소에서 복무하던 병사의 자세그대로 강성대국전설의 중요전선에서고싶었다.

중년의 로동부장은 머리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최전연에서 군사복무를 한 제대군인이 정말 다르구만. 바로 그런 정신과 뜨거운 조국애를 가지고있는 사람이 필요하기때문에 동무를 그곳에 보내는것이요. 지난 시기에는 조국을 지키는 전초병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국을 받드는 뿌리같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할가.》

그는 마치 중요한 간부를 임명하기라도 하는듯 큰 의의를 부여하며 그루를 박아 말했다.

그때도 유성은 마음이 잘 동하질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까지 그려보던 가슴벅찬 생활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생활이었기때문이었다.

로동부장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절충안을 내놓는 식으로 말했다.

《여하튼 당분간이라도 그 일을 맡아보오. 지금 그 일을 맡아보던 사람이 년로보장나이가 지난데다가 건강이 좋지 못하여 그 누구든 대신해야 할 형편이니 어찌겠소. 후에라도 그 일이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 가서 동무가 요구하는대로 해주겠소.》

유성은 더이상 거절할수가 없었다. 그는 로동부장의 말대로 다른 후임이 생길 때까지만이라도 그 일을 맡아보기로 했다.

마양호수가 있는 곳까지는 읍에서 백리가 넘었

다. 그곳에는 대낮에도 햇빛 한점 스며들지 않는 태고연한 수림과 작은 립산마을이 있을뿐이었다. 옛날에 말을 방목하던 곳이라고 하여 마양이라고 불렀다.

유성은 우선 송어의 기본서식지인 호수와 알쭉이철이면 알쭉이를 하러 거슬러오르는 성천수를 따라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그 거리만 해도 왕복 백리길이 넘었다. 그와 함께 보호구역을 돌아본 전 천연기념물보호감독원이었던 최인국아바이는 새로 배치되어온 제대병사 유성을 기대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무거운 어조로 말했다.

《이전에는 이 성천수가로 알쭉이철에는 송어때가 무리지어 오르는것이 참 볼만 했네. 오죽하면 빨래하러 나왔던 아낙네들까지 빨래방치로 팔뚝만 한 송어를 한두마리쯤 때려잡아 소랭이에 담아가는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겠소. ... 그런데 지금은 해마다 송어 마리수가 점점 줄어들고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네.》

그는 담배를 붙여물고 한껏 빨아들었다가 한숨과 함께 후 내뿜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유성은 수림속의 자작나무처럼 검붉은 아바이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글쎄 과학적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고난의 행군시기 어느해인가 큰물이 생겨 언제 수문을 열어놓았던적이 있는데 그때 많이 떠내려가기도 하고 또 알쭉이터인 이 성천수도 이전보다 물량이 꽤 줄어들었네. 또 큰물이 질 때면 산사태가 자주 밀려내려와 송어의 알쭉이생태환경에 지장을 주고있는것 같네. 지금 생태환경의 변화로 얼마나 많은 동식물들이 이 지구상에서 사멸돼가고있나. 그러니 세계적인 자연환경변화의 영향이라고도 볼수 있지. 여하튼 내가 일을 쓰게 하지 못했네.》

천연기념물인 마양송어를 수십년동안 돌보며 인생을 이 심심산골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아바이였지만 그는 지금 말년에 이르러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고있었다.

유성은 그를 무엇이라고 위로해주고싶었으나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마양송어를 보호증식하자면 어쨌든 앞으로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처럼 자연환경에만 맡겨두어서는 계속 줄어들거네.》

《그러면 양어를 하면 될게 아닙니까. 양어를 하면 우리 장군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인민생활에도 이바지할수 있고 마양송어가 사멸될 걱정도 없지 않습니까?》

유성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흥분하여 말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알쭉이때문에 그러네. 마양송어란 놈은 원래 수십리 강줄기

를 거슬러오르면서 알이 성숙되는데 강줄기도 제  
가 오르내리던 곳으로만 딱 오르내린다네. 이 마  
양호수로 여러 물줄기들이 흘러들고있지만 그 송  
어란 놈은 알쫄이철이 되면 꼭 제가 깨어난 이 성  
천수로만 오르지. 그런 생태적특성때문에 이전에  
마양송어를 양어해보겠다고 저 광산후방가지 양어  
장에서 가져갔던적이 있는데 알쫄이를 하지 못하  
여 끝내 실패하고말았다네. 그러니 이 성천수관리  
를 잘하는것이 자못 중요하네.》

유성은 호수가나 강기슭을 산보삼아 돌아보면  
되는 일처럼 생각했던 이 일이 이처럼 복잡하  
고 심각할줄은 몰랐다.

파연 사회생활의 첫 자옥을 여기서부터 떼야 하  
는가. 남들은 광산과 전야, 들끓는 건설장과 공장  
들에서 신문과 방송이 들썩하게 위훈의 자옥을 새  
겨가고있는데 자기는 이 외진 곳에서 점점 줄  
어들고있는 송어를 맡아안고 고독하게 남모르는  
고행길을 헤쳐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자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할수도  
없었다. 로동부장이 말한것처럼 그 누구든 말아나  
서야 할 일이며 이 일이 험치 않은 일이라는것을  
안 이상 그리고 공민의 의무, 당원의 량심으로서  
도 피할수 없었다. 여하튼 후임이 생길 때까지는  
병사시절처럼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해야 했다.  
이렇게 시작한 일이 이제는 어느덧 수년세월이 흘  
렀고 그사이 그는 여기서 가정도 이루게 되었다.

유성은 감독원사업을 하면서 양어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서적들을 탐독하며 마양송어의 양어화  
를 실현해보려고 남모르는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까지 그 끝을 보지 못하고있었다. 그래서 그  
는 마양송어가 점점 줄어들고있는 현실태와 그것  
을 양어화하기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실험해온 자  
료, 마양송어의 관찰일지들을 종합하여 과학원 양  
어연구소에 보내면서 방조를 간절히 요청했다. 그  
러나 연구소에서는 아직 아무 소식도 없었다.

어느덧 검푸른 하늘의 별들이 하나, 둘 사위여  
지고 산마루가 희뵈해지더니 푸름푸름 날이 밝아  
왔다. 함뿍 이슬이 내려앉은 수려한 숲에는 한껏  
청신한 기운이 감돌았다. 까만 구슬알같은 구름나무  
열매며 불타는듯 한 마가목이며 월굴나무열매가 푸  
른 숲에 진주보석을 수놓은듯 눈앞에 아롱다롱했다.

유성은 흰 물안개가 서리서리 피어오르는 강가  
에 나가 시원스레 세면을 했다. 얼음같이 찬 맑  
은 산골물이 피부에 닿자 짜릿한 쾌감이 온몸  
에 줄달음치며 착잡하던 생각이 가뭇없이 사라지  
고 심신이 거뜨해졌다. 기분이 상쾌해진 유성은  
군대때부터 가지고다니는 피리를 꺼내어 늘 즐겨  
부르는 노래가락을 뽑기 시작했다. 그 노래는 유  
성의 중대가 군무자예술축전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부른 잊지 못할 노

래였다.

시내물 굽이굽이 어디로 가나  
 넓고넓은 저 바다 품으로 가네  
 ...

유성의 피리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퍼지자 잠에  
서 깨어난 산새들도 화답하듯 여기저기서 청고운  
목소리로 우짖기 시작했다. 소연히 흐르던 물소리  
도 피리소리에 화음을 맞추는듯 했다. 강건너편  
짜리골쪽에서 물을 마시러 조심조심 내려왔던 겁  
많기로 소문난 노루도 그만에 제몸을 훌쩍 드  
러낸것도 모르고 강기슭에 앉아 피리부는 유성의  
쪽을 신기하게 바라보는듯 했다.

새날을 맞는 산촌의 아침은 아름다운 피리소리  
와 약동하는 자연의 숨결로 조화롭게 어울려 시  
작되는상싶었다.

## 2

산발들이 병풍처럼 둘러막힌 골안에 아늑하고  
자그마한 립산마을이 있었다. 산촌의 대기는 맑고  
투명했다. 파아란 하늘에는 목화솜무지같은 흰구  
름이 몽실몽실 떠있었고 동기와지붕을 엮은 집집  
의 터밭들에는 무우, 배추를 비롯한 남새들이 푸  
르싱싱했다. 그 울타리마다 키높이 세워놓은 줄당  
콩대들에는 줄당콩들이 자락자락 매달려 산골마을  
의 이채로운 풍치를 돋군다.

집집의 굴뚝들에서 환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  
며 구수한 토장국냄새가 풍겼다.

마을이 가까와지자 검비가 탐스런 꼬리를 내젃  
더니 제먼저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서는 안해가 아침밥을 지으면서 돼지물을  
끓이고 토끼와 염소먹이도 주느라고 분주히 돌아  
가고있었다. 녀자들이 하는 일 황소로도 감당 못  
한다고 그는 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일  
손을 놓지 않고있었으나 그래도 일거리는 계속 남  
아있었다. 산골생활이란 사람의 손이 가면갈수록  
점점 일거리가 늘어나는것만 같다. 집집승을 기르  
고 부업밭을 가꾸고 약초를 캐고 산열매를 따  
들이고... 도시에서 자라 시집오기 전까지 사무실  
에 앉아 회계일이나 보던 안해였지만 무슨 일  
에나 정열적이고 이악한 성미여서인지 이제는 토  
배기 산골녀인들 못지 않게 약초캐기도 산열매를  
따는 일이든 막히는데가 없었다.

부역의 뜯김에 감알처럼 밟그레하게 익은 얼굴  
로 장작단을 안아들이려고 마당으로 나오던 안해  
조혜정은 이슬에 바지가랭이가 흠뻑 젖어 들어서는  
유성을 보자 저도 모르게 가벼운 한숨을 내그었  
다. 그는 송어의 알쫄이철이면 낮이나 밤이나 줄창  
강가에만 나가있는 남편이 민망스러웠던것이다.

(꼭 저렇게 해야만 되니까?)

조혜정은 남편의 고지식한 성미를 모르는바 아니었지만 염소나 토끼를 기르는것처럼 늘어나고 줄어드는것이 잘 알려지도 않고 또 제절로 잘 살아가는것 같은 송어에 남편이 것처럼 극성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은 내색하지 않고 처마밑에 쌓아놓은 장작을 한아름 안아들며 말했다.

《어서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세요.》

《나두요. 내 들여놓을테니.》

유성이 장작단을 받아안으려고 하자 혜정은 도리를 저었다.

《됐어요. 어서 집에 들어가거나 해요.》

유성은 무엇인가 안해의 일손을 돕고싶었다. 그는 염소우리로 다가가 염소를 끌어들었다. 염소의 뒤다리사이에 고무풍선마냥 팽팡 부푼 젖통이 무겁게 흔들거리고있었다. 그는 염소를 붙잡아놓고 주룩주룩 젖을 짜기 시작했다. 뜨스한 흰 염소젖이 푸른 비닐바غه쓰에 부그그 피어올랐다. 젖을 다 짜고난 유성은 염소들을 강변의 풀밭에 끌어들여 매놓고 돌아왔다.

집에 들어선 그는 새로 온 신문을 펼쳐들었다. 신문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일떠선 식료가공공장을 찾으시고 그 공장에서 생산한 여러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가공품들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는 그 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에게 자신의 감사까지 주신 소식이 실려있었다.

유성은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최상의 영광을 받아안은 그 공장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과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전환을 일으키고있는 때에 자기 혼자만 뒤떨어지고있는것 같아 가슴이 막 달아올랐다.

《여보!》

안해가 찾는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부엌에서 양념을 만드느라고 양파를 썰며 눈이 쓰려 눈물까지 난 혜정이 두눈을 습벅이며 말했다.

《오늘 립산에서 시내로 가는 차가 있대요.》

《그런데 왜 그러오?》

유성이 아무 생각도 없이 묻자 혜정은 책망어린 어조로 말했다.

《당신두 참, 래일이 아버지생일이 아니예요.》

그제야 그는 달력을 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아, 그렇지!》

《오늘 마침 차가 있을 때 그 차를 타고 내려가자요.》

그러나 유성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송어생각 때문이었다. 어제 밤 물매 급한 곳들에서 송어들이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것을 보고 오늘 그 강바닥을 정리하려고 계획했던것이다. 송어들이 제 알쓸이러까지 오르지 못하면 중도에서 채 성숙되지

못한 알들을 배설해버리고만다. 그렇게 되면 수많은 새끼송어들을 잃는것이나 같았다.

《여보, 당신 혼자 송이를 데리고 좀 갔다오구려. 지금이 송어의 알쓸이철이 시작되는 시기라는것을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러자 혜정은 오목한 두눈을 동그랗게 뜨고 발끈했다.

《작년 생일엔 시아버님도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쁘시고 은근히 섭섭해하시던데 올해에도 못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찌겠소. 당신이 가서 좀 잘 말해주구려.》

유성이 사정하는 투로 나오자 혜정은 더 말할수가 없었다. 사실 그에게는 이번에 시아버님의 생일날 집안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기회에 한집에 모여살고싶어하는 시부모님들을 내세워 시내로 이사하는 문제도 락착지어보려는 속궁리도 있었다. 그러나 이쯤되면 남편과 함께 가기는 코집이 틀렸다. 이제 이렇구저렇구 말해야 서로 기분밖에 상할것이 없었다. 그래서 혜정은 불만이 가득했으나 감정을 누착히고 말했다.

《그럼 그 송어나 몇마리 좀 잡아주세요. 당신이 마양송어를 말아본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언제 한번 대접해본적이 없는데 이번 생일엔 그 맛을 좀 보이자요. 그러면 아버님도 좋아하실거예요.》

유성은 안해의 그 말이 더 딱했다. 알쓸이가 시작되는 시기 송어를 잡는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것이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참기요. 이제 마양송어의 양어화가 실현되면 그때 부모님들께 제일 먼저 가져가지요.》

혜정은 어이없는듯 허구픈 웃음을 지었다.

《여보, 꿈같은 소리는 하지도 말아요. 양어를 할수 있다면 왜 그걸 천연기념물이라고 하겠어요. 당신은 지금 산짐승을 짐짐승으로 만들어볼 꿈을 꾸는거나 같아요.》

《그것도 사람이 마음먹기 달린거요. 지금 최첨단과학기술로 바다양어도 실현하고있는 땐데 이제 연구소의 도움을 받으면 마양송어의 양어도 실현할수 있을거요.》

《여하튼 당신은 너무 무정해요.》

혜정은 더 말하고싶지도 않은듯 돌아앉아버리고 말았다.

유성은 그보다 더 야속스러운 말을 들어도 지금은 할말이 없는지라 잠자코 안해의 잔등만 바라보았다.

### 3

유성은 식사를 하고나서 건잡을수없이 피곤이 몰려드는것을 느꼈으나 담배를 한대 피우고 일어



섰다. 강을 거슬러오르던 송어들이 물때 급한 그곳에서 떠밀려내리는 광경이 눈앞에 자꾸 어려와 그냥 있을수가 없은것이다. 그는 삼과 지레대를 들고 집을 나섰다. 옆에서는 유성의 그림자와도 같은 검비가 나란히 달음치고있었다.

유성은 우선 자체로 시험적으로 만들어놓은 자그마한 송어못부터 가보았다. 대어섯평방 되나마나한 그곳에는 다른 환경에서 순화시켜보려고 새끼때부터 잡아다넣은 송어들과 강과 호수의 서로 다른 곳에서 잡은 어미송어들이 있었다. 그 못 우에는 짐승피해를 막느라고 쇠그물을 엮어 씌워놓았다.

유성은 송어들에게 먹이를 뿌려주며 한동안 지켜보다가 강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그가 강기슭의 잡관목과 우거진 수림을 헤치며 한참 내려가고있을 때 앞쪽에서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검비는 주인의 얼굴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제먼저 그쪽으로 달려갔다. 뒤이어 검비가 왕왕 짚어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유성이 그곳에 이르니 낮모를 대어섯명의 청년들이 고기잡이를 하고있었다. 그들은 반두그물에 고기를 몰아넣느라고 침범거리며 울퉁불퉁한 강바닥을 성수가 나서 뛰어다니고있었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검비가 불쑥 숲속에서 뛰어나오며 사납게 짚어대니 어지간히 놀란 인상들이었다.

유성이 나타나자 그들의 굳어졌던 얼굴에 화색이 돌며 인사삼아 말을 건넸다.

《아, 그놈의 개 보통이 아닌데. 사냥개요?》

《저런 개가 있으면 이런 산속에서 범을 만나도 무섭지 않겠소.》

고기잡이를 하던 청년들은 유성을 사냥군으로 짐작했던지 저마끔 한마디씩 했다.

《동무넌 어디 사람들이요?》

유성은 아직도 강바닥에 딸뚝처럼 박혀있는 그들에게 물었다.

《오, 우리는 저 산너머 도로건설에 나온 팡산 사람들이요. 혹시 이 산골물에 산천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고기잡이를 나왔는데 이거 정말 굉장하구만. 이 인적드문 곳에 정말 별의별 물고기가 다 있는게 마치 양어장같소. 한번 보겠소?》

키가 짝두룩한 청년이 자기네가 잡은 물고기를 자랑하고싶은듯 바깥쪽을 들고 미끌미끌한 강바닥을 비칠거리며 유성이 서있는 기슭으로 나왔다. 다른 친구들도 줄레줄레 따라나왔다.

《자, 보오. 굉장하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유성을 쳐다보았다.

바깥쪽안에는 송어, 산천어, 빙어를 비롯한 크고작은 물고기들이 아직도 푸들썩거리고있었다.

유성은 죄의식이란 꼬물만큼도 없는 그들을 기가 막힌듯 마주보다가 물었다.

《동문 이 물고기이름을 아오?》

《글쎄 난 원래 물고기에 대해선 잘 모르오. 팡산에서 쇠돌만 캐다나니...》

그는 어쭙게 웃으며 대답했다.

유성은 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건 마양송어라는 물고기인데 우리 나라의 천연기념물이요. 원래 바다송어였던것이 오래전에 강줄기를 따라 이곳까지 올라와 마양호수에서 순화되어 살고있는 그 어디에도 없는 희귀한 물고기요. 그래서 마양호수와 이 강줄기 수십리구간이 국가적으로 천연기념물보호구역으로 제정되어있소.》

유성의 말을 듣고있던 청년들의 눈이 금시 휘둥그래졌다.

《이거 우리가 멋모르고 죄를 지을번 했구만.》

《그러게 말이요. 이 심심산골에 국가적인 천연기념물이 있는줄은 정말 몰랐구만. 그런데 동문 누구요?》

그들은 마양송어에 대해 그처럼 자상히 알고있는 유성에 대해 호기심을 느낀 모양이었다.

《나 말이요? 난 여기 천연기념물보호감독원이요.》

유성이 너그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 그렇구만. 이거 정말 모르다나니. 미안하게 됐소.》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는 다행히도 아직 살아있는 바깥쪽의 고기들을 도로 강물에 놓아주었다. 얼쳐있던 물고기들은 강물에 들어가자 다시금 팔팔해서 꼬리를 저으며 헤엄쳐갔다.

유성은 잠간 그들과 강기슭에 앉아 말했다.

《객지에 나와 생활상 부족한것이 많겠는데 부식물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서 감자나 남새를 좀 가져다 쓰오.》

《아니 뭐, 부식물이 부족해서 고기잡이를 온건 아니요. 오늘이 일요일이어서 천렵삼아 강가에 나왔던거네. 그런데 삼과 지레대는 왜 들고 다니오?》

《요즘이 알쓸이철인데 물살이 급한 곳에선 송어들이 오르기 힘들어하길래 강바닥을 좀 퍼주려고 그러네.》

《그렇소? 이 수십리 보호구역을 혼자서 다 보자면 정말 험치 않겠구만.》

유성은 기껏 잡아놓았던 고기들을 놓아주게 한 자기를 섭섭하게 생각할 대신 오히려 그 수고까지 헤아려주는 그들이 고마웠다.

《괜찮소. 자네들처럼 쇠돌을 짹짹 캐내는 일에 비하면야 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지.》

《아니, 그렇지 않소. 이런 책임적인 일은 누구나 다할수 있는게 아니요.》

키 큰 청년이 진정으로 감심하여 말했다. 다른 친구들도 머리를 끄덕였다.

《동무들, 우리 오늘 여기에 왔던김에 감독원동무의 일을 좀 도와주지 않겠소?》

키 큰 청년이 호소하자 모두가 호응해나섰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다. 쇠돌을 캐는 광부들이여서 그런지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마음들이 활 열려있었다. 유성은 이런 훌륭한 사람들에게 이 마양송어를 푸짐히 맛보게 할수 없는것으로 하여 가슴이 알찌근해졌다.

물소리, 새소리만 유정하던 산골안에 갑자기 청신한 활기가 부어졌다. 청년들은 욱 욱 힘을 쓰며 강바닥 바위돌들을 굴러내리기도 하고 모래자갈을 고르롭게 펴기도 하면서 떠들썩했다.

오 천연기념물 마양송어여  
내 비록 오늘  
너의 생선맛은 못 보았지만  
너를 위해 바치는 이 마음  
왜 이리도 즐거운가

누군가 익살스럽게 즉흥시를 읊자 사나이들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골안을 흔들었다. 잠든듯이 고요하던 푸른 숲도 즐거운듯 가볍게 뒤섰레이고 흐르는 물결도 금빛은빛으로 반짝이었다.

《여보게, 유성이!》

유성이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고있을 때 누군가 찾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를 돌아보니 전 감독원 최인국아바이였다.

《아바이 나오셨습니까. 앓으신다더니 좀 어떠하십니까?》

《좀 낫네.》

《그래도 몸조리를 잘 하셔야지 왜 또 나오셨습니까?》

《집안에 가만히 누워있기보다는 이렇게 강바람을 쏘이는데 낫네.》

인국아바이는 감독원사업을 인계한 후에도 병약한 몸이었지만 늘 유성을 도와주려고 애쓰고있었다. 수십년동안 마양송어를 관리해온 아바이의 경험이 유성에게 큰 도움을 주고있는터였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누군가?》

아바이는 강바닥을 정리하고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예, 저 산너머 도로건설에 나온 광산사람들이는데 여기에 천연기념물이 살고있다는것을 알고 자원하여 도와주고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구만, 그런데 연구소에서는 아직 소식이 없나?》

《예, 아무래도 제가 연구소에 한번 갔다와야 할것 같습니다.》

유성은 오늘 아침 신문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연구소에서 소식이 오기만 기다리고있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

던것이다.

아바이도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게 좋겠네. 그동안 여기 일은 내가 봐주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갔다오게.》

《고맙습니다, 아바이!》

《고맙긴, 이게 어디 자네 혼자의 일인가. 이제 마양송어의 인공알술이를 성공하여 그 어디에서나 기를수 있게 되면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거네.》

유성은 아바이의 말에 가슴이 뛴뛴했다. 정말 하루빨리 그날을 맞이하고싶었다.

#### 4

유성은 길을 떠나 3일째되는 아침에야 양어연구소가 있는 도시에 도착하였다.

연구소는 도시교외의 조용한 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유성이 접수실에서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자 얼마 안있어 중년나이의 준수해보이는 사람이 문을 열어 나타났다.

《동무가 김유성동무입니까?》

《예.》

유성이 인사를 하며 대답했다.

《난 양어연구사 권수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오래간만에 만난 구면친구처럼 맞아주었다.

유성은 첫 대면에 자기를 것처럼 반겨맞아주는 연구사를 보자 수많은 연구과제를 안고있을 연구소에서 마양송어에 대해서는 혹시 뒤전에 밀어놓지나 않았을가 하던 우려가 가뭇없이 사라져버림을 느꼈다.

《자, 어서 들어갑시다.》

수민연구사는 먼저 연구소의 양어못부터 구경시켜주었다. 연구소의 양어못마다에는 칠색송어, 잉어를 비롯한 수많은 종의 물고기들이 옥실거리고있었다.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현대적으로 꾸려진 인공수정실과 알발육실, 새끼고기못까지 다 돌아보고난 유성은 흥분과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정말 대단합니다. 난 연구소가 이렇게 훌륭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민연구사는 인상좋은 등실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우리 나라에서도 최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한 양어를 발전시켜나가도록 구체적인 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양어연구소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도록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셨습니다.》

연구소를 돌아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이야기해주던 수민연구사는 어느

버드나무밑 그늘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유성을 바라보며 자책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런데 우린 아직 장군님의 그 높은 뜻을 따르지 못하고있소. 사실 난 이번에 마양송어와 같은 제 나라에 있는 그 좋은 물고기는 보지 못하고 종래 방식대로 우리 나라 강물에 익숙된 물고기들만 양어장들에 도입하려고 했었소. 그러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하루빨리 높이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관철한다고 생각했었소. 그러나 동무가 보낸 편지와 자료를 보면서 거기에 깃들어있는 애국심에 대해 그리고 나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었소. 제 나라에서 자라는 천연기념물인 그 물고기는 외면하고 쉽게 성과를 얻어보려고 생각하였으니 선군시대의 과학자로서 부끄럽기 그지없소. 언제나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며 최첨단을 돌파해나갈데 대한 장군님의 그 심오한 뜻을 망각했드랬소.》

유성은 제스스로 자신을 심각하게 반성하고있는 연구사가 오히려 돋보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동무가 보내준 자료들에 기초하여 인공적으로 알을 성숙시키기 위한 컴퓨터모의실험들을 진행하고있소. 이제 그 모의실험이 끝나면 직접 현지에 내려가 시험해보려고 이미 당위원회와도 토론이 있었소.》

순간 유성은 너무 기쁘지라 저도 모르게 눈곱에 눈물까지 핑 돌았다. 연구사앞에 넘적 얹드려 절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였다.

《오늘 마침 최종모의실험을 하는데 유성동무도 함께 갑시다.》

유성은 마치 골짜기에 있다가 령마루에 올라선듯 한 기분이였다. 당장 무겁던 마음이 나래라도 돌힌듯 훨훨 날아가는 심정이였다.

컴퓨터모의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유성은 수민연구사와 함께 연구소를 떠났다.

그는 이번에 연구소를 돌아보면서 이 땅우에 자기가 아직 다 모르고있는 위대한 창조의 잠재력이 얼마나 무궁무진한가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선군혁명령도아래 그 어디서나 세계적인 최첨단수준으로 치달아오를수 있는 비약의 도약대가 마련되고있었다.

나의 초소도 결코 한적하고 외따른 곳이 아니다. 나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그이의 리상을 실현하는 전사들중의 한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유성은 마음이 막 조금해졌던 것이다.

산골길에 들어서자 유성은 나래가 돌힌듯 연구사의 배낭까지 짊어지고도 걸음이 점점 빨라졌다.

《좀 쉬었다 가지요. 산길에 들어서니 유성동무 환천왕동이로구만, 허허.》

나무막대기를 등산지팡이처럼 짚으며 부지런히 따라걸던 수민연구사가 자그마한 개울앞에서 얼굴의 땀을 훔치며 말했다.

《그렇가요?》

유성은 연구사가 힘들어하는것도 모르고 그저 제 기분에 떠서 내쳐 걷기만 했던 자신이 민망스러워 싱긋 웃었다.

연구사는 개울가에 넘적 얹드려 수정같이 맑고 시원한 산골물물을 한껏 들이켰다.

《어 거참, 물맛이 좋구만!》

그는 가슴을 쫘하게 하는 물맛에 탄성을 내지르며 온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했다.

《연구사선생님, 이 고장의 물은 산삼을 비롯한 진귀한 약초들을 씻으며 흘러내리는 물이어서 정기가 살아나고 온몸의 힘이 부쩍부쩍 솟아 한모금만 마셔도 산봉우리 하나쯤은 단숨에 넘는답니다.》

유성이 웃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그렇소? 이거 객지에 와서 지내 기운이 살아나도 야단인데, 하하.》

수민연구사는 산촌의 한모금 물에 흠뻑 취하여 익살스럽게 웃었다. 머리우 나무가지에서 눈알을 대롱거리며 그 모양을 지켜보고있던 청서 한마리가 우스운듯 괴이한 소리를 지르며 나무우듬지로 뽀르르 달아올라갔다. 그것을 보며 둘은 또다시 기껍게 소리내어 웃었다.

그날 저녁 유성의 집은 명절처럼 흥성이였다. 연구소에서 마양송어때문에 연구사가 내려왔다는 소식은 이 작은 산골마을에 큰 파문을 일으켜놓았다.

마을의 조무래기들은 연구사를 보냈다고 유성의 집 창턱에 제비무리처럼 모여들어 호기심어린 까만 눈동자들을 반짝거렸고 집집마다에서는 요긴할 때 쓰려고 견사해두었던 송이버섯이며 도라지, 고사리를 비롯한 갖가지 음식감들을 들고왔다. 인국아바이는 몇년 묵은 향긋한 돌배술까지 가지고왔다.

검비도 오늘은 반가운 손님이 온것을 알아서인지 그 누가 와도 짓지 않고 마당에서 꼬리를 저으며 돌아갔다.

수민연구사는 산골마을사람들의 후한 인심에 마치 고향집에 온듯 마음이 후터워졌다. 마을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자기 고장의 자랑인 천연기념물 마양송어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깃들어있는것이다.

유성의 안해는 온 얼굴에 웃음을 함뱍 담고 손님에게 성의를 다하느라고 분주히 돌아갔다. 그는 지금까지 남편이 하는 일을 별치 않게 생각했는데 연구소에서 이렇게 연구사까지 온것을 보면 그저 보통일 같지 않았다. 이러다 정말 남편한테 무슨 큰 행운이라도 생기는게 아닐가 하는 자기나름의 생각에 혜정은 기분이 등 뻗었다.

이튿날 유성은 수민연구사를 송어의 인공알뜚이 시험을 해보느라고 만들어놓은 강기슭의 못가로 데리고갔다. 강기슭바닥을 파고 석축을 해놓은 그 못가에는 크고작은 송어들이 있었다.

《저 꼬리지느러미에 붉은 실을 감아놓은것은 호수에서 잡은것이고 푸른색실을 감아놓은것은 강을 거슬러오르는것을 중간지대에서 잡아넣은것들입니다. 그리고 좀 작은 저 송어들은 새끼때부터 이 못에서 기르는것들입니다.》

수민연구사는 그 송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다가 고리버들가지로 엮은 바구니만 한 조리로 어미송어들을 잡아 하나하나 배를 만져보았다. 강을 거슬러오르던 송어들은 배에 어느 정도 알이 생긴것이 알렸으나 호수에서 잡은 송어들에서는 아직 가늠하기 힘들었다.

그는 못가의 물온도와 못가에 물흐름을 주기 위해 짜놓은 물꺾의 류속을 재보고 강복판의 물온도와 류속도 재보았다. 그리고는 머리를 끄덕이며 유성에게 말했다.

《그새 감독원사업을 하면서 자체로 이렇게 연구사업까지 하자니 정말 수고가 많았겠소.》

《뭐 연구사업이라고까지 할게 됩니까. 그저 저 혼자 이렇게저렇게 해보느라고 한겁니다.》

《아니요. 이 자연환경에서는 유성동무의 착상이 옳소. 컴퓨터모의실험과 대비해볼 때 지금 유성동무의 실험못의 물흐름세기가 좀 약한데 알뜚이못을 강기슭이 아니라 저 강복판에 만들어놓으면 류속을 보장할것 같소. 그런데 저 강복판에 어떻게 못을 만들겠는가 하는것이요.》

수민연구사는 그 방도가 잘 떠오르지 않는듯 유성을 바라보았다. 유성이라도 물살이 센 저 강복판에 어떻게 송어못을 만들어야겠는지 당장은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군대에서 방어진지 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부재를 리용하던 생각이 났다. 그때처럼 콘크리트부재를 만들어 두 벽을 세우고 물이 흘러내리는 앞뒤로는 나무로 받을 엮어놓으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 강물의 류속도 그대로 보장하면서 고기가 새어나가는것도 막을수 있을것이다. 수민연구사도 대뜸 찬성했다.

이렇게 방책을 세우고보니 세멘트가 문제였다. 이 산골마을에서 갑자기 세멘트 나올데가 없었다. 이제 관리소에 제기해서 해결받으면 시일이 걸릴것이다.

유성에게는 문득 언젠가 집수리를 하고 나머지 세멘트를 전사해둔 생각이 떠올랐다.

유성은 급히 집으로 달려갔다. 혜정은 숨가쁘게 달려온 그를 놀랍게 쳐다보았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보, 집에 세멘트 전사해둔게 있지?》

밀도끝도 없이 던지는 유성의 말에 혜정은 눈이 울통해졌다.

《세멘트요? 갑자기 세멘트는 왜 찾아요?》

《송어의 인공알배기장을 새롭게 만드는데 필요해서 그러요.》

혜정은 긴장했던 낯색을 풀며 말했다.

《난 또 무슨 큰일이 났는가 했지요. 그런거야 관리소에 제기해서 해결받아야지 집으로 달려오면 어떻게 해요?》

《언제 그럴새가 없어 그러니 집에걸 먼저 쓰지요.》

《아이참, 당신두... 집일에 관심이 없으니 영 깜깜이지요. 아, 그거야 내가 여름철에 창고벽이 허물어져서 다시 쌓느라고 다 쓰지 않았어요.》

《뭐라구?...》

순간에 다리가 매시근해졌다. 집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혈금씨금 달려온 그 정력이 순간에 온몸에서 다 빠져나가는것 같았다.

락심하여 한동안 굳어진듯 서있던 유성은 지친 다리를 끌며 돌아섰다.

유성은 할수없이 수민연구사와 함께 통나무들을 가져다 강바닥에 말뚝들을 박고 귀틀식으로 알배기장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째새기들에는 막돌들을 날라다 쌓아놓았다. 이렇게 만든 알배기장에 기슭에 있던 송어들을 옮겨놓았다. 비록 볼품이 없고 견고하지는 못했지만 송어가 강물을 거슬러오르는것과 같은 물흐름세기를 받는데는 아무 지장도 없었다.

《큰물이 지지 말아야겠는데...》

수민연구사는 알배기장에 갇혀 물살을 헤가르며 자꾸 우로 치달아오르려고 촌촌히 엮어놓은 나무 받들을 들이받고있는 송어들을 들여다보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자연환경속에서 진행되는 시험인것만큼 자연의 피해를 받으면 랑패를 볼수 있었다. 과학리론적으로는 증명되었지만 생물학이란 환경조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들은 강기슭에 초막을 지어놓고 밤낮으로 송어들을 관찰했다. 유성은 반두와 후리채를 가지고 매일 송어보호구역을 돌아보며 작은 물고기들과 청벌레, 나비 등을 잡아다주었다. 때로는 송어들에게 집에서 강냉이가루를 발효하여 짐승피나 꿀 등 여러가지 영양물질들을 섞어만든 배합먹이를 가져다 먹이기도 하였다. 그리고는 또 째만 있으면 양어학에 대한 새 기술자료들을 탐독하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수민은 유성의 정열과 헌신성에 탄복했다. 누구나 저런 정신과 의지를 가지고 일해나간다면 자기

말은 어느 초소에서나 최첨단을 돌파하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는 날은 앞당겨질 것이다.

어느날 수민은 모닥불앞에서 책에 정신이 팔려 있는 유성에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다 유성동무도 연구사가 되지 않겠소.》

《제가 이제 연구사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이제는 무엇이나 모르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수민이 의미심장하게 머리를 끄덕이더니 화제를 바꾸었다.

《참, 이전에 이 마양송어를 양어하겠다고 가져다 키우던 곳이 있었다고 했지.》

《예, 광산의 후방기지 양어장에서 가져갔는데 번식을 시키기 못해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내 그곳에 한번 갔다와야 할 것 같소. 그동안 유성동무가 이곳을 좀 말아주요.》

다음날로 연구사는 광산양어장으로 떠나갔다.

유성은 검비와 함께 초막에 있으면서 알배기송어들을 산모 돌보듯 정성스레 돌보았다. 그는 연구사가 지정한 시간마다 물흐름세기도 조절해주고 송어들의 운동상태를 자세히 일지에 적어놓았다. 처음보다 송어들의 운동이 느려지고 배가 불어난 것이 현등하게 알렸다. 이제 며칠 있으면 기슭에 있는 알뜰이못으로 옮겨야 했다. 과연 성숙된 알을 받아낼 수 있겠는지...

## 6

연구사가 떠나간 이튿날이었다. 패창하던 하늘에 갑자기 비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방울방울 나무잎을 두드리며 떨어져내렸다. 강물우에는 무수한 물방울들이 생겨났다가는 곧 터져버리곤 했다.

유성은 검비와 함께 초막에 앉아 하늘을 근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재빛구름으로 두터워진 하늘에서는 쉽게 비가 건힐 것 같지 않았다. 점점 비방울이 커지며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이 불안했다. 산골물이란 비가 좀 내리면 골짜기들에서 탕수가 흘러들면서 급작스레 불어나 무섭게 사품치며 흘러내리곤 했다. 그렇게 되면 돌과 통나무로 쌓아 만든 그리 견고하지 못한 알배기장이 견디어내지 못할 것이다.

어느새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했다. 유성은 초막에서 나와 강물에 들어섰다. 그리고는 알배기장이 떠밀리우지 않게 바위돌들을 날라다 덧쌓았다. 비는 점점 억수로 쏟아졌다. 무릎을 치던 강물이 어느덧 허리까지 차오르고 알배기장의 귀틀이 움썽움썩했다. 그안의 송어들도 위험을 느낀 듯 어디론가 빠져나가려고 이리저리 요동쳤다. 조금만 물이 더 불어나면 이 알배기장이 아예 무너져 떠내려갈 것 같았다.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던 유성은 우선 송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물을 가져다가 그안의 송어들을 건져내었다. 그리고 세찬 물살에 몸을 비칠거리며 한걸음두걸음 강기슭으로 나왔다. 그러다 그는 비명소리를 지르며 강물속에 어푸러졌다. 강바닥으로 굴러내리는 돌이 그의 종아리를 쳤던 것이다. 그는 그속에서도 송어를 잡아넣은 그물망태기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이때 알배기장이 우지끈 무너졌다. 폐목이 홀어지듯 통나무들이 밀려내려오며 그의 허리를 또 후러쳤다. 순간 정신이 아찔해진 그는 다시 사품치는 강물속에 쓰러졌다.

손에 쥐고있던 그물망태기안에서 송어가 빠져달아나며 물속에 잠긴 그의 얼굴을 꼬리로 힘껏 후려갈겼다. 그바람에 정신이 버쩍 든 유성은 벌어진 그물망태의 아구리를 짝 그러쥐고 초인간적 힘을 내어 기슭으로 한걸음한걸음 나왔다. 기슭에 이른 그는 더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검비가 왕왕 짚어댔다.

어슴푸레한 의식속에 겨우 얼굴을 쳐드니 샘터까지의 거리가 천리처럼 아득히 멀어보인다.

그물망태기안에는 일곱마리의 송어가 푸들쩍 거리고있었다. 조금만 시간을 지체하면 이 송어들의 생명은 끝장나고말것이다.

(이게 어떤 송어인가. 우리 장군님 그렇게 아끼시는 나라의 국보, 천연기념물이 아닌가. ...)

그러자 나라의 곳곳을 찾으실 때마다 특이한 산천경개나 천연기념물을 보시면 그토록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잘 관리했다고, 애국자들이라고 아낌없이 칭찬해주시던 아버지장군님의 영상이 유성의 흐릿한 망막속에 우뚝이 떠오른다.

(가자, 저기 샘터까지만...)

유성은 이를 악물고 한치한치 샘터쪽으로 기여갔다. 샘터에 송어를 넣는 순간 그는 그만에야 정신을 잃고 맥없이 쓰러지고말았다.

한참후 유성은 자기의 몸이 몹시 들춰지는 감각에 눈을 떴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안해 혜정이가 자기를 업고 산골길을 걷고있었다.

유성이 신음소리를 내자 혜정은 그를 길옆 돌섬에 조심히 내려놓았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혜정은 눈물이 그렁하여 떨어지는 손으로 유성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한동안 멍해있던 유성이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알고 왔소?》

《개가... 검비가 집에 왔더군요.》

…혜정은 부엌문을 박박 허벼대며 미친듯이 짓는 검비의 울음소리에 화들짝 놀라 문을 열었다. 그러자 검비는 흐느껴우는듯 한 쿵쿵소리를 내며 혜정의 주위를 빙빙 돌다 못해 주둥이로 치마자락을 잡아채며 어디론가 이끄는것 같았다.

혜정이 이상한 예감에 그의 뒤를 따라서자 검비는 웅웅 짓으며 급하게 내달리기 시작했다.

(송이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불길한 생각을 품고 목에 거불내가 나도록 달려 남편이 일하는 초막가까이에 이른 그는 눈앞의 광경에 그만 넋을 잃고말았다.

남편이 것처럼 온넋을 다 바쳐 힘과 정열을 다해 관리하던 마양송어의 알배기장은 온데간데 없고 시누런 강물만 호호탕탕히 무섭게 사품쳐흐르고있었다.

《여보!》

눈길을 허둥거리며 목청껏 남편을 찾던 혜정의 시야에 강기슭의 샘터에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쓰러져있는 남편이 비껴들었다.

눈물이 찼찰 흘러내렸다.

혜정은 빨리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제압담 남편을 들쳐업고 달리기 시작했던것이다. ...

유성은 안간힘을 쓰며 일어나앉아 안해를 이윽히 쳐다보았다. 혜정의 온몸은 땀에 화락하니 젖어있었고 얼굴은 나무가지에 굽히고 쏠리워 말이 아니었다.

유성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여보, 나때문에 당신까지 이 고생이구만.》

《그런 못난 소린 하지 말고 어서 병원으로 가자요.》

혜정은 어쩐지 자꾸 쏟아지는 눈물을 보이고싶지 않아 등을 돌려대고 다시 그를 업으려고 했다.

《가만, 난 지금 병원이 아니라 송어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요.》

유성은 제절로 일어서려고 모지름을 쓰며 말했다.

《뭘예요?! 지금 당신 제정신이에요?》

《아니, 난 팬찮소. 타박을 좀 받았을뿐인데 공연히 그러누만.》

《여보, 당신 정말 왜 그래요! 이러다 죽자고 그래요?!》

혜정은 너무 안타까와 유성의 가슴을 막 두드렸다.

유성은 너그럽게 웃으며 어린애를 달래듯 말했다.

《그러지 마요. 당신도 보았겠지. 지금까지 애지중지 품을 들여온 인공알배기장이 큰물에 떠내려간것을 말이요. 거기서 겨우 몇마리를 건져놓았는데 그것까지 잘못되면 정말 야단이요.》

《당신이야 감독원사업이나 잘하면 되지 않아요. 당신이 뭐 연구사예요? 그런다고 당신한테 도

대체 뭐가 차례지나요.》

혜정은 제 몸은 생각지도 않고 송어에만 정신이 쏠려있는 남편이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그래서가 아니요. 당신도 전번 연구사선생의 이야기를 들었지.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여주시기 위해 저 머나먼 나라에서 희귀한 물고기까지 가져다가 키워보도록 하신 그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말이요. 그런데 제 나라에서 자라고있는 이 좋은 물고기조차 우리가 인민생활에 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선군시대의 인간들이라고 말할수 있겠소. 난 이제 천연기념물로만 여기던 이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마양송어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도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장군님의 모습을 그려볼 때면 마음이 즐거워지고 힘이 생기군 하요. 자, 어서 날 좀 부축해주오.》

《에이, 당신같은 고집쟁이, 난 정말 싫어요!》

혜정은 그만 뜨거운것을 삼키며 유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말았다.

《허허, 누가 들으면 진짠줄 알겠소.》

유성은 혜정의 흠어진 머리오리들을 비다듬어주며 사나이답게 웃었다.

그들은 언제 다투었던가싶게 뜨거운 정회에 잠겨 마주보았다.

혜정은 유성을 부축하며 일어섰다.

샘터에 이르러 송어가 살아있는것을 보자 유성은 한시름 놓았다.

혜정은 유성을 억지로 앉혀놓고 자기가 샘터를 더 깊이 파고 넓혀 송어가 자유롭게 헤엄칠수 있도록 해놓았다.

어느덧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다. 산골기운이란 해가 기울기만 하면 한여름에도 썩한 기운이 돌군 하는터라 이제는 찬기운에 몸이 다 얼어드는듯 했다. 더구나 하루종일 찬물속에서 치달릴하느라 지치고 상처까지 입은 유성은 몸살이 오는듯 우들우들 떨었다.

《여보, 당신은 집에 들어가요. 오늘 밤은 내가 대신 여길 지키겠어요.》

혜정이 유성일 찌릿한 눈길로 쳐다보며 말했다.

《팬찮소. 어서 모닥불이나 좀 피워주오.》

남편의 성미를 너무도 잘 아는 혜정은 호 한숨을 내쉬고 곧 초막앞에 불을 지펴놓았다.

유성은 불가가까이에 마주앉았다. 젖은 옷을 입은 그의 몸에서 김이 물물 피어오르며 후끈후끈해졌다. 더워지니 상처자리들이 못 견디게 쭈셔나기 시작했다.

혜정의 부드러운 손이 유성의 상처자리를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몹시 아프지요?》

《아니, 그런데 배가 출출하구만.》

유성은 안해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능쳐놓느라

우정 배고픈 시늉을 했다.

《그래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요.》

안해는 초막안으로 들어가 남비에 쌀을 담아가지고 나왔다. 미구에 밥짓는 구수한 냄새가 풍겼다. 김이 뿜어나오며 남비뚜껑이 달가달가당 가락맞게 울렸다.

혜정은 그앞에 동실한 무릎을 감싸쥐고앉아 혼자생각에 골몰해있었다. 그러는 그를 바라보며 유성은 말을 건넸다.

《여보, 고맙소. 오늘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뻔 했소.》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요. 난 지금까지 당신과 다른 생각을 하며 살아온 나쁜 녀자예요. 용서해줘요.》

혜정이 자책에 잠겨 말하며 유성의 어깨에 가버이 기댔다. 순간 유성은 별스레 가슴이 달아오르며 안해가 여느때없이 사랑스러워보였다. 그는 안해의 어깨를 따듯이 어루만졌다.

《여보, 난 어쩐지 우리 장군님께서 언제건 이곳에도 꼭 찾아오실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구만. 그때 송어떼가 이 강과 호수에 차고넘친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장군님께서 이 깊은 산골에까지 오신단 말이에요요?》

혜정은 너무도 엄청난 꿈을 꾸고있는듯 한 남편을 놀랍게 쳐다보았다.

《글쎄 자꾸 그런 생각이 드누만.》

그의 목소리가 금시 젖어드는듯 했다. 그 소리에 혜정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비구름이 말끔히 가시여진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였다. 그 별들을 이윽히 바라보는 유성의 가슴속에는 이밤따라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못 견디게 불타올랐다. 그는 그 감정을 억제할수 없어 피리를 꺼내어들었다. 아름다운 피리소리가 산촌의 밤하늘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혜정도 뜨거운 걱정애 잠겨 그 피리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불렀다.

시내물 굽이굽이 어디로 가나  
넓고넓은 저 바다 품으로 가네  
내 마음 훨훨 어디로 가나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깊어가는 산촌의 밤, 뜨거운 정이 넘치는 행복의 밤이였다.

광산후방기지 양어장에 갔던 수민연구사가 날이 밝자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는 강바닥에 있던 알배기장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고 불어난 시누런 강물만이 꿈틀거리며 무섭게 흐르는것을 보자 그만 아연하여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연구사선생, 지내 락심하지 마시오. 알배기장에 있던 고기들중에 아직 몇마리는 건재해있수다.》

유성이 도와 알쓸이터를 복구하다가 올라온 인국아바이가 연구사앞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그 소리에 맥없이 주저앉아있던 수민연구사가 벌떡 일어서며 물었다.

《어디에 말입니까?》

인국아바이는 연구사를 샘터로 이끌었다. 그곳에는 유성이 희생적으로 구원한 일곱마리의 송어가 있었다.

사색이 되었던 수민연구사의 얼굴이 금시 밝아졌다. 그는 잃어버렸던 보물을 다시 찾은듯 무릎을 꿇고앉아 그 일곱마리의 송어를 정신없이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말없이 옆에 서있는 유성의 피멍이 들고 터진 상처자리들을 어루만지며 걱정애 겨워 말했다.

《수고했소. 유성동무가 아니었다면 우린 큰 손해를 볼뻔 했소.》

유성은 연구사의 감동어린 말에 오히려 쑥스러워하며 말머리를 다른데로 돌렸다.

《갔던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 참, 이제 우리가 인공알쓸이를 성공하면 우선 그곳 양어장에 가져다 키워보자구. 그곳 형편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할것 같소.》

《그렇습니까?》

유성은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마양송어의 양어가 현실로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애 가슴이 높뛰었다.

인국아바이는 너무 기뻐 젖어드는 두눈을 습벽거리며 연구사의 두손을 꼭 잡았다.

《연구사선생, 정말 고맙수다. 내 가슴에 맺혀있던 한이 이제야 풀리는것 같수다.》

《아닙니다. 아바이! 저보다 유성동무와 같은 애국자들이 있기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는것입니다.》

인국아바이가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참 희한한 일일세. 난 벌써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새로운 풍경을 보는것 같네. 지금 세계의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번창하고있으니 정말 흥하는 세월이 아닌가.》

《웁습니다. 누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대로 자기 땅에 밭을 붙이고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해 용감하게 투쟁한다면 우리의 강성대국건설은 더 빨리 실현되어 우리 나라는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무릉도원으로 변모될것입니다.》

그들이 끝없이 번영할 래일을 그려보며 크나큰 흥분으로 가슴부풀리고있을 때 강변에 말파리 한대가 나타났다. 혜정이 물고온 그 말파리에는 세멘트가 가득 실려있었다.

《이건 어디서 난거요?》

유성이 의아한 눈길로 안해를 쳐다보았다.

## 아들이 부르는 노래

권 오 준

### 어머니 그 나이 젊어드리고싶어

### 어머니의 돌보기

자식의 성장은 어머니가 자래우고  
어머니 백발은 자식이 없는다더라

해마다 력서의 마지막장을 번질 때면  
어머니 나이를 세여보며 가슴뜨거워짐은

어머니의 나이를 똑 떼여  
내 나이에 더 잇고싶은 마음이어라

바늘귀 쥔 때도 신문을 읽을 때도  
돌보기를 끼시던 어머니

기뻐하는 이 아들의 마음  
피로워하는 이 아들의 마음

그 마음 헤아려보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아 돌보기가 없더라

### 지평이 아니짚고

### 젓 줄 기

시인이 된 이 아들을 찾아  
《로동신문》에 난 이 아들의 시를 보고  
먼길 걸어오신 어머니앞에  
나는 두무릎을 꿇었어라

그처럼 먼길 지평이 아니짚으시고  
시 한편을 들고 오셨으니  
아 이 아들의 한편의 시가  
어머니를 부축해주었구나

어머니 날 품안아  
애지중지 키워주신 못 잊을 그 사랑

내 머리 흰 오늘에도 잇고사는  
한생의 젓줄기 아니던가

아 고마운 어머니  
이 아들에게 삶의 젓줄기를 준  
나의 어머니 당의 품이여!

~~~~~  
혜정의 감실감실한 얼굴에 구슬같은 땀방울이  
맺혀있었다. 그는 오늘 이른새벽 립산말파리를 빌

려가지고 읍에 있는 오빠에게 다녀왔던것이다.  
혜정은 이마에 맺힌 땀을 씻으며 유성에게 죄스

러운 눈길을 보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하는 일을 제가 너무  
나 강건너 볼보듯 했어요. 사실 그때 당신이 세

멘트를 구하지 못해 속이 타서 뛰어다니는걸 보  
면서도 아무 궁냥도 하지 않은 내가 땡땡이었  
어요. 하지만 이제 나도 당신일을 적극 돕겠어요.

오빠도 당신이 참 좋은 일을 한다며 극성스레  
이걸 모아서 보내주었어요. 이거면 큰물피해에도

끄떡없는 인공알배기장을 만들수 있어요?》  
혜정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유성은 그제야 모든것이 리해되었다.  
《여보, 정말 고맙소.》

그는 뜨거운 눈길로 안해를 쳐다보며 무슨 말을  
더해야 할지 몰라했다.

그들을 지켜보고있던 수민연구사도 생각깊은 거  
동으로 세멘트마대를 쓸어만지었다. 그러자 혜정

은 송구스러움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말머리를 돌  
렸다.

《참 여보, 송이가 요즘 피리를 배우느라 열성  
이에요. 그래서 나도 그래, 넌 아버지의 피리부는

법부터 배워야 해 하고 말해주었어요.》  
혜정의 그 말뜻을 새겨보던 수민연구사와 인국

아바이는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즐겁게 웃었다.  
《암, 그렇구말구. 이 산골에 그 피리소리가 없

으면 텅 빈것 같더라니까. 오늘같이 기쁜 날 우  
리도 송이 아버지의 그 유명한 피리소리를 좀 듣

자구.》  
인국아바이가 주름살이 다 퍼지도록 환히 웃으

며 한마디 했다. 수민연구사도 미소를 지으며 머  
리를 끄덕였다.

유성은 가슴속에서 뜨거운것이 솟구쳐오르는  
것을 느끼며 피리를 꺼내들었다. 그의 눈앞에는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하늘가득 어려왔다.

피리소리는 푸른 산, 푸른 하늘로 은은하게 메  
아리쳐갔다.



#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형상의 대를 바로 세우자

—올해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된 단편소설들을 읽고—

김 순 립

올해 우리 작가들은 역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뜻깊은 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작가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전체 군대와 인민을 올해공동사설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와 인민이 요구하는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필가들의 사명은 선군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일떠세우고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주는 글을 잘 쓰는것입니다.》

시대와 생활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독자들속에 빨리 읽히울수 있는 단편소설은 매력있는 문학형식이다.

우리 작가들은 단편소설의 미학적특성과 인식교양적의의를 깊이 깨닫고 올해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여기에서도 특히 주목되는것은 올해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이 량적으로 많을뿐아니라 소설의 형상수준도 비교적 높아졌다는것이다.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의 새로운 혁신적면모는 수령의 내면세계를 대담하게 펼쳐보이면서 심리묘사를 잘함으로써 수령의 위대성이 감성적으로 체득되도록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단편소설 《태동하는 봄날에》(강현만 작, 4호)는 위대한 정치가로서의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적품모가 격이 있게 진실하게 돋구어지고있으며 전반적으로 생활이 풍만하고 아버지수령님의 내면세계를 감동깊이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적사실이지만 새로운 느낌을 주는 품위있는 작품이다.

민족대단합을 언제나 중시하면서 아픔에 우는 사람은 물론 남의 가슴에 아물지 않는 상처까지 박아넣은 죄많은 인생들까지 다 품어안으시는 위대한 수령님, 김종항, 강량욱이 민족대단합을 위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고 나서도록 하시는 수령님, 남조선대표들이 나무리벌 쌀밥맛을 보도록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대동강송어맛도 보도록 하신 아버지수령님...

소설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위인적품모에 매혹된 김구가 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있다.

《...장군님, 터놓고말해서 난 정치를 찾아왔다

가 인덕의 기둥을 만났습니다. 인덕으로 배달민족을 묶어세우시는 김일성장군님이라는 기둥을 말입니다.》

소설은 참으로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김구가 위대한 수령님의 인간적품모와 정치적수령으로서의 위대성에 감복되어 수령님을 통일위업의 기둥으로 높이 내세우는 이야기를 담고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형상하였다.

작품은 생활이 풍만하고 묘사형상, 대사들을 격이 있게 쓰고있으며 역사적자료들을 생활과 성격을 부각시켜주기 위하여 조리있게 잘 엮어나간것으로 하여 독자들속에서 잘 읽히우고있으며 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단편소설 《그리운 땅》(정영종 작, 2호)은 끝없는 현지도의 나날에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정을 더 만발하게 가꿔가고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를 그이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로 감동깊게 부각하고있다. 특히 소설에서는 인상깊은 세부형상을 통하여 수십년세월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사랑과 보답의정이 오고간 그 숭고한 세계를 뜨겁게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이채로운 감명을 안겨주고있다.

소설에서는 광산이 생겨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여기에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인정의 세계, 광산사람들의 그리움의 세계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려 형상하고있다.

작품은 거의 한길되는 눈이 덮인 솔매령을 넘으며 귀중한 광부들이, 나의 동지들이 손뎌아기다리고있는데 눈이 한길이면 어떻고 열길이면 어떻게 단 말인가고, 어서 가자고 재촉하시는 우리 장군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즉시 달려나와 길을 정리하느라 령길에서 꼬박 밤을 새우는 광부들, 연혁소개실에 들리시여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발자취가 소중히 새겨져있는 연하땅, 그 땅을 심장으로 받들어올려 오늘에 벌써 강성대국 그날에 펼쳐려 한 새 모습을 먼저 안아온 귀중한 광부들의 위훈을 축복해주고싶으신 장군님의 내면세계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인정과 그리움의 세계를 뜨겁게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에서 광산의 어제와 오늘의 증견자로 더더욱 친밀하게 새겨져있는 채준보로인파의 뜻깊은 상봉을 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모습, 장군님을 그리워하는 인민의 절절한 마음어린 사연깊은 강아지완구를 다시 바라보시며 광산방송선 전차 방송원 채수연을 친딸처럼 가까이 세우고 사

진을 찍으시는 장군님의 형상 등은 감정정서가 풍만하며 읽고나면 뜨거움을 금할수 없게 한다. 작품은 단편소설다운 구성의 묘미, 세부형상의 진실성을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일정한 격이 있다.

올해 발표된 단편소설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기 시대정신을 적극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문제성을 강화하고있다.

많은 작품들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주요전선의 생활을 정면으로 반영하고있으며 의의있는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비교적 공감이가게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인간학적요구를 구현하기 위한 소설가들의 진지한 탐구가 비껴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특히 우리 혁명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있는 시대적요구를 예술적으로 해명함으로써 현 시기 오랜 세대와 새 세대가 어떤것을 물려주고 무엇을 인계받으며 어떻게 살며 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해답을 주고있다. 물론 정책적요구에 맞게 형상의 대를 세우는데서는 일련의 부족점과 론의점들을 제기하고있다.

단편소설 《가보》(김혜인 작, 1호), 《겨울밤의 궤도전차에서》(림봉철 작, 2호), 《아름다운 저녁노을》(리룡운 작, 1호) 등에서는 혁명의 계승성문제를 기본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작가들이 단편소설창작에서 시대적요구를 옳게 포착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가보》는 그 누구의 그늘밑에서 기생하는 인간이 되지 말고 자기것을 창조해나갈줄 아는 참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다시말하여 부모의 덕에 호강하려는 자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독특한 구성수법, 섬세하고 진지한 세부형상을 통하여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끌고나가고있다.

작품은 작가의 개성이 뚜렷하고 세부형상, 언어형상수준이 높으며 잘 읽히우는 작품이다. 그리고 문제성의 견지에서나 예술성의 견지에서 새로운 전진의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다.

오늘의 대고조시기 강성대국건설에서 매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문제성을 제기한 소설들도 창작되었다.

단편소설 《높은 령 저 너머》(김홍익 작, 5호)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고 강성대국에서 덕을 보며 살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을 주고있다. 다시말하여 강성대국은 누가 건설해주지 않으며 자기자신이 건설하고 살아야 한다는 문제를 고향을 떠났던 사람의 심리적굴절속에 잘 보여주고있다.

하나의 령을 설정하고 그 령을 넘는 과정에 느끼고 받아안게 되는 세부설정은 작가의 발견이라고도 할수 있다. 또한 생동한 생활화폭속에 인간

들을 세우고 성격론리, 생활론리에 맞게 이야기를 잘 끌고나가고있다.

작품은 이야기식으로 담담하면서도 능숙한 필체로 형상의 생동성, 구체성을 잘 보장하고있다.

고향을 떠나 전망도속의 그림으로만 생각했던 그 리상향이 현실로 펼쳐지는 과정을 처남과 매부간의 인간관계를 설정하고 서로 대조되는 심리적 굴절속에 잘 보여주고있다. 여기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제힘으로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것을 신조로 삼은 처남의 형상은 오늘의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벌리고있는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주고있다.

작품은 재인 구성수법과 감정정서적흐름, 능숙한 언어형상으로 하여 작가의 뉘이 있다고 본다.

우리의 소설문학은 강성대국건설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최대한로 발양하도록 하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이 당과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에 비추어볼 때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수준은 웅대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있다.

올해 여러편의 단편소설들이 창작발표되었으나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는 전형적인 주인공의 성격을 원만하게 형상해내지 못하였다.

단편소설창작에서 일반적편향은 당정책적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의도하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탐구와 사색을 신차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올해 우리 당이 제시한 총적인 투쟁방향,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릴데 대한 정책적요구가 단편소설들에 민감하게 구현되지 못하고있다.

인민생활향상의 중요부문의 하나인 경공업부문 생활을 반영한 작품을 찾아보기 힘들며 농업부문 생활을 반영한 작품이 몇편 나오기는 하였지만 주제가 적극적이 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우리 소설이 당정책에 민감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단편소설에는 문학적인 주제의 발견이 있어야 하며 작가의 형상적주장이 명백하여야 한다.

단편소설 《삶의 노래》(강성일 작, 2호)는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제기한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고 작가의 설명으로 대치하고있다.

단편소설 《약속》(김정희 작, 3호)은 약속에 대한 해명을 옳게 하지 못하고있으며 우리 시대 청춘남녀들의 사랑도 저조하게 형상하였다. 공병분대장 립철이 수연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부터가 억지스럽다.

그리고 단편소설 《의지》(김명진 작, 8호)는 조선으로 가려는 주인공 움베르토의 앞길을 막기 위해 차사고를 일으켜 아들 벨슨을 반주점이 되여

# 산 상 의 꽃

## 리 영 복

화려한 옷을 즐겨입을 그 나이에  
언제나 수수한 제복을 입고있는  
너는 지질탐사대처녀  
너에겐 언제나 지질마치와 도면이 있고  
어깨엔 보물의 시료가 들어있는  
이끼묻은 배낭이 지어있다

꿈많은 지질기사 너에게는  
연구소에 아늑한 일터가 있었어도  
사람들이 쉽게 결심 못하는 초소  
인적없는 고원과 험준한 산밭을 타고  
걸음마다 미지의 초행길을 가야 하는  
험치 않은 길을 스스로 택한 너

끝끝한 사나이들과 어깨나란히  
자욱마다 구슬땀을 뿌리며  
힘한 골짜기와 초원을 누벼가는  
너는 기특한 탐사대의 자랑!

누구나 선풍 택하지 못하는 그 직업을  
청춘의 영예 청춘의 본분으로 정하였나니  
너에겐 또 남모르는 기쁨도 있다지

봄이면 향기론 두릅과 더덕 고사리와 참나물  
가을이면 살찐 송이버섯과 싸리버섯...  
갓가지 산나물로 별찬을 지어 차려주기도 하고  
생활의 구석구석을 뒤거둬해주어  
동지들이 고향의 정을 느끼며 즐거워할 때  
그것을 더없는 궁지와 기쁨으로 여기나니  
한창 멋을 부릴 나이에 너는 벌써  
《수리개》들이 사는 곳에 없어서는 안될  
다심한 누나이고 어머니!

삶을 어떻게 빛내야 함을 알기에  
청춘의 희망과 아름다운 꿈을  
가장 어려운 탐사의 길에서 꽃피우거니  
너는 청년들이 서야 할 위치를 리정표처럼  
말없이 가리키며 향기로운  
아름다운 산상의 꽃!  
실천으로 사람들을 위훈으로 부르며

아득한 높이에 선 선군시대 미더운 청춘!  
그래서 더 대견하고 돋보이누나

너를 기다린 편안한 일터가 있었건만  
힘든 개척자의 길을 성큼 택한 너  
어떻게 그런 장한 결심을 할수 있었느냐  
수수한 작업복에 로동화를 조여신고  
악새풀 엉킨 돌밭을 보도처럼 여기며  
이 땅에 창조의 큰 자욱 새겨가는 지질기사  
너의 기쁨은 탄맥과 광맥의 발견이고  
조업식장 하늘가 경축의 꽃보라!...

너의 로동은 아무도 보느이가 없어  
깨끗한 량심과 애국의 마음없인 할수 없는  
류다른 직업이어서 모두에겐 생소하고 낯설다  
하기에 내가 하는 신성하고 중대한 일  
신문과 화면에 자주 소개되지 않아  
사람들은 너의 기적같은 그 위훈 다 몰라도  
그때문에 더 보람차고 긍지높이 산다는 너  
그래서 더더욱 사랑스럽고 아름답구나

바람과 피약벌에 고운 얼굴이 그슬고  
이슬과 눈비에 옷자락을 적시며  
천험의 산과 초원을 뒤희 찾아낸 보화를  
조국에 섬겨온 수고많은 너로 하여 이 땅우엔  
억만재부가 솟아나고 자위의 총검이 번쩍인다  
네가 도면우에 점으로 표기한 그곳에서  
물동을 만재하고 기적을 올리며  
구내를 벗어나는 꼬리 긴 화차들을 보며  
너는 삶의 희열과 로동의 보람을 느끼나니

조국이 애지중지 쓰다듬어 아끼는 처녀  
아직 어느 청년에게 사랑을 고백한적 없어도  
크나큰 조국을 사랑할줄 아는 처녀야  
너와 같이 성실한 청년지식인들이  
강성대국건설장에 《탄약》을 대주기에  
전기로는 숨결 높고 전야엔 금나락 물결치나니  
오, 고맙다 처녀야 앞날을 축복하노라  
불수룩 가룩한 산상의 꽃이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복조선으로 향한 그  
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적들이 악랄하게 책동하는  
이야기이다.

아버지가 가는것을 반가와하지 않던 벨슨이  
아버지가 결심한것이 옳다고, 어서 계획한대로  
조선으로 떠나라고 하는것은 형상에서 틀  
리가 맞지 않는다. 사상적인 지향선이 안겨오지  
않고있다.

단편소설 《탄부와 너인》(백명길 작, 9호)은

당이 절박하게 해결을 바라는 의의있는 인간문제  
가 없고 구태의연한 생활을 그린것으로 하여 일  
정하게 실망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새해에도 21세기의 혁신적안  
목과 1970년대 창조방식, 투쟁기풍으로 당이 의  
도하고 바라는 문제, 당정책적문제를 제때에 민감  
하게 반영한 우수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해  
냄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정신력에 활력을 더  
해주는데 참답게 이바지해야 할것이다.

# 수기들을 통해 본 남조선사회의 진면모

박 국 보

지난날 남조선에서 적들에게 체포되어 오랜 기간의 감옥생활을 해온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우리는 그들이 공화국북반부에 와서 쓴 수기들을 보면서 오늘 다시금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인식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적들을 형상하는데서도 계급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원수들의 반동적본질과 취약성, 멸망의 불가피성을 예리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은 수기들마다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에 의하여 강요된 남조선사회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그들의 수기들에서는 우선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살하면서 파썸적폭압을 감행하는 남조선사회체제의 반동적본질을 예리하게 발가놓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남조선사회전체를 반공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고 법이란것을 민주주의와 통일을 지향하는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가혹한 폭정을 실시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렸다.

한 비전향장기수는 자기 수기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아무리 살아보려고 버둥거려야 돈없고 권세없는 사람들에게는 숨이 막히는 세상, 주객이 바뀌어진 거꾸로 된 세상이고보니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마땅히 여기 감옥에 갇혀 살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날로 우심해지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과 억압은 온 남조선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마땅히 감옥에 갇혀 살아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에 이른 세상, 이것이 바로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말살하려고 미쳐날뛰는 남조선의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며 남조선전체가 감옥이나 다름없는 사회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에 고향을 둔 비전향장기수까지도 자기의 수기에서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남녘땅은 정녕 남은 생이나마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땅이 못되었다.》고 했겠는가.

비전향장기수들은 수기마다에서 미제와 반통일세력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의 사회는 매 개인의 인생사로부터 시작하여 근로인민대중의 피를 말려가는 수난으로 얼룩진 사회이며 미제침략군의 강점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빼앗기고 온갖 불

행과 고통속에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애국자들, 통일애국투사들의 피어린 력사가 어려있는 사회임을 강렬하게 단죄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들은 이러한 인간불모의 정치제도를 조작해낸 민족의 원수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와 규탄을 자기들의 수기에서 격조높이 웨치었다. 한 수기에는 이렇게 써여있다.

《…주체87(1998)년 여름 (8월) 나는 〈준법서약서〉를 쓰면 석방시켜주겠다는 검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보기에는 남조선사회에서 〈준법서약서〉를 써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 그 첫번째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다. 세금을 거두는 부서를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한 의원들이 우선 〈준법서약서〉를 써야 할 대상들이다.

두번째는 법의 정의와 평등성을 지키지 않는 판사, 검사들이다. 법의 집행을 공정하고 엄하게 다스려야 할 판사와 검사들이 퇴물을 받고 법조항을 지키지 않는다.

돈에 의하여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가 된다.),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로 판결하는 판사, 검사들이 우선 〈준법서약서〉를 써야 한다. 셋째로, 국제인권법을 지키지 않는 〈외무부〉와 〈법무부〉의 관리들이다.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도 그 인권조항을 지키지 않을바에야 국제조약에서 탈퇴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 〈외무부〉와 〈법무부〉 관리들은 국제적인 인권조약을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써야 할 사람들이다.》

수기에서는 억지와 궤변, 허위와 기만이 판무하는 남조선에서 《법대로》라는 구호야말로 허공의 메아리라고 야유하면서 인간생지옥을 만들어낸 민족의 원수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호소하고있다.

수기들에 반영되어있는바와 같이 남조선사회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여 외세를 등에 업고 력대통치배들이 감행하여온 외세의존의 정치, 민주말살의 정치, 부정부패의 정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치의 총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비전향장기수들은 외세에 의하여 조작되었으며 그 앞잡이들에 의해 실행되어온 정치제도는 노예제시대의 순장제도도 무색케 할 정도로 인간의 정치적자유를 구속하는 제도라는것을 폭로규탄하고있으며 그러한 정치제도의 반동화를 몰아온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사환군들을 민족의 원수로, 반역자들로 폭로단죄하고있다.

다음으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의 수기들에는 극도의 빈궁속에서 허덕이는 남

조선인민들의 비참한 경제생활에 대하여 적라라하게 까밝히고있다.

장편수기 《나의 조국 영원하라》에는 이렇게 써여있다.

《...세상이 참 각박해요. 가차없이 자르고 쫓아내고... 옛그제는 아버지가 보험료를 타기 위해 아들의 새끼손가락을 자른 일까지 있었어요. 얼마나 기막힌 일이에요. 먹고 살지 못하니까 보험료를 타면 먹고 살수 있다고 아들은 초등학교 2~3학년생인데 아버지말대로 순순히 했다는것도 그렇고 참 가슴아프다못해 기막힌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이것은 남조선의 한 처녀가 필자에게 보낸 편지의 한도막이다. 보는바와 같이 순전히 먹고 살기 위해 사랑하는 제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오늘날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이다.

비전향장기수들의 수기들에는 이처럼 인민들을 두권리와 빈궁속에 허덕이게 하고 외세와 몇몇 안되는 자본가들에 의해 좌우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남조선경제생활을 폭로단죄하고있다.

이와 함께 수기들에서는 이러한 반인민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낸 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과 착취계급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적개심을 반영하고있다.

다음으로 비전향장기수들의 수기들에서는 남조선사회의 썩어빠진 정신문화생활을 생동한 사실자료들을 가지고 폭로단죄하면서 민족의 정신문화가 송두리채 말살당하고 미국식의 썩어빠진 부르

조아사상문화가 범람하는 남조선사회의 진면모를 깊이 파헤치고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이며 정신문화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다.

여러 수기들에서는 사상정신문화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필수적인것이 언어인데 그 사용에서 민족성이 유린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이 무시당하는 남조선사회야말로 정신문화의 불모지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거러표식판에도 우리 말보다 영어로 표기한것이 많고 직업을 하나 구하자고 해도 영어를 알아야만 취직할수 있는것이 남조선사회의 현실이다.

뿐만아니라 수기들에서는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미국식의 썩어빠진 부르조아생활문화가 판을 치고 사람들을 정신적불구자, 기형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남조선사회의 부패한 면모를 깊이 파헤치고있다.

이처럼 비전향장기수들은 수기들마다에서 미제침략군의 강점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빼앗기고 온갖 불행과 고통속에 신음하는 남조선사회야말로 반인민적, 반민족적인 사회이며 인간불모지라는것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이와 함께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도전해나서는 남조선의 괴뢰역적패당들의 운명이야말로 반드시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될것이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룩되고야말리라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토로하고있다.